



## All About Admissions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2020 충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가이드북

2020학년도 대입 전형별 지원 전략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방안

심층 면접의 핵심, 면접관의 마음을 읽어라!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알려주는  
고교생활 3-step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선택과목 탐구생활

내가 선택한 진로(進路)와 직업 미리 보기  
그것이 진로 독서!!

세상을 바꿀 신기술,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함께 여는  
'구동적 미래'

CBNU Vision 2030<sup>+</sup>

국가가 요구하는 인재양성 및 연구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며, 창조적인 교육연구 능력을 갖추고 활발한 학술 문화 교류 및 지자체, 산업체 등과의 폭넓은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할 것이며, 대학 경쟁력을 한층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다

NOVA APERIO

All About Admissions

CBNU



대학입학전형의 모든 것 **AAA**

# CONTENTS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 준비부터 진로 및 학습코칭  
그리고 컨설팅까지 수험생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발행처           충북대학교  
입학웰컴센터   043. 261. 2882  
입학정보        <https://ipsi.chungbuk.ac.kr>

### 입학전형

- 008 2020학년도 대입 전형 변화와 특징
- 014 2020학년도 대입 전형별 지원 전략
- 026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미리보기
- 028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방안

### 대입준비

- 036 입학사정관이 이야기하는 학생부종합전형
- 042 심층 면접의 핵심, 면접관의 마음을 읽어라!
- 048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알려 주는 고교생활 3-step
- 054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선택과목 탐구생활
- 060 입시 고민 - 안녕하세요



### 진로탐색

- 068 나의 인생 그래프, 나의 학습 그래프
- 072 내가 선택한 진로(進路)와 직업 미리 보기 그것이 진로 독서!!
- 076 세상을 바꿀 신기술,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 082 동아리로 알아보는 직업

### 학습코칭

- 088 창의성을 높이는 학습법
- 094 성공을 부르는 하루 10가지 습관
- 096 성적 올리는 집중력 향상법
- 098 이것만 알면 입시 고수 - 대학입학 용어사전

### CBNU

- 110 2020학년도 충북대학교 대입전형 기본계획
- 124 한눈에 보는 대학입학전형
- 126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

ALL ABOUT ADMISSIONS

# 2020

## All About Admissions

---

충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가이드북

### 입학전형

- 008 2020학년도 대입 전형 변화와 특징
- 014 2020학년도 대입 전형별 지원 전략
- 026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미리보기
- 028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방안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 -  
충북대학교



# 2020학년도 대입 전형 변화와 특징

충남교육청 교육연구사 **고명환**

2020학년도 수시모집은 2019년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정시모집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다. 정시모집 이후 결원이 발생하면 추가모집이 2020년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 전체 모집 인원 감소, 수시·정시 선발 비율 전년과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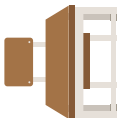
구분	수시모집	정시모집	합계
2020학년도	268,776명(77.3%)	79,090명(22.7%)	347,866명
2019학년도	265,862명(76.2%)	82,972명(23.8%)	348,834명

2020학년도 전체 모집 인원은 34만 7,866명으로, 2019학년도보다 968명 감소됐다. 수시모집에서는 전체 모집 인원의 77.3%인 26만 8,776명을 선발한다. 정시모집에서는 전체 모집 인원의 22.7%인 7만 9,090명을 선발한다. 수시모집 선발 비중은 2019학년도 대비 1.1% 증가했다. 이는 지방 소재 대학들이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을 높였기 때문이다.

##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 선발 안착

구분	전형 유형	2020학년도	2019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	147,345명(42.4%)	144,340명(41.4%)
	학생부(종합)_정원 내	73,408명(21.1%)	72,712명(20.8%)
	학생부(종합)_정원 외	11,760명(3.4%)	12,052명(3.5%)
	논술 위주	12,146명(3.5%)	13,310명(3.8%)
	실기 위주	19,377명(5.6%)	19,383명(5.6%)
	기타(재외국민)	4,740명(1.4%)	4,065명(1.2%)
소계		268,776명(77.3%)	265,862명(76.2%)
정시	수능 위주	69,291명(19.9%)	72,251명(20.7%)
	실기 위주	8,968명(2.6%)	9,819명(2.8%)
	학생부(교과)	281명(0.1%)	332명(0.1%)
	학생부(종합)_정원 내	96명(0.0%)	93명(0.0%)
	학생부(종합)_정원 외	340명(0.1%)	352명(0.1%)
	기타(재외국민)	114명(0.0%)	125명(0.1%)
소계		79,090명(22.7%)	82,972명(23.8%)
합계		347,866명(100%)	348,834명(100%)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전형 선발 인원은 14만 7,345명, 선발 비중은 42.4%로 2019학년도(선발 인원 14만 4,340명, 선발 비중 41.4%)에 비해 증가했다. 반면 2020학년도 정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 선발 인원은 281명(0.1%)으로 2019학년도 332명(0.1%)보다 줄었다. 이는 지방 소재 대학들이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을 선호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8만 5,168명(24.5%)을, 정시모집에서는 436명(0.1%)을 선발한다. 2019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수시모집 선발 인원은 8만 4,764명(24.3%), 정시모집 선발 인원은 445명(0.1%)이었다. 학생부종합전형 역시 수시모집 선발 인원이 늘었고, 정시모집 선발 인원이 줄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주로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이 선호한다.

또한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서는 논술 위주 전형으로 1만 2,146명(3.5%), 실기 위주 전형으로 1만 9,377명(5.6%), 기타(재외국민) 전형으로 4,740명(1.4%)을 선발한다. 정시모집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외에 수능 위주 전형으로 6만 9,291명(19.9%), 실기 위주 전형으로 8,968명(2.6%), 기타(재외국민) 전형으로 114명(0.0%)을 선발한다.

### 수도권 일부 대학 정시 및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인원 동시 확대

구분	정시 선발 인원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인원	
	2020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19학년도
경희대	1,459명(+69)	1,390명	2,314명(+91)	2,223명
고려대	658명(+58)	600명	2,338명(+31)	2,307명
서강대	473명(+153)	320명	868명(+14)	882명
성균관대	1,128명(+423)	705명	1,613명(+7)	1,606명
연세대	1,136명(+125)	1,011명	1,091명(+120)	971명
이화여대	783명(+89)	694명	898명(+55)	843명
중앙대	1,175명(+10)	1,165명	1,335명(+2)	1,333명
한국외대	1,245명(+60)	1,185명	1,011명(+17)	994명
한양대	868명(+16)	852명	1,077명(+2)	1,075명

2020학년도에는 수도권 주요 대학 입학 전형에서 정시와 학생부종합 전형 모집 인원이 동시에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정부의 특기자 및 논술 전형 축소 방침에 따라 일부 대학이 해당 전형으로 뽑는 인원을 줄이고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인원을 늘렸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 권유에 따라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정시 선발 인원을 확대했다. 성균관대의 경우 정시 선발 인원이 705명(19.5%)에서 1,128명(31%)으로 423명 늘었고, 서강대도 320명(20.2%)에서 423명(30%)으로 153명 늘어나는 등 정시 비율이 30%를 넘었다. 결과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은 수능을 통한 입학 기회가 많아진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시 선발 인원이 대폭 늘어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수시모집 인원 중 정시로 이월되는 모집 인원 때문이다. 2020학년도 역시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기조는 여전하다. 또한, 연세대·서강대 등 일부 대학들이 2020학년도 수시모집 일부 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했다. 보통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이 대거 탈락하여 결원이 발생하거나 미등록 학생들이 많아 모집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면 대학들은 이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해서 선발한다. 하지만 수능최저학력기준 미달로 탈락하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대학들은 수시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따라서

수시모집에서 이월된 인원까지 포함된 정시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늘 것인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 수시모집에서 수능 영향력 지속적 하락

수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다.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선발하는 인원은 기존 1만 4,983명(42.1%)에서 1만 6,464명(46.6%)으로 늘었다. 이미 주요 대학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 바 있다. 2020학년도에도 이런 경향은 확대되고 있는데 그 중 서강대 학생부종합(학업형), 연세대 학생부종합(활동우수형)과 논술, 한국외대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폐지는 학생들의 지원 심리를 더욱 높아지게 만들 수 있고 결과적으로 관련 전형에서 경쟁률 상승이 예상된다.

### 학생부종합전형 요소 점검 필요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전형 방법(일괄 혹은 단계), 전형 요소(면접 유무), 제출 서류(자기소개서, 추천서 제출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충북대 학생부종합전형I의 경우 1단계에서 서류 100%로 평가한 후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한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만 제출하면 되며,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충북대 학생부종합전형II는 서류 100%로 일괄 선발하기 때문에 모집 단위별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학교생활기록부 이외에도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생부종합에서의 전형 요소 변화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중앙대가 학생부종합 전체에서 면접을 폐지하거나 동국대가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의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는 것 등이 그렇다. 같은 학생부종합전형이라도 면접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자기소개서를 내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수험생별 유불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서강대 학생부종합(종합형, 학업형), 성균관대 학생부종합(계열모집), 숙명여대 숙명인재I(서류형), 중앙대 학생부종합(다빈치인재, 탐구형인재), 한양대 학생부종합(일반, 고른 기회), 아주대 다산인재, 한양대(에리카) 학생부종합I 등이 있다.

### 대학별 논술 위주 전형 모집 인원 감소

구분	2020학년도		2019학년도		2018학년도	
	대학 수	모집 인원	대학 수	모집 인원	대학 수	모집 인원
수시	33개교	12,146명	33개교	13,310명	31개교	13,120명
합계	33개교	12,146명	33개교	13,310명	31개교	13,120명

논술 위주 전형 실시 대학: 가톨릭대, 건국대, 경기대, 경북대, 경희대, 광운대, 단국대, 덕성여대, 동국대(서울), 부산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울산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양대(서울), 한양대(ERICA), 홍익대

논술 위주 전형으로는 모집 인원을 전년 대비 1,164명 감소한 1만 2,146명(전체 인원 대비 3.5%)을 뽑는다. 논술 위주 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은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33개교다. 연세대 논술 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 것과 성균관대의 논술 선발 정원을 대폭 줄인 것(2019학년도 900명⇒2020학년도 520명)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건국대 논술 전형은 그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2020학년도부터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학교장(고교) 추천 전형, 일부 대학 추천 인원 제한 없어**

과거 학교장(고교) 추천 전형은 내신 성적이 우수한 일부 학생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전형이었던 탓에 지원 가능의 폭이 좁았지만, 점차적으로 학교장(고교) 추천 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와 지원 자격 완화로 인해 그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내신과 비교과 활동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볼 수 있다. 학교장(고교) 추천 전형은 다른 전형에 비하여 경쟁률이 다소 낮게 형성된다. 이는 전형에 지원할 학생들을 교내에서 1차적으로 선별하기 때문이다. 물론 전형의 특성상 학교별로 뽑힌 우수한 학생들과 경쟁한다는 점은 부담되지만, 우수한 학생들인 만큼 타 대학 중복 합격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대학명	전형명	추천인원	전형방법(%)	수능최저학력기준
가톨릭대	[종합] 학교장추천	제한없음(의예1)	[1단계] 서류100(3배수) [2단계] 1단계70 + 면접30	간호 ○, 의예과 ○
건국대	[종합] KU학교추천	제한없음	교과30 + 서류70	X
경희대	[종합] 고교연계	인문2, 자연3, 예체능1	교과30 + 서류70	X
고려대	[교과] 고교추천 I	3학년 재적수 4%	[1단계] 교과100(3배수) [2단계] 1단계50 + 면접50	○
	[종합] 고교추천 II	3학년 재적수 4%	[1단계] 서류100(5배수) [2단계] 1단계50 + 면접50	○
국민대	[종합] 학교장추천	제한없음	교과30 + 서류70	X
동국대	[종합] 학교장추천인재	인문2, 자연2	서류100	X
서울교대	[교과] 학교장추천	제한없음	[1단계] 교과100(2배수) [2단계] 1단계90 + 면접10	○
서울대	[종합] 지역균형선발	2	서류70 + 면접30	○
	[종합] 기회균형선발 I (농·어촌학생)	3	[1단계] 서류100(2배수) [2단계] 1단계70 + 면접30	X
이화여대	[교과] 고교추천	제한있음(추후발표)	교과80 + 면접20	X
중앙대	[교과] 학교장추천	제한있음(추후발표)	교과60 + 서류40	X



대학명	전형명	추천인원	전형방법(%)	수능최저학력기준
인하대	[종합] 학교장추천	5	서류100	X
카이스트	[종합] 학교장추천	2	[1단계] 서류100(3배수) [2단계] 서류70 + 면접30	X
디지스트	[종합] 미래브레인추천	2	[1단계] 서류100(3배수) [2단계] 면접100	X
지스트	[종합] 학교장추천	1	[1단계] 서류100(3배수) [2단계] 서류70 + 면접30	X

\* [대입문의] 대교협 대입상담센터(전화상담 1600-1615), 대입정보포털 어디가(www.adiga.kr)

\* 본 자료는 각 대학에서 발표한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각 대학의 입학전형에 의거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전형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시 및 정시 모집요강을 참조해야 한다.

수험생에게  
책 추천해주고 싶은



- 책 제목
- 출판사
- 추천 이유

『인류의 기원』 - 이상희, 윤신영

사이언스북스

한국인 고(古)인류학자 이상희 교수가 쓴 ‘인류의 기원’은 한국어로 10쇄 출간에 이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로 번역이 되었으며, 특별히 영문판[Close Encounters with humankind]는 올해 미국인류학회 생물인류학분과에서 주는 W.W. 하웰즈상을 수상했다. ‘인류의 기원’은 인류의 탄생 시점부터 호모 사피엔스까지의 연대기적 서술이 아닌,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흥미로운 22가지의 인류의 이야기들을 생물학, 인류학 등을 넘나들며 담아낸다.

인류를 연구하는 다양한 방법, 인류를 바라보는 생물학적 관점 등은 문이과 고등학생 모두에게 호기심을 주기에 충분하다. 우리 인류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향한 인류의 또 다른 진화와 발걸음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해 준다.





## 2020학년도 대입 전형별 지원 전략

음성고등학교 교사 **고봉종**

### 2020학년도 대입 전형의 특징

- (1) 전체 모집 인원 감소, 수시 및 정시모집 선발 비율 전년과 유사
- (2) 학생부 위주 전형의 선발 비율 전년과 유사
- (3) 수시모집은 학생부,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 선발
- (4) 대학별 논술 위주 전형 모집 인원 감소

2020학년도 대입 전형별 모집인원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전형유형		2019학년도		2020학년도	
			모집 인원	비율	모집 인원	비율
수시	학생부	교과	144,340명	41.4%	147,345명	42.4%
	위주	종합	87,746명	24.3%	85,168명	24.5%
	논술 위주	논술	13,310명	3.8%	12,146명	3.5%
	실기 위주	실기	19,383명	5.6%	19,377명	5.6%
정시	수능 위주	수능	72,251명	20.7%	69,291명	19.9%
	실기 위주	실기	9,819명	2.8%	8,968명	2.6%

### 대입 전형에 대한 이해

❓ 대입 전형 설명에 앞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 중 큐브를 가장 잘 하는 학생은 누구일까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답해 보세요.

- (1) 선생님께 배운 한 가지 방법만을 반복 숙달하여 가장 빠르게 큐브를 맞추는 학생
- (2) 선생님께 배운 방법뿐만 아니라, 이를 응용한 다른 방법까지 익혀 큐브를 맞추는 학생
- (3) 선생님께 배운 큐브의 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큐브 맞추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한 후, 자신의 방법을 다른 친구들과 공유한 학생

❓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대답은 '세 명의 학생 모두'입니다. 너무 싱거웠나요? 하지만, 평가의 잣대를 어떻게 들이대는가에 따라 답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큐브 맞추는 속도만 본다면 (1)번이고, 큐브 맞추는 방법의 수를 고려한다면 (2)번이, 큐브를 익히는 과정을 따진다면 (3)번이겠지요. 대입 전형 설명에 앞서 큐브 이야기를 한 것은 현재 다양한 대입 전형을 통해 학생의 선발하는 과정이 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대입 전형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형 요소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대학 지원에 앞서 대입 전형별 요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학 지원에 앞서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내신 성적, 수능 점수, 비교과 활동 내용, 논술 중 어떤 부분에서 자신이 강점을 지니는지 확인해야 하고, 다음으로 서울 주요 사립대, 서울의 중위권 대학, 전국의 거점국립대 등 대학의 범주에 따라 전형 요소 중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전형별 선발 인원이 다른 만큼 자신이 지닌 강점과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범주의 전형을 면밀하게 비교해 봐야 합니다.

### 대입 전형별 지원 전략

1) 학생부 위주 전형(교과)

— 수시에서 차지하는 비중

구분	전형유형	비율		
		전국	서울지역 15개 대학	
수시	학생부위주	교과	43.3	13.8
		종합	21.6	42.0

2020학년도 수시 전형별 모집 인원 비교 <sup>1)</sup>

위의 표에서 드러나듯 학생부교과전형은 전국을 기준으로 수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서울 지역 15개 대학에만 한정하면 학생부종합전형과 역전되고, 그 차이는 세 배 이상 납니다.

서울 지역 15개 대학 중 학생부교과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부교과전형으로는 서울 지역 주요 사립대 진학이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소재 사립대 중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명	학생부(교과)	대학명	학생부(교과)	대학명	학생부(교과)
고려대(서울)	400	한양대(서울)	288	이화여대	390
중앙대	466	한국외국어대	562	숙명여대	266
서울시립대	202	홍익대	397	서울여대	196
국민대	457	광운대	151	동덕여대	404
세종대	460	송실대	475	성신여대	274

2020학년도 서울 지역 사립대 학생부 교과 전형 선발 인원 ↓

또한 거점 국립대학들의 경우, 서울대를 제외하고 학생부교과전형의 비중이 학생부종합전형보다 높습니다.

대학명	권역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대학명	권역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강원대	강원	2,271	636	충남대	대전	1,669	499
경북대	대구	1,136	926	충북대	충북	1,131	747
경상대	경남	1,184	1,054	전북대	전북	1,807	546
부산대	부산	1,275	601	전남대	광주	1,463	801
제주대	제주	890	328		전남	390	223

2020학년도 거점 국립대 학생부 교과 전형 선발 인원 ↓

## — 정량 평가 방식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정량 평가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과목	A학생				B학생			
	단위수	원점수/과목 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 등급	단위수	원점수/과목 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 등급
문학	5	93/66.5(19.3)	A(124)	2	5	87/66.5(19.3)	B(124)	3
미적분 I	4	71/50.5(19.5)	C(124)	4	4	75/50.5(19.5)	C(124)	3
영어 I	4	84/61.3(19.9)	B(225)	3	4	85/61.3(19.9)	B(225)	3

A학생과 B학생 중 어떤 학생이 더 우수한 학생일까요? 정량 평가 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과목의 석차 등급입니다. 두 학생의 석차 등급 합은 9로, 평균 등급은 3등급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단위수를 반영해서 두 학생의 등급을 산출하면 A학생(2.92)과 B학생(3)의 차이가 생기고, 과목별 가중치까지 부여한다면 결과는 또 달라지게 됩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지원 학생의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학교마다 반영하는 교과, 비율(학년별, 과목별), 등급 간 점수 차 등에는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시 요강과 비교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 학생부교과전형은 교과 성적이 다가 아니다.

학생부교과전형 지원 시 교과 성적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이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자신이 최저학력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능에서 최저학력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6월 모의 수능 등급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다만, 6월 모의 수능 때보다 대체로 수능에서는 재수생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수학 (가)형의 경우, 6월 모의 수능 이후에 (나)형으로 변경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며, 실제 수능에서는 중하위권 학생들이 미응시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수능 때까지 자신이 6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상대평가인 수능의 특성상 실제 수능에서는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6월 모의 수능 등급을 바탕으로 최저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 2) 학생부 위주 전형(종합)

### — 등급에 대한 오해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자신의 등급으로 지원하려는 대학이나 학과에 합격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좀 더 입시 정보를 많이 찾아 본 학생들은 “전년도 합격자 평균 등급이 2.4 정도이니 이보다 내신등급이 높은 자신은 최소한 1차는 통과하겠지요?”라며 내심 교사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지원할 때, 전년도 합격자 평균 등급을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되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합격생 등급만 보고 선불리 지원 여부를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정성 평가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학생보다는 학부모님들에게서 두드러지고, 학생들 역시도 단순 내신등급만으로 합격의 가능성을 점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년도 합격자 평균 등급만으로는 합격생의 비교과 역량을 전혀 알 수 없고, 특목고와 자사고의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주요 사립대의 경우, 평균 등급은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등 모든 합격자들의 평균이라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 — 정성평가에 대한 이해

석차등급							
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과목 평균
	교과	등급	교과	등급	교과	등급	
국어	국어Ⅰ,Ⅱ	3	문학Ⅰ,Ⅱ	3	독서와 문법	2	2.7
수학	수학Ⅰ,Ⅱ	2	미적분Ⅰ,Ⅱ	1	확률과 통계	1	1.3
영어	실용영어Ⅰ,Ⅱ	3	영어Ⅰ,Ⅱ	2	영어독해와작문	2	2.3
사회	한국사	4	법과 정치	4	사회문화	3	3.7

위 학생의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면 2.5등급입니다. 정량 평가가 결과로 나타난 교과목의 내신등급에만 주목한다면 정성 평가는 석차 등급을 받은 과정에도 주목하는 방식입니다. 위 학생의 등급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향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입학사정관은 학생의 학업에 대한 의지나 열정이 크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위 학생이 수학 관련 학과에 지원할 경우, 다른 과목에 비해 우수한 수학 성적을 고려하여 전공 적합성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사회 관련 학과를 지원할 때에는 전공 적합성 부분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교과의 등급 합만 보지 않고, 성적 변화 추이,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교과의 성적 등을 같이 보는 방식이 정성 평가입니다.

또한 성적 외에 위 학생의 학생부 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수학 관련 동아리에서 활동한 경험, 학급에서 수학 멘토를 한 경험, 수학 과목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학생의 학업 역량이나 수업에 임하는 적극적 태도 등이 기술돼 있다면 수학 점수를 올리기 위한 학생의 노력과 그 과정을 추측해 볼 수 있어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정성 평가 방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도 학업 역량을 평가합니다.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 A는 물리를 못하는 학생일까요?

과목	A학생			
	단위수	원점수/과목 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 등급
문학	5	90/61.5(17.9)	A(532)	1
영어Ⅰ	4	85/58.1(19.2)	B(532)	2
미적분Ⅰ	5	85/52.3(22.3)	B(246)	2
물리Ⅱ	3	84/79.8(7.4)	B(32)	4

다른 과목에 비해 물리Ⅱ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아 정량적으로 보면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이 물리Ⅱ에서 4등급을 받은 과정을 들여다볼까요? 학생부의 기록 없이도 과정을 추측할 수 있을까요? 비밀은 등급 외에 성적표에 명시된 다른 숫자들에 있습니다. 먼저 원점수를 보겠습니다. 비슷한 원점수를 받은 영어Ⅰ이나 미적분Ⅰ은 2등급인데 물리Ⅱ는 4등급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물리Ⅱ의 과목 평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평균이 높은 이유는 문제가 쉬웠을 수도 있고, 잘하는 학생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두 가능성 중 하나일 것입니다.

### ❓ 두 가능성 중 어느 쪽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과목 평균 옆에 보면 괄호 안에 표준편차가 기록돼 있습니다. 표준편차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수강한 학생들의 성적이 분포하는 정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평균값에 많은 학생들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리Ⅱ는 다른 과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편차가 작는데, 이는 수강자들 간의 실력 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다음으로 수강자 수를 볼까요?

위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같은 학년 학생 수는 532명일 것이고, 이와 학생 수는 246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물리Ⅱ는 그중에서도 32명만이 수강했습니다. 수강자 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등급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참고로 물리Ⅱ의 1등급은 1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Ⅱ를 선택한 A학생의 4등급은 다음과 같이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리Ⅱ의 평균이 높은 편이고, 표준편차는 작다

→ 물리Ⅱ를 잘하는 학생들이 몰려 있어 좋은 등급을 받기가 쉽지 않았겠군.

이수자 수가 적다

→ A학생은 물리를 좋아하는 학생이다.

→ A학생은 (낮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을 회피하지 않은) 도전적인 학생이다.

그리고 A학생의 물리Ⅱ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물리 관련 독서 등을 꼼꼼히 살핀 후, 학생의 역량과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기록들이 있다면 4등급의 불리함을 상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학생부종합전형의 정성 평가입니다.

— 서류의 중요성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선택)를 읽고, 학생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등을 평가합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는 당연히 교사가 작성하는 학생부입니다. 그러므로 3학년 1학기까지 알찬 기록을 위해 이전에 해 오던 동아리, 봉사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서류를 통해 평가하는 네 역량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 역량이고, 학업 역량은 다양한 학생부 기록을 통해 드러나지만, 학업 역량이 가장 잘 드러나는 항목은 담당 교과 선생님께서 적어주시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과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 그럼 이 둘을 어떻게 엮을 수 있을까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는 학생의 수업 참여와 태도와 노력, 교과별 성취 기준에 따른 학습목표 성취를 위해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합니다. 다시 말해, 수업에서 보이는 태도 외에 지필평가와 과정 중심 수행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생의 역량을 교과 담당 교사가 500자 이내로 적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정 중심 수행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그저 숙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어떤 역량을 드러내고자 하는 활동인지 과정 중심 수행평가에 대한 담당 선생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과정 중심 수행평가를 할 때, 단순히 숙제가 아닌 자신의 어떤 역량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과정 중심 수행평가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 간의 이와 같은 괴리감이 해소되지 않으면 과정 중심 수행평가를 통해 학생의 역량을 드러내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과정 중심 수행평가에서 많이 활용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터넷 자료로만 사례 조사를 하지 말고, 여러 권의 책을 읽은 후, 책의 내용과 결부지어 보고서를 작성하면 보고서 깊이가 더해지고, 여러분의 사고력이 확장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참고한 도서는 독서 활동지를 작성해 학생부의 해당 과목 독서란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따로 시간을 내서 책을 읽으려 하지 말고, 과정 중심 수행평가를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책에서

찾는 방법으로 독서와 병행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꾸준한 독서 활동이 각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과 독서란에 기록이 된다면 학생부에 여러분의 학업 역량이 성장하는 과정이 담기게 돼 알찬 학생부가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알찬 학생부는 좋은 자기소개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소개서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서류라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더 강하게 말하면 고1 때부터 알찬 학생부를 위한 여러분의 노력은 곧 자기소개서를 써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면접의 중요성

대부분의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1단계 합격생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의 방식은 크게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과 제시문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둘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은 면접을 통해 제출 서류(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에 기재된 내용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서류 내용 중 추가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제출 서류의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면접을 준비하며 입시 요강에 안내된 면접 준비 방법 및 사례, 각 교육청에서 제작한 면접 후기 책자 등을 꼼꼼히 살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면접 유형을 미리 익힌 후 면접에 활용해야 합니다. 제시문을 활용하는 면접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대학에서 안내한 자료나 기출 문제 분석을 통해 제시문의 성격과 유사한 글을 평소에 읽는 훈련을 해야 하고, 읽은 내용을 요약한 후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면접에서 면접관의 질문에 답을 제대로 못하거나, 소명이 불충분하면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활동의 진위 여부나 기록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기 마련이기 때문에, 면접관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답변할 수 있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말하기 능력은 단기간에 신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 학생참여 수업 중 발표하기와 토론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좋은 면접 준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논술 위주 전형

— 모집 인원의 감소

2020학년도 대입에서 논술 위주 전형은 2019학년도와 달리 수시 모집에서만 실시됩니다. 2020학년도 논술 위주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가톨릭대, 건국대, 경기대, 경북대, 경희대, 광운대, 단국대, 덕성여대, 동국대(서울), 부산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울산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양대(서울), 한양대(ERICA), 홍익대 등 33개 학교지만, 인원수는 2019학년도 대비 1,164명이 감소했습니다. 모집 인원의 감소 폭이 큰 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명	모집 인원		증감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성균관대	885	520	-365
이화여대	670	543	-127
서강대	346	235	-111
중앙대	883	827	-56
한국외국어대	546	493	-53
연세대(서울)	643	607	-36

2020학년도 서울 주요 사립대 논술 모집 인원 변화 ↓

— 학교생활기록부의 영향력

2020학년도 논술 위주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중 연세대(서울)과 건국대(서울)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학생부를 20~40%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반영되는 학생부는 교과와 비교과로 나눌 수 있는데, 비교과는 대개 출결과 봉사 시간을 정량적으로 반영하여 출결은 무단결석 일수만으로 감점하는 방식을, 봉사 시간은 20~25시간 이상을 만점으로 처리해 고등학교 3년간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만 해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논술 60%, 학교생활기록부 40%(교과 20%, 비교과 20%)를 반영하는 중앙대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앙대는 논술 위주 전형에서 교과는 다음 표처럼 석차 등급별로 점수를 환산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논술전형	10	9.96	9.92	9.88	9.84	9.80	9.60	8.00	4

2019학년도 중앙대학교 석차등급별 환산 점수표 ↓

위 표를 보면 6등급까지는 등급 간 0.04점의 차이가 있지만, 7등급 이하는 그 차가 커져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으로 인한 불리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40%라는 수치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40%를 반영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중 점수 차가 거의 없는 비교과가 20%를 차지하고, 교과 성적의 반영은 기본 점수(9등급 4점)가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실질 반영 비율은 20%보다 낮아 합·불에 대한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논술의 특성 때문에 내신 성적이 중, 하위권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반면 60%를 반영하는 논술은 기본 점수가 없기 때문에 당락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 논술 위주 전형을 준비할 때에는 논술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중요성

논술 위주 전형의 특징 중 하나로 경쟁률이 매우 높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쟁률은 이것보다 낮는데, 그 이유는 논술 위주 전형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높은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는 데 반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평균적으로 지원자의 50%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경쟁률이 반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당락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논술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더라도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불합격이기 때문에 논술 위주 전형에서는 논술 다음으로 수능 성적이 중요합니다.

4) 수능 위주 전형

— 정시 지원 시 유의할 점

정시는 1,2점 차로 합격 여부가 나뉘기도 하다 보니 전년도 합·불 데이터가 다른 전형보다 더 중요합니다. 전년도 합격자 자료는 대부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돼 있는데, 전년도 합격자 자료를 볼 때 유의할 점을 안내하겠습니다.

경희대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모집 단위	최종 등록자 상위 80% 평균 성적				
	백분위 점수				등급
	국어	수학	탐구	국수탐 평균	영어
국어국문학과	97.5	87.5	92.7	92.7	1.17

표 1. 2018학년도 경희대 정시 입시 결과 ↓

국어(88), 수학(89), 탐구(99), 영어(2등급)의 성적을 받은 학생이 경희대 국어국문학과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합격 가능성은 어떨까요? 영어가 2등급이라 감점 요인이 있지만, 국수탐 평균은 92라 상위 80% 평균 성적에 근접합니다. 합격 가능성은 높을까요?

참고로 경희대학교는 표2처럼 반영 영역별로 비율을 달리해서 평가합니다.

계열	모집계열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가)	(나)			사회	과학
인문	문과대학	35%		25%	15%	5%	20%	

표 2. 2019학년도 경희대 반영 영역별 비율 ↓

위 학생의 약점인 국어가 35%로 반영 비율이 가장 높고, 반면 가장 강점인 탐구의 반영 비율은 20%로 낮습니다. 반영 비율을 고려하면 전보다 불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또한 경희대학교는 백분위가 아니라 국어, 수학 영역은 표준점수를 반영하고, 탐구 영역은 해당 대학의 자체 기준인 ‘백분위변환표준점수’를 활용하여 산출합니다. 표1의 각 영역별 백분위는 반영 영역별 비율을 고려하지 않아 그로 인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전년도 합격자 데이터는 정시 지원 시 참고 자료일 뿐, 합격의 당락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또한 정시 지원 시 전년도 선발 인원과 올해 선발 인원을 꼭 비교해 봐야 하는데, 정시로 인한 선발 인원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 때문입니다. 만약 전년도 선발 인원보다 올해 선발 인원이 줄었다면 이전보다 합격선이 올라갈 것을 예상해 지원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정 인원보다 선발 인원이 늘어나기도 하는데, 이는 수시 미충원으로 인해 정시로 이월되는 경우로, 과에 따라 없을 수도 있고 2~3명 정도 늘 수도 있으니, 정시 지원 시 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영어 영역 유불리 고려

절대평가로 실시되는 영어 영역의 반영 방법이 대학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연세대와 고려대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대학명	모집계열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반영 영역 합계
			(나)	(가)		사회	과학	
연세대	인문	200	200		100	100		600
	자연	200	—	300	100		300	900
고려대	인문	200	200		등급별	160		560
	자연	200		240	감점적용		200	640

표 1. 2019학년도 연세대, 고려대 정시 수능 반영 ㄱ

표1을 보면 연세대의 경우, 영어의 비중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동일한 표준점수(영역별 가중치 무시)를 받았지만, 영어에서 각각 1등급과 2등급을 받은 두 학생이 연세대와 고려대를 동시에 지원했을 경우, 연세대는 영어에 기본 점수를 배정하고, 고려대는 영어를 제외한 다른 영역 전체 점수에서 등급에 따른 감점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영어 영역에 의한 점수 차는 크게 나타납니다.

대학명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연세대	100	95	87.5	75	60	40	35	12.5	5
고려대	0	-1	-3	-5	-7	-9	-11	-13	-15

표 2. 2019학년도 연세대, 고려대 수능 영어 절대평가 반영 방식 ㄱ

두 학생이 고려대를 지원했을 경우, 표2를 보면 두 학생의 영어 영역으로 인한 점수 차는 1점에 불과하지만, 연세대를 지원할 경우, 1점에 불과하던 점수 차는 무려 5점차로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연세대는 고려대와 달리 영어에 기본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라 영어의 영향력이 고려대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영어 영역 성적이 낮은 학생이 두 대학을 두고 고민한다면 연세대보다는 고려대를 지원하는 것이 덜 불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당부의 글



자신감이 부족해 남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어려워하던 한 학생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에 집중도 잘 하는 성실한 학생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편인데, 꿈과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면 아직 꿈도 없고, 동아리 활동도 흥미가 없는 자신이 패배자처럼 느껴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강조되면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공부해도, 아직 꿈이 없거나 비교과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시선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신의 확실한 꿈을 위해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처럼,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해 좋은 내신 점수를 받았다는 의지도, 다양한 문제 풀이를 통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수능을 준비하는 것도 모두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꿈이 없다고, 학과나 대학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위축되지 않길 바랍니다. 꿈이 없다는 것이 희망이 없는 것과 같은 말은 아니니까요. 다만 나중에 생겨날 꿈과 진로를 위해, 그리고 그때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선 바로 지금 좋은 내신 점수나 수능 점수를 위해 수업 시간과 혼자 공부하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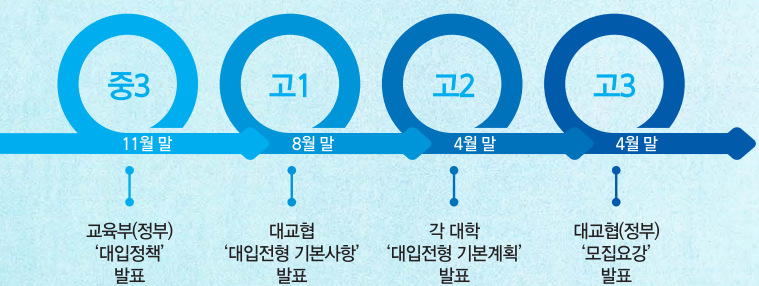
수시와 정시 지원을 할 때가 되면 3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현실적인 한계나 제약 앞에 자신의 부족함이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자신의 약점보다는 각각의 전형을 꼼꼼히 살핀 후, 자신의 학생부나 내신등급, 수능 점수 등을 각 전형에 비추어 보며 자신이 지닌 강점을 하나씩 적어 보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자신이 지닌 강점을 인정해 주는 전형에 지원하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항상 옳습니다.

#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미리보기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근거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신입생 입학 2년 6개월 전(고1 8월 말)까지 대학입학전형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험생들은 이를 통해 대략적인 대입정책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대학은 대교협이 발표한 기본사항에 근거해 모집인원과 선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하 전형계획)’을 입학 1년 10개월 전(고2 4월 말)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 대입제도 정착 프로세스 - 대입 3년 사전예고제



전형계획에는 모집단위(계열)별 모집 인원, 지원 자격, 수능 필수 응시 영역,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 학생부 반영 교과,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및 가산점에 관한 내용이 명시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정된 수시 모집요강은 입학 10개월 전(고3 4월 말)까지 공개됩니다. 모집요강은 전형계획 내용을 더욱 구체화시킨 것으로 전형계획에 나오지 않는 전형료, 학생부 반영 방법 상세 내용, 확정된 모집 인원 등이 담깁니다.

대교협은 지난 2018년 8월에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면서, 기존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틀 내에서 내용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으며, 수험생과 학부모가 대입 전형을 쉽게 이해하고 대학이 대입 전형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준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5학년도부터 추진 중인 대입 전형 간소화 정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도 지속하여 반영했습니다.

## 복잡한 대입 전형 명칭 표기 통일

복잡한 대입 전형의 단순화를 위해 대학별로 다양한 전형 명칭을 학생과 학부모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화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전형 명칭은 대학이 자율로 정하되, 위주 구분을 통일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별로 상이한 전형 명칭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스러워 했던 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전형의 유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형 설계·운영 시 ‘학력(學歷)’ 차별 금지

대입에서 전형을 설계하거나 운영할 때, 출신 고교나 검정고시 출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단, 전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 전형 요소에 대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지원자격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대입 지원 기회 확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을 위해 대학은 기회균형 선발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학별로 차등적 보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정원 내: 고른 기회 특별 전형, 정원 외: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 등)을 반드시 1개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 표준화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던 정원 외 2% 이내 선발 전형의 지원자격을 표준화했습니다. 해외 근무자의 재직 기간은 통상 3년(1,095일) 이상, 학생의 해외 재학 기간은 고교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해외 체류일수 조건은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부모의 경우 2/3 이상으로 설정하여, 부 또는 모의 재직 기간, 학생의 재학 기간, 부모 학생의 체류 기간 등을 표준화했습니다. 지원자격 변경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 보호 및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2014. 8월)부터 사전 예고하였습니다.

## 지원자격 표준화 주요 내용

구 분	2020학년도까지	2021학년도 이후
학생 이수 기간	2년 또는 3년 이상 등 대학 자율 시행	고교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으로 표준화
체류 기간	대학 자율 설정	학생 :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부모 :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해외 근무자 재직기간	대학 자율 설정	역년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사업/영업

## 전형일정

각 대학은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3월 29일(금)까지 대교협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대교협은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30일(화)까지 모든 대학은 홈페이지를 통해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합니다. 2021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 일정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대학별로 발표되는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구 분	수 시
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0. 09. 07.(월) ~ 11.(금) 중 3일 이상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 2020. 7. 6.(월)~10.(금)
전형 기간	2020. 09. 12.(토) ~ 12. 14.(월) (94일)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7~8월 중 전형 권장
합격자 발표	2020. 12. 15.(화) 까지
합격자 등록	2020. 12. 16.(수) ~ 18.(금) (3일)
미등록 총원 합격 통보 마감	2020. 12. 23.(수) 21시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20시까지, 20~21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2020. 12. 24.(목)

구 분	정 시
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0. 12. 26.(토) ~ 30.(수) 중 3일 이상
전형 기간	[가군] 2021. 01. 02.(토) ~ 10.(일) (9일) [나군] 2021. 01. 11.(월) ~ 19.(화) (9일) [다군] 2021. 01. 20.(수) ~ 28.(목) (9일)
합격자 발표	2021. 02. 01.(월) 까지
합격자 등록	2021. 02. 02.(화) ~ 04.(목) (3일)
미등록 총원 합격 통보 마감	2021. 02. 16.(화) 21시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20시까지, 20~21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2021. 02. 17.(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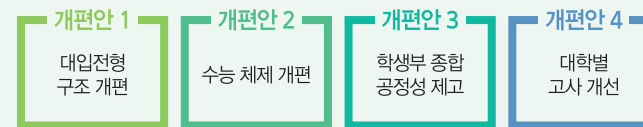
#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방안

충암고등학교 EBS 파견교사 윤기영

2018년 현재 중3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9학년도 고1부터 적용되며 대입제도 개편의 가장 큰 이유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은 문·이과 구분이 없어지고, 선택과목이 다양해지며 참여형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과정중심의 평가가 수행된다는 것이다.

## 2022 대입 제도 개편 방안의 기본 틀

2018년 8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방안은 2018년 현재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9학년도부터 적용된다.



개편 방안은 첫째, 2015개정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학교 교육이 모든 학생의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대입 제도와 고교교육 혁신 방향을 마련해야 하고, 둘째,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교육을 위해서 대학입학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셋째, 단순·공정하고 투명하며,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입 제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마련되었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

대입 제도 개편의 가장 큰 이유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은 문·이과 구분이 없어지고, 선택과목이 다양해지며 참여형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과정 중심의 평가가 수행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능 체제 개편이 불가피해졌고 더불어 대입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 방안이 마련되었다.



## 대입 전형 구조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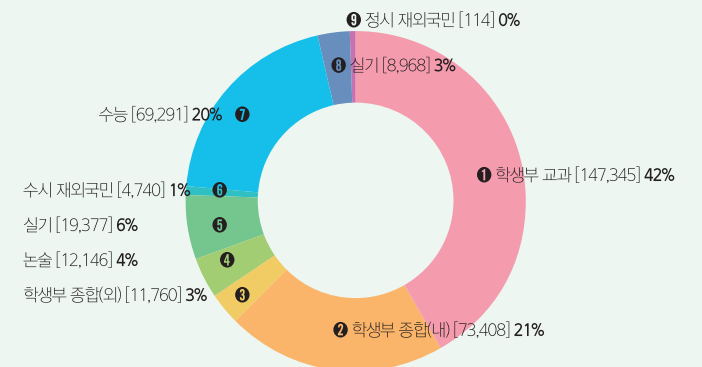


### [과제 1]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 확대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위해 대학의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권고하되,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이 30% 이상인 대학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서 재정 지원과 연계하여 기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30% 이상인 대학이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부여하여 수능 위주 전형 비율 확대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 대입전형 간소화(4+2 정책)

모집시기	전형유형	
수시(6회)	학생부 위주	교과
		종합
	논술위주	논술
	실기위주	실기
정시(3회)	수능위주	수능
	실기위주	실기



대교협 시행계획 보도자료 2018. 5. 1.

### [과제 2]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로 하되 선발 방법의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모집 단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도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정 지원과 연계, 부정적 평가를 하여 적정 수준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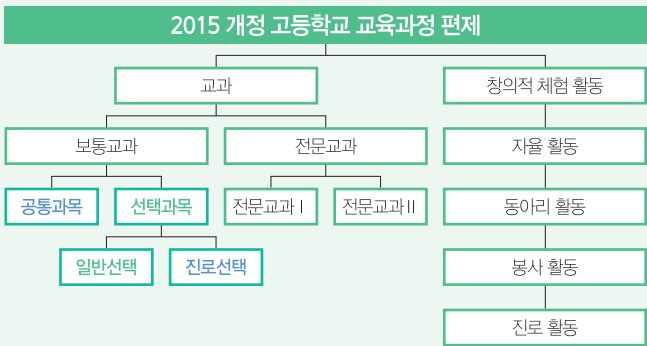
### 수능 체제 개편

#### [과제 3] 수능 과목 구조 및 출제 범위

학생의 선택권 강화 및 부담을 완화하고 2015 교육과정의 문·이과 구분 폐지 및 융합 취지를 반영하며,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 운영이 가능하도록 국어·수학·직업탐구를 공통+선택형 구조로 개편한다. 즉 국어는 독서, 문학을 공통으로 하며,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는 택1, 수학은 수학 I, 수학II는 공통으로 하고,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는 택1 하도록 한다. 이 경우, 국어·수학의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선택과목의 배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 예를 들면 공통과목은 75점으로, 선택과목 25점으로 배점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 2021학년도	→	2022학년도 ~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언어	국 어	공통 : 독서, 문학 선택 :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 1
가형(이과) 수학 I, 확률과 통계, 미적분 나형(문과) 수학 I, 수학II, 확률과 통계	수 학	공통 : 수학 I, 수학II 선택 :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 1
사회, 과학계열 구분, 계열내 택 2 사회 : 9과목 중 택 2, 과학 : 8과목 중 택 2, 직업 : 10과목 중 택 2	탐 구	사회, 과학계열 구분 없이 자유롭게 택 2 일반계 : 17과목(사회 9, 과학 8) 과목 중 택2 직업계 : 공통 1, 선택 1(5과목) 과목 중 택1
상대평가 : 국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 영어, 한국사	수능 평가방법	상대평가 : 국어, 수학, 탐구 절대평가 :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70%	EBS 연계율	50%

사회/과학탐구의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고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2과목까지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며 학생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진로과목에서 기하, 과학II 과목을 출제한다.



보 통 교 과			
교과	공통 과목	선택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국어	국어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읽기
수학	수학	수학 I, 수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과제탐구
영어	영어	영어 I, 영어II, 영어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실용영어, 영어권문화, 진로영어, 영미문학 읽기
사회	한 국 사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탐구, 고전과 윤리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물리학II, 화학II, 생명과학II, 과학사, 지구과학II,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제2외/한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베트남어 I, 한문 I	독일어II, 프랑스어II, 스페인어II, 중국어II, 일본어II, 러시아어II, 아랍어II, 베트남어II, 한문II

전 문 교 과	
교과(군)	과목
과학 계열	심화수학 I, 심화수학II, 고급수학 I, 고급수학II, 고급물리학, 고급화학, 고급생명과학, 고급지구과학, 물리학실험, 화학실험, 생명과학실험, 지구과학실험, 정보과학, 융합과학탐구, 과학과제연구, 생태와 환경
국제 계열	국제정치, 국제경제, 국제법, 지역이해, 한국사회의 이해, 비교문화, 세계문명과 미래사회,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현대세계의 변화, 사회탐구방법, 사회과제연구
외국어 계열	심화영어회화 I, 심화영어회화II, 심화영어 I, 심화영어II, 심화영어독해 I, 심화영어작문 I 등 전공기초일본어, 일본어회화 I, 일본어회화II, 일본어독해와 작문 I, 일본문화 등 전공기초중국어, 중국어회화 I, 중국어회화II, 중국어독해와 작문 I, 중국문화 등
체육계열	스포츠개론, 체육과 진로탐구, 체육지도법, 육상운동, 체육전공실기 심화 등
예술계열	음악이론, 음악사, 미술이론, 미술사, 무용의 이해, 문예창작입문, 극창작, 연극감상과 비평, 연극의 이해, 영화의 이해, 사진의 이해, 기초촬영, 영상제작의 이해, 시나리오 등

#### [과제 4] 수능 평가 방법

현행과 동일하게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을 상대평가로 하고, 영어, 한국사는 절대평가를 유지하며 과목 풀림 문제가 있는 ‘제2외국어/한문은 새로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 [과제 5] 수능 EBS 연계율

수능 출제 시 EBS 연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하고 과목 특성에 맞춰 간접 연계로 전환한다. 간접 연계란 EBS 교재의 지문과 주제·요지가 유사한 지문을 다른 책에서 발췌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영어 지문 단순 암기 등 직접 연계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학생부종합 공정성 제고

#### [과제 6]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 항목 정비			
학생부 미기재		학생부 기재(일부 제한)	
소논문(R&E)		수상경력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 제한(6개)
학교밖 청소년 단체 활동		자율동아리	학년당 1개로 기재 개수 제한(3개) (동아리명과 간단한 동아리 설명만)
방과후 활동			
봉사활동 특기사항		봉사활동	실적만입력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기록 간소화
		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	단체명만 기록

#### 생활기록부 글자수 축소

항목	현행	개선안
창제 특기사항	자율	1,000
	동아리	500
	봉사	500
	진로	1,000
행동특성 종합의견		1,000
계		4,000
		2,200

#### ※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요소, 항목 등 정비

- 수상 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안)를 학기당 1개 이내(총 6개까지 제공 가능)로 제한한다.
- 자율동아리는 기재 동아리 개수를 학년당 1개로 제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한다. 즉 동아리명 및 간단한 동아리 설명만 한글 30자 이내(공백 포함)로 기재하도록 한다.
- 소논문 활동(R&E)은 학생부 모든 항목에 미기재하도록 한다.
-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 활용 자료로 제공하지 않는다.

#### ※ 학교 내 정규교육 과정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기록

- 학교 밖 청소년 단체 활동은 미기재하고, 학교 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 단체 활동은 ‘청소년 단체명’만 기재한다.
- 봉사활동 실적은 현행대로 입력하되, 교사의 관찰이 어려운 봉사활동의 성격을 고려하여 특기 사항을 삭제한다.
- 방과후학교 활동은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기재하던 것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 ※ 기재 격차 완화 및 기재·관리 책무성 제고

교사의 기재 부담 완화 및 교사 간 기재 격차 완화를 위해 각 항목별 특기 사항의 입력 글자 수를 축소한다.

#### [과제 7]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 전형서류 개선

대필, 허위작성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유사도 검증 등으로

자기소개서 대필, 허위작성 확인 시 의무적 탈락 혹은 입학 취소	자기소개서 작성 공동매뉴얼 제작, 배포
학생부를 통해 확인 가능한 <b>교사추천서 폐지</b>	

#### ※ 자기소개서(전형 서류) 개선

- 기재 방법: 사실 중심의 개조식보다는 학생의 경험과 생각을 표현 가능하게 서술형으로 기술한다.

- 문항 통합: 재학 기간 중 ‘학업 경험’과 ‘교내 활동’을 각각 쓰도록 한 1번, 2번 문항은 통합한다.
- 문항 개선: ‘배려, 나눔 등에 관한 실천사례’를 쓰도록 한 3번 문항은 학생의 개별 특성이 보다 잘 드러나는 방향으로 질문 방식을 개선한다.
- 글자 수 제한: 1, 2번 통합 문항은 1,500자 이내로, 3번 및 4번 자율 문항은 각각 800자 이내로 글자 수를 제한한다.
- 면접, 유사도 검증 등을 통해 대필·허위 작성 확인 시 0점 처리(정원 미달 시에는 합격 가능)하던 것을 의무적 탈락·입학 취소 조치한다.
- 학생이 스스로 또는 교사의 도움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가칭’ 자기소개서 작성 공동 매뉴얼’을 제작·배포 추진한다.
- 교사추천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폐지한다.

#### ※ 대입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div>대학별 평가 기준 공개</div> <div>대입전형별 고교 유형 및 지역정보 공시 추진</div>	<div>평가제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div> <div>여러 명의 입학사정관 평가 및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의무화</div>
---	---

- 대입 투명성 및 공정성 차원에서 재정 지원과 연계하여 대학 입학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대학별 여건 및 특성에 따라 부정적 사례도 공개하도록 유도한다.
- 대입 전형별 신입생의 고교 유형 정보 및 지역 정보 공시를 추진한다.
- 공정한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을 위해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와 입학사정관 회피·제척을 의무화한다.
- 대학별로 설치된 ‘대학입학전형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변호사, 교사 등 외부위원을 참여시킨다.
- 입시 부정·비리 시 학생 입학 취소, 대학 행·재정 제재 등과 관련한 명시적 근거법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 [과제 8] 대입 정보 격차 해소 지원

	복잡하고 많은 대입전형 명칭 <b>알기 쉽게 표준화</b> ※ 예시 : ○○○전형 → 학생부교과(○○○)전형
	<b>대입정보포털(www.adiga.kr) 기능강화</b> 대입 상담교사단 구성 및 운영 대입정보박람회, 대입포럼을 수시 개최 <b>학생 맞춤형 대입 정보 제공</b>

- 대입 전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형 명칭을 표준화한다.  
[예시: 000전형 → 학생부교과(000전형)]
- 대학별 평가 기준 등에 대해 학생 입장에서 일목요연하게 맞춤형 대입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대입정보포털(www.adiga.kr) 기능을 강화한다.
- 대입 정보 제공 및 안내 강화
  - 진학부장,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으로 대입상담교사단을 구성·운영한다.
  - 정보 소외 지역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대입설명회를 개최하며 대입 자료집을 제작, 배포한다.
  - 대입정보박람회 및 시도교육청과 연계한 대입 포럼을 수시로 개최한다.

#### 🎓 대학별 고사 개선

##### [과제 9] 면접 구술고사 개선

- 학생부 기반의 확인 면접을 원칙으로 하며, 전형 특성상 제시문 기반 구술고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재정 지원과 연계, 최소화를 유도한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학의 면접 문항을 점검하고,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모집 정지 등 엄중 제재한다.

면접·구술고사	지필고사
학생부 기반의 맞춤형 면접 원칙, <b>구술고사 최소화</b>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른 대학면접문항점검 위반시 엄중 제재 대입 출신 고교 <b>블라인드 면접 도입</b>	수능과 문항 유형이 동일하게 출제되는 <b>수시 적성고사 폐지</b> 사교육 유발이 우려되는 <b>논술전형</b> 단계적 폐지 유도

- 대입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여 면접 평가 시 성명, 수험번호, 출신 고교 등의 미제공 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 지원과 연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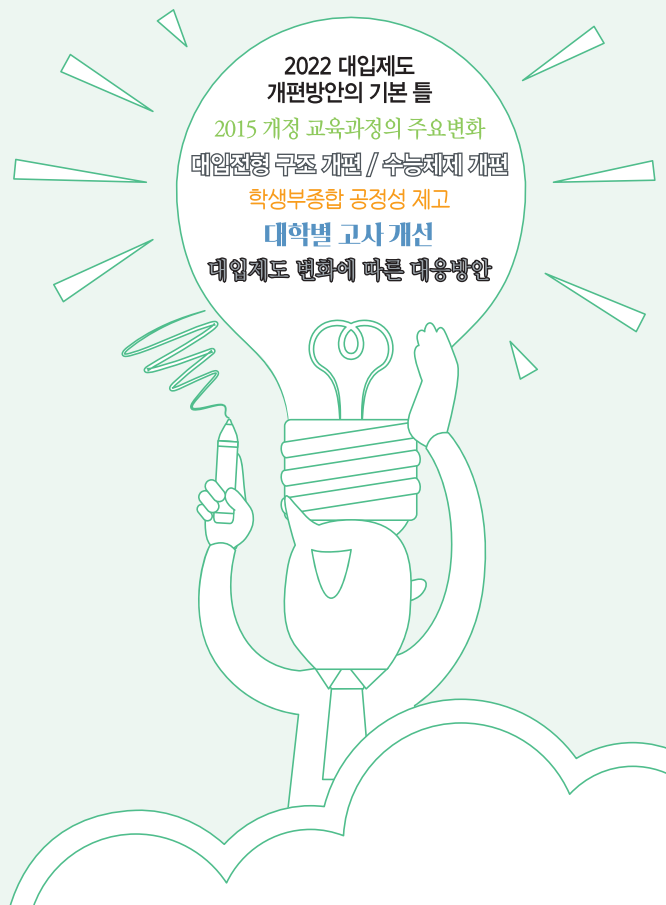
##### [과제 10] 지필고사 개선

- 수능과 문항 유형이 동일하고,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분류됨에도 실제로는 적성고사 성적으로 선발하는 등 수시모집의 취지와 위배되는 수시 적성고사는 폐지를 추진한다.
- 사교육 유발이 우려되는 논술 전형은 단계적으로 폐지를 유도한다.

#### 🎓 대입 제도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2022 대입 전형 개편 방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 확대라 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위해 정시를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인데, 첫째, 교과 전형을 30% 이상 이미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자율로 한다는 것과 둘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교과 전형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의 대부분의 대학과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은 관계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교육부가 예상한 정시모집 증가 인원인 5,354명보다도 적은 3천 명대의 인원이 늘어날 뿐이다. 이는 N수생의 숫자가 13만 명을 웃도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도전의 기회를 크게 늘려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번 수능 위주 전형의 확대가 현재의 대입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수험생 입장에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내신과 수능을 두 축으로, 비교과와 논술 등 자신에게 특화된 전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맞춤형 대입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대입의 핵심은 학교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을 선호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교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발표나 질문 등은 말할 것도 없고 교과 시간 중 가진 의문이나 호기심을 독서나 심화탐구를 통해서 해결하고 동아리나 각종 대회 등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부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 2020

## All About Admissions

---

충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가이드북

### 대입준비

- 036 입학사정관이 이야기하는 학생부종합전형
- 042 심층 면접의 핵심, 면접관의 마음을 읽어라!
- 048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알려 주는 고교생활 3-step
- 054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선택과목 탐구생활
- 060 입시 고민 - 안녕하세요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 -  
충북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이야기하는  
학생부종합전형

##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업 역량과 잠재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상대학교 입학사정관 김정현



## Study & Potential

### 최근 대입 제도 개편, 무엇이 달라졌나?

1년이나 유예했던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이 8월로 결론이 났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입 제도 개편에서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고 새롭게 만들어졌을까, 이번 대입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대입 전형 구조 개편, 둘째는 수능 체제 개편, 셋째는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마지막으로 대학별 고사 개선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이 함께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번 대입 제도 개편에서 핵심은 수능 위주 전형 30% 이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20학년도 기준으로 전국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 선발 비율을 대략 20%에서 30%로 확대하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되면 수시 모집 규모의 축소에 따른 학생부 위주 전형의 모집 규모가 위축될 수 있다. 그러면 학생부종합전형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당장 2021학년부터 수도권과 지역대학 간 모집 규모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학생부종합전형이 학생부교과와 정시 위주 전형으로 이동될 가능성과 모집 규모도 미미하게나마 축소가 예상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과 분량 축소에 따라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의 내실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이번 대입 제도 개편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은 더욱 선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진화가 시작될 것이며 고교 체제 개편에 따른 고교학점제 도입과 고교 교육 혁신 방안에 맞춰 미래형 인재 선발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입학사정관이 말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이런 것이다.

우리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알고 있을까? 최근 “학생부종합전형마저도 학생부교과전형처럼 정형화된 계산식에 의한 내신성적 순위로 학생을 선발할 것이다.”라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과연 그렇다고 믿고 있을까?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학교에서 시험만 잘 보고 내신성적이 우수하면 탁월하고 우수한 인재라고 여겨 왔다. 하지만 이제 인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본다. 성적 중심의 늪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 구조에 접목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가 우수한 인재라고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조

심스러운 생각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인식의 변화에서 출발되었다. 교과 학업 성적의 결과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에 대한 노력 과정과 의지와 열정, 적극적인 자세와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자는 것이 학생부종합전형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 내신성적이 뛰어난 학생만을 선발하는 전형이 아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참여와 경험, 학습과 배움을 통한 역량과 성장에 초점을 두는 전형이다. 교과 학습 경험과 연계한 진로에 대한 관심과 지적 탐색 역량, 공동체 생활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해 보는 의사소통과 사회적 역량 등을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실천한 사례를 보고자 하는 전형이 입학사정관이 말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다.

###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어떤 학생을 선발하는가?

대학은 어떤 인재를 키우고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추구하는 인재상과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하는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대학마다 추구하는 인재상과 대학의 특성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어떤 학생을 선발하려고 할까? 우리는 여기서 잠재 학업 역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잠재 학업 역량은 교과 성적을 포함하는 성취 수준과 성취 추이, 다양한 교과 학습 경험과 과정에 있어 얼마나 자기주도적인 역량을 발휘했는가를 의미한다. 교과 지식과 정보 습득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발휘할 수 있는 학생, 발전 가능성과 잠재 역량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교과 학습 상황과 비교과 학습 상황 등 다양한 학습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학습 환경에서 자기주도적인 성취 경험과 역경을 극복하고 스스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다. 즉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통해 정의적인 학습 태도와 자세로 학교생활에서 더욱 성실하고 노력하는, 긍정적 변화와 모습을 보여주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 공동체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함께 실천하면서 배우고 느끼는 배려와 사회성을 경험하고 조화로운 교우 관계를 맺으며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

잠재학업역량은

교과 학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된 교과 학습 경험, 교과 영역과 연계된 동아리, 교과 학습 및 지적 탐색과 연결 될 수 있는 독서 활동, 진로적성 및 흥미,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고교 재학기간 중 배우고 느낀 학습 경험, 의미 있는 활동 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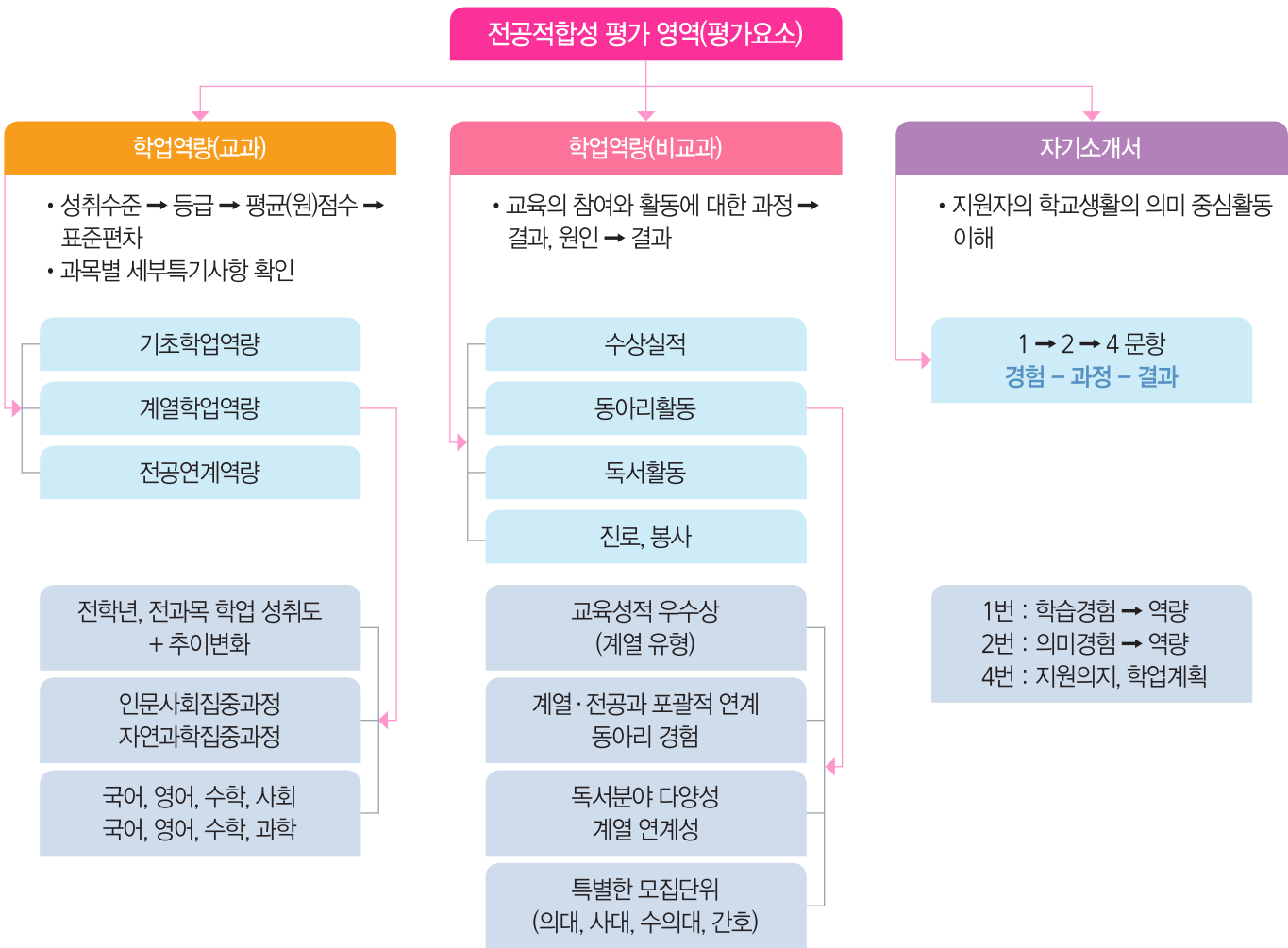
”

###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역량은 이런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역량은 대학마다 미미한 차이는 있겠지만 4가지 영역으로 제시할 수 있다. 교과 학업 역량을 포함하는 잠재 학업 역량, 전공에 대한 이해와 학문적 성격을 고려한 전공 적합성 및 전공 잠재 역량, 문제 상황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발전 가능성 및 성장 가능성, 올바른 가치관과 신념, 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성 및 사회성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평가 역량들을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는 평가의 핵심이다.

최근 대학들은 전형 자료 활용에 있어 사교육 영향 요인을 최대한 배제하고 학교교육 중심의 학습 경험과 자기 성장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대학은 잠재 학업 역량을 어떻게 평가를 할까? 잠재 학업 역량은 고교 재학 기간 동안 표면적인 학업 역량과 잠재적 학업 역량으로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항목 중 수상 경력, 교과 학습 발달 상황, 동아리 활동, 진로 탐색, 독서 활동 등은 자기소개서의 학습 경험, 의미 있는 경험 등과 연계한다.

다시 말해 잠재 학업 역량은 교과 학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된 교과 학습 경험, 교과 영역과 연계된 동아리, 교과 학습 및 지적 탐색과 연결될 수 있는 독서 활동, 진로 적성 및 흥미,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고교 재학 기간 중 배우고 느낀 학습 경험, 의미 있는 활동 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한다. 잠재 학업 역량에 있어 수상 실적은 단과 대학의 특성이나 계열 특성과 연계된 교과 영역과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으로 연결 지을 수 있으며, 교과 학업 우수상과 진로 적성 및 탐색 활동에서 연결될 수 있는 수상 경험과 내용을 말한다.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은 전공 적합성 및 전공 잠재 역량 평가 요소와 연결하면 기초 학업 역량, 계열 학업 역량, 전공 연계 역량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수상 경험과 내용, 동아리 유형 영역, 독서 활동, 자기소개서 학습 경험과 의미 경험, 그리고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과 전공 계열에서 학업 수행 계획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종합적 관점에서 평가를 한다.



전공 적합성 및 전공 잠재 역량 연계 평가표

학생부종합전형 이렇게 준비하자.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해서는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학교생활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학습 경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을 중시하므로, 학교 밖에서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학교 공동체에서 충분한 준비가 가능하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기본은 학교생활기록부다. 학생의 성장과 전인적 발달 과정을 포함하고 상급 학교 진학에 활용되는 자료인 만큼 학교생활기록부는 중요한 자료이다. 학생이 학교생활 전반에 참여하는 교과 학습 경험과 비교과적 학습 경험 등이 종합적으로 기록되는 자료가기에 기록에 대한 의미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최근 언론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관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인위적인 관리가 아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를 잘하고 못하고를 살피는 관점이 아니므로, 자기주도적인 성장과 의미 있는 학교생활과 학습 경험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 내신성적 부족과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학생부종합전형을 지원해서도 안 된다.

학생 자신의 진로에 대한 비전과 목표의식, 진로 탐색과 지적인 호기심, 교우와 함께 생각을 나누며 공감하는 배려와 공동체의식 등의 평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대학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읽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계열 기초 학업 역량과 잠재 역량, 발전 가능성과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수험생 자신이 경험한 학교생활의 객관적인 사실과 참여 과정의 결과를 대학에서 평가에 반영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수험생의 고교 재학 기간 중 경험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수험생의 과거의 모습에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예측하는 전형이므로 학교생활 과정에서 의미 있는 교과 학습 경험과 비교과 학습 경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즉, 지원 의지와 배경, 진로 목표와 학업 이수 계획 등을 위해서는 대학 특성과 모집 단위 학문적 성격, 계열 특성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수험생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



- 1. 책 제목
- 2. 출판사
- 3. 추천 이유

『시를 읽은 그대에게』 - 정재찬

휴머니스트

정재찬 교수가 말하는 시를 읽은 그대에게는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풍부한 감성과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고3 생활은 인생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경험할 수 있는 시련과 인내의 시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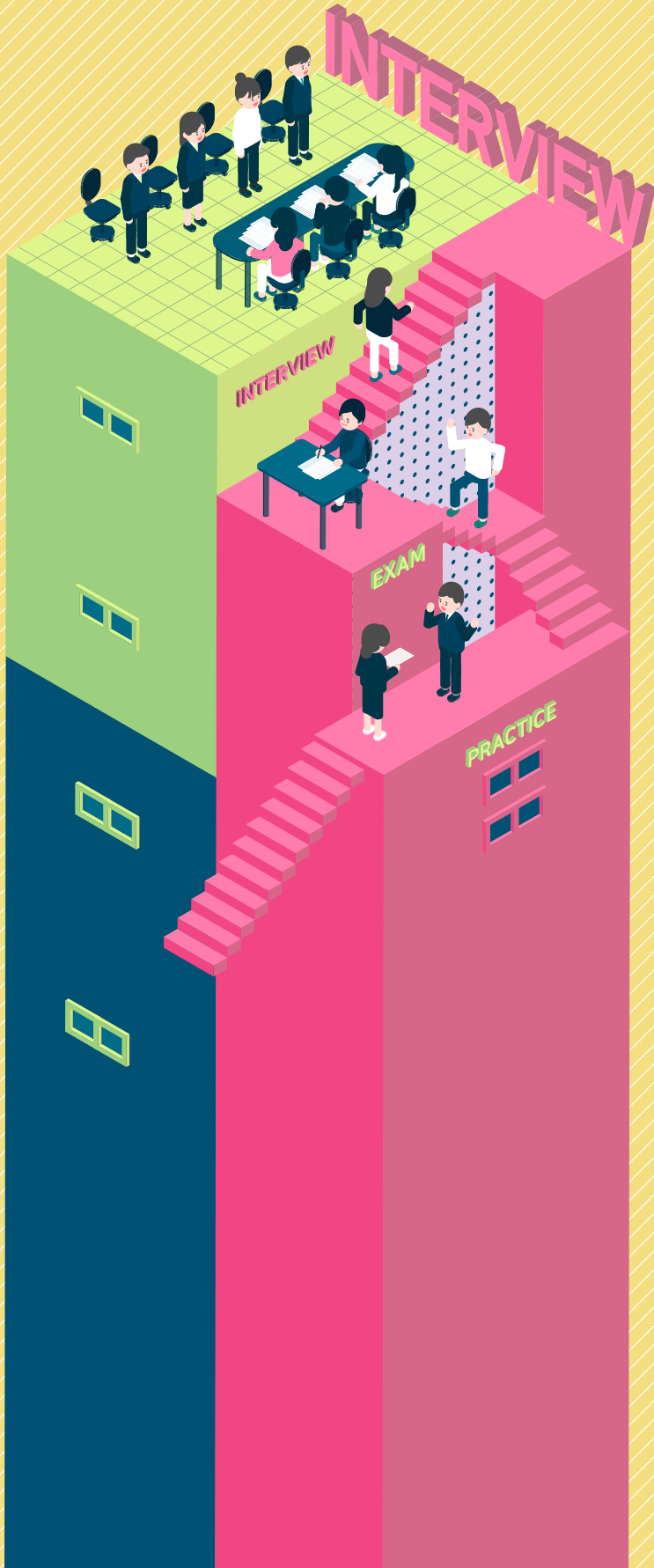
정재찬 교수의 시 읽기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집필한 시 에세이를 읽고 문학의 즐거움과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시의 힘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 심층 면접의 핵심, 면접관의 마음을 읽어라!

숭실대학교 입학사정관 **김영배**

## 면접이 정말 중요한가요?

가끔 “서류 평가와 면접 점수 반영 비율을 보면 서류 평가가 훨씬 중요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 선발 점수를 100점 만점이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대학은 면접 점수의 실질적 반영 비율을 30점 내지 50점 수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단계 관문을 통과한 합격자들의 점수 편차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30점이면 최종 당락을 좌우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대학들이 공개하는 자료를 살펴보면 면접 점수를 30% 반영하는 경우에도 1단계 서류 평가에 의한 당락 여부가 약 30~40% 변경되고 있습니다.



## 어떤 형태의 면접이 있나요?

: 서류 기반 면접, 제시문 기반  
면접, 토론식 면접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많은 대학이 서류 평가 후 2배수 내지 3배수의 학생을 면접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면접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점수를 획득한다면 최초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 지 못한다 하더라도 추가 합격의 대상자 리스트에서는 빠른 순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면접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면접은 운영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우선 지원자가 이미 대학 측에 제공한 서류를 기반으로 진위 여부 및 활동의 깊이 등을 확인하는 ‘서류 기반 면접’이 있습니다. 활동의 내용과 지원자의 학습 경험을 심층적으로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심층 면접’이라 불리기도 하고,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인성적 역량을 관찰한다는 의미에서 ‘인성 면접’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10분 내외(7~15분)로 면접을 진행하며 별도의 제시문이나 공통의 출제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주 묻는 질문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면접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대학은 서류 기반의 면접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 제시문을 제공하고 준비 시간을 거친 후 면접관 앞에서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면접 시간은 5~10분 내외로 길지 않고 서류 기반 면접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시문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등 교과 지식을 응용한 문제가 보편적입니다. 특징의 상황을 가정하여 지원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하는지를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시문에 대한 이해 수준과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지원자의 학업역량, 논리력, 표현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구술고사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정해진 정답을 요구하기보다는 다양한 인성적 면모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며, 지원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대학의 인재상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여부도 평가하게 됩니다.

**‘토론식 면접’**은 2인 이상의 지원자에게 찬반이 가능한 이슈와 자료를 제공하고 준비 시간을 거친 후 자유롭게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논리력, 의사소통 능력, 창의력, 공동체 의식,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면접입니다. 평소 관심이 있던 주제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자신의 지식을 뽐내거나 다른 이의 의견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는 좋은 평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경청의 태도를 유지하고 공감하되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이고 당당하게 내세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5~6인 이상의 다수 인원이 토론에 참가할 경우 여러 사람에게 발언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돕거나, 찬반 간의 의견을 중간중간 요약·정리하는 역할이 돌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면접의 운영이 복잡하고 지원자의 준비도 쉽지 않아 최근에는 실시 대학이 많지 않습니다.

## 서류 기반 심층 면접,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면접관의 관점 이해하기

자, 그러면 가장 일반적이며 대부분의 대학이 채택하고 있는 ‘서류 기반 심층 면접’을 중심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살펴봅시다. 우선 면접 평가 항목에 대한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중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는 43개 대학의 면접 평가 항목을 모두 살펴보면 총 231개가 됩니다. 그중 유사한 항목들을 줄이고 합친 후 많은 대학에서 평가 항목으로 제시한 핵심 역량 여덟 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	심층 면접 평가항목
1	인 성
2	전 공 적 합 성
3	발 전 가 능 성
4	의 사 소 통 능 력
5	공 동 체 의 식
6	기 초 학 업 능 력
7	도 전 정 신
8	문 제 해 결 능 력

‘인성’을 제외하면 많은 대학에서 중요하게 지목하고 있는 평가 항목은 바로 ‘전공 적합성’이었습니다. 이는 ‘전공 이해도’, ‘계열 적합성’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전공 적합성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오해는 대학이 지원자에게 지원학과와 관련한 해박한 지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교생 수준의 관심과 준비도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보다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외교학과 지원자의 경우 정치학의 세부 영역과 주요 학자들의 이론을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를 통해 정치·외교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최근 이슈가 되는 영역을 혹시 알고 있는지?”, “사회과학의 한 분야인 정치·외교학을 전공할 만한 사고력과 분석력, 관찰력을 충분히 키워왔는지?” 등을 더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기계공학과 지원자의 경우 동역학, 동력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는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면접관들은 “다양한 공학의 영역 중에서 왜 기계공학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물리, 수학 등과 같은 기초가 되는 교과과정을 어떤 식으로 학습해 왔는지?” 등을 더 궁금해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동시에 학교의 커리큘럼에 따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아리 활동이나 독서 활동처럼 학생 본인의 관심 영역에 따라 본인의 관심사가 도드라지게 기록되는 학생부의 항목도 고려해야 합니다. 면접관들은 이와 같은 항목들을 참고하게 됩니다. 정말로 지원 모집단위에 관심이 있다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지원자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활동한 경험을 확인하고 자세한 내용을 묻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우니까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OOO동아리 활동에서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 나갔나요?

OOO라는 책을 읽고 진로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 책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이해하였나요?



누군가를 좋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것입니다. 공부할 때도 그 사람 생각, 밥 먹을 때도 그 사람 생각, 꿈에서도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즘 인기 있는 인터넷 게임에 빠져본 사람도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더 생각하고 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는 법입니다. 이는 면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일반적인 주의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학생부·자기소개서  
절대 숙지, 진정성 있게,  
블라인드 면접 주의

면접관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면접관은 전임 입학사정관과 대학의 (지원 모집 단위) 교수들로 구성됩니다. 특히 교수들의 경우 특정 학문 영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오랜 기간 그 분야를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쳐 온 분들입니다. 대학은 단순히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도구, 혹은 번지르르한 이력서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대학은 다양한 전공에 따라 학과(부)로 구분되며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학문하는 사람들이 모인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는 ‘내가 지금 지원하는 대학과 전공에 대해 깊은 관심과 존중’을 표현할 수 있을 때 훌륭한 면접을 치를 수 있습니다. 면접을 준비할 때도 단순히 ‘입학 허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에 집중하기보다 ‘OO대학 OO학과를 통해 난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 집중하며 자신의 지난 활동들을 돌아볼 것을 강하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가끔 학생부에 뻔히 기록된 내용을 질문했는데 얼굴이 벌개지면서 “그런 내용이 있나요?”라고 반문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때로는 “1학년 때 했던 활동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면접관은 제출 서류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학생 입장에서 그런 상황이 되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본인이 열심히 준비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답변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의 서류, 즉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내용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때때로 대답이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는 솔직하게 “그 부분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라거나 “잠시만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양해를 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학생의 지식뿐만 아니라, 불편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드러나는 학생의 인성·발전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평가될 것입니다.

블라인드 면접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2019학년도 입시에 이르면 대부분 대학은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였습니다. 혹시 있을 부정을 막기 위해 지원자 본인의 성명, 수험번호, 부모의 직업·직종·직책 등을 면접장에서 드러낼 수 없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면접 연습 때부터 주의하지 않으면 당일에 습관처럼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복장은 블라인드 수준에 따라 교복을 입거나 단정한 복장으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 마지막 당부

: 면접 시간은 짧아요,  
장점을 말하기에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면접 시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가끔 서류에 드러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불필요하게 많은 설명(변명)을 하거나, 사건에 대한 장황한 배경 설명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지원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면접 시간은 지원자의 장점을 찾고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가급적이면 두괄식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말하고, 필요하다면 설명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대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면접관의 질문을 잘 듣고 적절한 제스처와 함께 자신 있게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 또 하나의 중요한 역량인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수험생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

1. 책 제목

2. 출판사

3. 추천 이유

도시의  
쓰레기  
탐색자

「도시의 쓰레기 탐색자」 - 제프 페럴 저 / 김영배 역 2013

시대의 창

종신교수라는 직책을 버리고 길거리의 버려진 물건을 재활용하는 삶을 선택한 사회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으로 시작한 이 책은 풍요로운 소비문화가 뒷골목에서 빚어내는 새로운 문화적 풍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회학자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도시의 소비문화를 지적하는 한편 탄탄하고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됩니다. 더불어 책의 여기저기서 소개되는 사진과 예술작품들을 통해 재미와 통찰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알려 주는 고교생활

충북고등학교 교사 **김창연**

치열한 경쟁관계가 펼쳐지는 생존의 장에서 ‘나(己)’와 ‘상대(彼, 대학)’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은 대학 입시의 장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생존의 장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학년별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 같이 깊이 고민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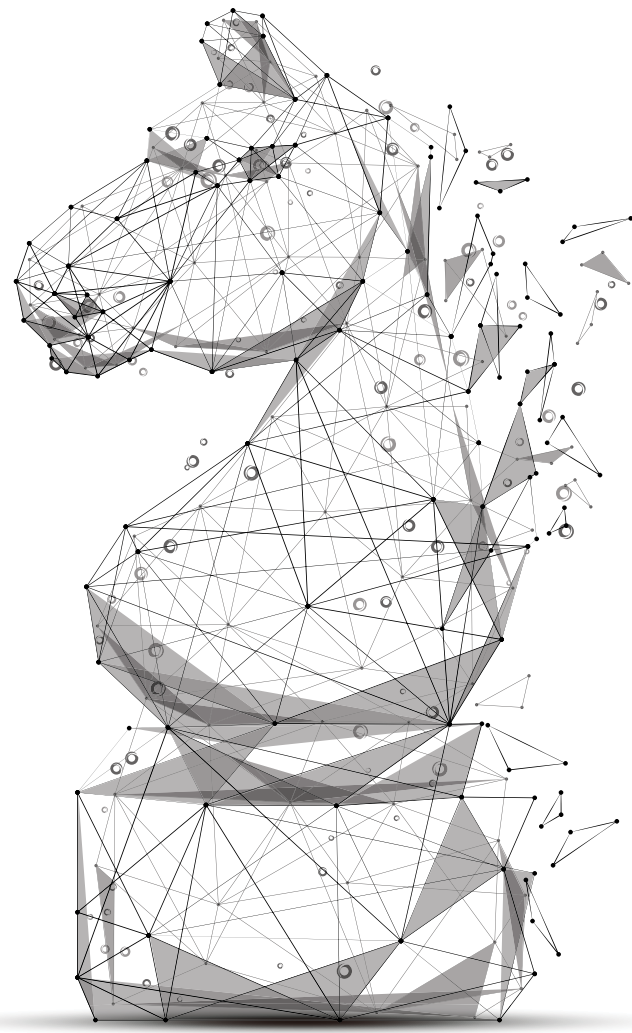
##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손자(孫子), 모공편(謀攻篇)」

손자병법(孫子兵法)은 고대 중국의 병법서(兵法書)이다. 원본은 춘추 시대 오나라왕 합려를 섬기던 손무(孫武)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손자병법은 조조가 원본을 요약하고 해석을 붙인 위무주손자(魏武註孫子) 13편이다.

모공편(謀攻篇) Planning the attack : 손실이 없는 승리를 쟁취하는 방법에 대해 논한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리고 지피지기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 01 STEP

#### 고 1: 자기 이해(知己)

자기 이해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진로 결정 시 가장 밑거름이 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올바른 자기 이해 없이는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기 이해에 초점을 맞춘 진로 선택을 하여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 등을 파악하여 진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야 한다. 또 어떤 학교와 학과를 선택하느냐는 향후 진로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의사 결정이다. 그러나 현 입시제도에서는 체계적인 진로 교육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고학력화 추세와 더불어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적성이나 흥미,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무조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성적과 주위의 기대에 맞추어 대학과 전공 학과를 선택하기 때문에 자기 이해를 통한 자신의 미래 목표를 고려한 학과 탐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 미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앞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과 자기 이해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스스로 진로의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 자신에 대한 철저한 탐색이 필요하다. 이에는 자기 관찰법(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의 개념 및 특성 파악 등)과 심리검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단계로 커리어넷(<http://>

## 02 STEP

66

학교 생활에서  
충실히 학습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부탁합니다

99

careernet.re.kr), 워크넷(http://work.go.kr), 한국가이던스(www.guidance.co.kr), 와이즈멘토(www.wisementor.net), 한국온라인심리검사센터(www.career4u.net), 대한진학정보센터(http://univ.kcue.or.kr), 한국직업정보시스템(http://know.work.go.kr) 등의 다각적인 자료를 근거로 부모님과 담임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의 전문가와 자기 이해를 위한 상담을 통해 자기에 맞는 적성과 능력을 키워줄 적성과 흥미를 찾고 학과를 탐색하여 미래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고 2: 대학에서 필요한 것을 알아가기(知彼)

step1(고1)이 자기 이해(知己)라면, step2(고2)는 step1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학입시에서 필요한 것(知彼)을 깊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첫째, 자신의 1학년을 돌아보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선택한 학과와 목표한 대학 입시에 필요한 ‘부족한 부분’과 ‘보완할 부분’을 찾아보자.

둘째, 자신을 심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자신의 강점을 만들 학교 프로그램과 학교 활동에 최대한 참여하자.



## 03 STEP

### 01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학교 활동 적극 참여

❶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내신 관리, 독서 활동(토론), 각종 경시대회 참여, 주제 탐구 대회, 소논문쓰기 등

❷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1,500자 이내).

각종 동아리 활동, 학교 자율 활동 및 학생회 활동, 학급 활동, 교내외 봉사활동, 각종 캠프 활동 등

❸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자율활동, 학급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에서의 인간관계를 배우고 넓혀가기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생들이 쓰는 흔한 패턴은 자기의 활동을 나열하는 방식이다. 자신의 화려한 활동 내용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놓는 것으로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장식하는데, 이보다는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 중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를 확실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런 활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공격적으로 쓰는 게 좋다. 따라서 step2,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충실히 학습하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부탁한다.

### 고 3: 선택과 집중

고 1(step1)에서 “자기 이해(知己)”, 고 2(step2)가 되어서는 “대학에서 필요한 것 알아가기(知彼)”로 다양한 활동을 했다면, 고 3(step3)은 그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것에 “선택하고 집중”하여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도록 노력해야 할 때이다. 지난 3년간 해 왔던 수많은 활동 중 자신이 관리하고 준비해 왔던 모든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활동을 찾아 그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자신의 우수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어떤 전형이든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말이다.

## 01 학생부교과전형 준비 철저

- 학생부교과전형인 경우에 무엇보다 내신 관리가 중요하다. 3학년 내신이 수시 합격을 판가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고3 1학기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다. 따라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모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내신과 수능은 별개의 영역이 아니다. 내신과 수능 모두 교과서의 핵심 개념에 바탕을 둔 시험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은 수능 성적도 당연히 우수하다는 것을 명심하자.
-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학생부의 내신성적을 보고 고교 생활의 충실도나 학업 역량을 평가하기도 하기 때문에 꼭 점수가 아닌 성적이 꾸준히 상승하는 정도, 즉 '상승곡선의 학생부'를 만든다면 입학 관계자들에게 학업성취도, 자기주도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 내신 준비를 할 때 모든 과목에 힘을 쏟아야 할지 아니면 주요 교과 위주로 준비를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 일부 교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계열별로 주요 과목이 조금씩 다르다. 따라서 3학년 때에는 자신이 선택한 계열에 맞는 교과 위주로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 학생부에 기록된 많은 내용 중 내가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기 위해 관리하고 준비해 왔던 활동을 찾아 집요하게 파고들어 자신의 우수함을 증명해 보이자.
- 학생부종합전형은 그 어느 누구도 대신 해 줄 수 없는 “나만의 이야기”이다.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수시 전형이든 정시 전형이든 모두를 위해서는 내신과 수능 그리고 고교 활동내용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지피지기(知彼知己)”하여 “백전불태(百戰不殆)”하자.

## 02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철저

-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학년이다. 1학년, 2학년 때부터 꾸준히 준비를 한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3학년이 되어 준비를 한다고 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내신성적이 안 좋아도 학생부종합전형을 쓸 수 있다. 내신성적이 안 좋아 학생부종합전형을 쓸 수 없다면 다른 전형은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3학년부터라도 조금 더 철저히 준비하여 도전하자.
- 학생부종합전형은 내신성적이나 스펙의 양 등 객관적인 우수함만을 가지고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우수성, 발전 가능성을 증명해 보인다면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에는 독서, 내신의 상승곡선, 진로활동, 전공 관련 연구보고서, 동아리활동, 자율활동, 적극적인 학습 태도를 통한 교과별 세부 특기 사항 등이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변화하는 모습과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자.

## 수험생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



1. 책 제목
2. 출판사
3. 추천 이유

진시황을 겁쟁이로 만든 단 한 사람 - 사마천 원저 / 이양호 지음

평사리

‘사기열전 단단히 읽기’라는 부제를 달고 나온 이 책은 사마천의 ‘사기열전’ 중 ‘자객열전’의 핵심 내용인 형가편의 원문을 기초로 한 책입니다.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를 건설한 진시황의 시대를 이야기 형식으로 재미있게 전개하여 읽기가 편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용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책입니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선택과목 탐구생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창의적 체험활동, 집중 이수제, 학년군, 교과군 편성은 유지하면서 자유학기제 실시와 관련한 교육과정 자율화, 진로교육 강화,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등이 새롭게 강조되거나 도입되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공통과목을 이수한 후에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목(일반, 진로 선택) 및 전문 교과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처럼 문·이과 등으로 이수 과정이 구분된 상태에서 제한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상태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인문·사회  
계열

교육부에서는 2015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학생 진로·진학과 연계한 과목 선택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으며,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려고 할 때,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과목의 내용과 성격,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과목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나?’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중분류] 상경계 ▶ [소분류] 광고, 홍보, 언론, 방송매체

광고, 홍보학은 광고활동과 광고 현상 등을 연구 대상으로 조직체가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어떤 생각이나 활동 업적 등을 알리는 학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학과는 매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외국어 실력, 사회 변화에 대한 민감성, 미적 감성이 필요합니다.

## 고등학교에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나요?

대학에 따라서는 1학년 과정에서 글쓰기와 영어 과목을 필수 기초 과목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공 관련 기초 과목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개론, 광고 개론, 커뮤니케이션 심리, 저널리즘의 이해, 디지털콘텐츠 제작 기초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과목들의 기초가 되는 고교 과목은 국어와 수학, 영어 교과의 일반선택 전제 과목입니다. 사회교과 일반선택의 경우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세계사, 세계지리가 있고, 진로선택에서는 사회문제탐구를 통해 관심 분야에 대한 깊이를 더 할 수 있습니다. 과학교과 진로선택에서는 과학사, 생활과학 등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생활·교양 과목에서는 일반선택의 논리학, 논술, 체육·예술 과목에서는 진로선택의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감상과 비평 과목이 관련성이 있습니다.

## 진로선택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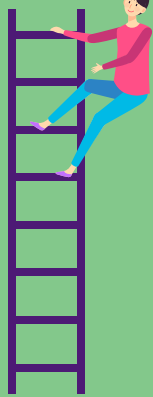
[탐구] 사회문제 탐구

[과학] 과학사, 생활과학

[체육·예술] 음악감상과 비평, 미술감상과 비평



## 자연과학 계열



[중분류] 생활과학 ▶ [소분류] 의상학

[중분류] 생활과학 ▶ [소분류] 식품영양

생활과학계는 식품영양학과와 의상학과(의류학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품영양학과  
의 교육 과정은 식품학, 영양학, 조리학과 관련된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상학과  
의 전공 및 전공 기초 과목은 복식디자인, 서양의복 구성, 한복구성, 패션 마케팅, 섬유 재료학, 의복  
위생학, 복식 사회 심리학, 지수, 니트웨어디자인, 복식사, 디자인과 색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나요?

식품영양학과는 생활·교양 영역의 기술·가정 및 가정과학 과목 등과 관련이 있으며, 의상디  
자인과 연관된 과목은 미술 교과도 있습니다. 또한, 복식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세계사 등 역  
사 과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패션 관련 비즈니스의 기초가 되는 과목은 경제 과목입니  
다. 생활과학계는 과학 과목 중에서 일반선택 과목의 화학 I, 생명과학 I 등의 과목이 관련이 있  
습니다. 식품위생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와 식품영양학 관련 통계 자료의 해석 능력도 요구되  
므로 사회과의 사회·문화, 정치와 법, 수학교과의 확률과 통계 과목도 관련이 있습니다.

### 진로선택과목

[생활·교양] 가정과학

[기초] 실용수학, 경제수학

[탐구] 사회문제 탐구, 화학II, 생명과학II, 융합과학, 생활과 과학, 과학사 등



## 의학 계열

[중분류] 의료 ▶ [소분류] 의예과, 수의예과

의예과와 수의예과의 전공 기초 과목은 생명과학과 화학 관련 강좌가 주를 이룹니다. 의예과  
는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조사하여 인체의 보건,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 및 예방에 관한 방법과  
기술을 연구하는 기초 의학, 임상 의학, 사회 의학 등이 있습니다. 수의예과는 동물의 보건과  
환경 위생 및 각종 질병 예방과 진료는 물론 공통 전염병의 예방과 진료 등과 관련된 과목을 배  
우며 나아가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의과학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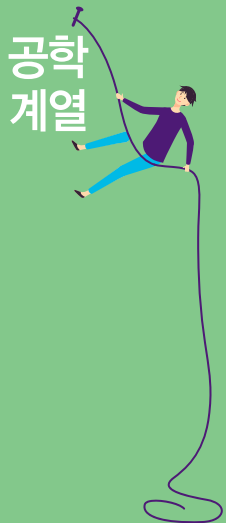
의학 계열은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입학 시 면접을 거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종합적  
인 인성을 함양하는 데도 치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어 교과와 화법과 작문, 영어 교  
과의 화법과 작문, 영어 교과와 다양한 과목, 사회 교과 중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생활·교  
양 교과와 심리학 등을 공부해 두면 유리합니다. 각 대학의 교과과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  
지만, 예과/본과 과정 중 의료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사회 교과와 정치와 법도 이수하  
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학 교과 중 일반선택 과목의 생명과학 I, 화학 I 과 진로선택 과목의  
생명과학II, 화학II도 해당되며, 생명과학과 화학뿐만 아니라 물리학과 수학에 대한 다양한  
학습도 필요합니다. 일반선택 과목과 진로선택 과목을 충실히 공부한 뒤 좀 더 심화된 내용의  
학습을 원하는 학생은 전문교과 I 의 과학 계열 내 화학실험이나 생명과학 실험 과목을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 진로선택과목

[탐구] 화학II, 생명과학II, 융합과학, 생활과 과학 등



## 공학계열



### [중분류] 기계 ▶ [소분류] 자동차 공학

자동차공학과와 전공 기초 과목은 수학, 물리학, 화학, 컴퓨터 과목이 주를 이룹니다. 최근 지능형 자동차와 환경친화형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기자동차 시장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기존의 내연기관에 대한 학습과 더불어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연료전지 및 지능형 자동차에 필요한 전자와 정보통신에 대한 공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전공에 자동차의 정교한 설계 또는 미래지향적 설계를 위해 매우 다양한 심화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고등학교에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나요?

이런 과목의 기초가 되는 고교 과목은 수학 교과 중 일반선택 과목의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진로선택 과목의 기하, 수학과제 탐구, 과학 교과 중 일반선택 과목의 물리학Ⅰ, 화학Ⅰ, 진로선택 과목의 물리학Ⅱ, 화학Ⅱ, 생활·교양 교과의 일반선택 과목 중 정보, 환경 등이 있습니다. 일반선택 과목과 진로선택 과목을 충실히 학습한 뒤, 과학 계열에서 고급수학Ⅰ, 고급수학Ⅱ, 고급물리학, 물리학 실험, 정보과학 등을 더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학 전공에서는 기술공학의 일반적인 내용이나 창업 등을 고려한 기업경영 및 지식재산권 관리를 중요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활·교양 교과 중에서 일반선택 과목의 기술·가정, 진로선택 과목의 공학 일반, 창의경영, 지식재산 일반 등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본 내용은 「학생 진로·진학과 연계한 과목 선택 가이드북」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구성하였습니다. 가이드북 전체 자료는 교육부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대학마다 전공 및 전공기초과목이 조금씩 다르므로 필요 시 지원하는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대학 교육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진로선택과목

[기초] 기차, 수학과제탐구, 진로영어, 실용영어 등  
[생활·교양] 공학일반, 창의경영, 지식재산일반 등



## 수험생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



1. 책 제목
2. 출판사
3. 추천 이유

「대담」 - 도정일, 최재천 2015

휴머니스트

한인문학과 자연과학이 만나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서로 소통하며 융합과 통섭을 이야기함.

과학의 시대를 사는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사회의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대화는 어디까지 왔는지, 새로운 세대를 위한 교육과 사회문화적 기반으로서의 융합적 실천은 어떻게 가능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입시 고민 안녕하세요

대 입 상 담 자 주 하 는 질 문

## QA



\* 본 내용은 「2018 대입정보 119」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전체 내용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www.adiga.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관련 유의사항

### 수시모집 원서 접수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수시 또는 정시 모집에서 접수된 원서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 수시 등록기간 중 충원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등록 포기 의사를 밝히면 정시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수시 최초합격자는 물론 충원합격자도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수시모집 합격 후, 예치금을 여러 군데 납부해도 되나요?

수시모집 합격자의 예치금 등록은 정식 등록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수시모집에서 여러 대학에 합격한 경우라도 하나의 대학에만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년제 대학, 전문대학을 통틀어서 하나의 대학에만 납부. 단, 예외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폴리텍대학·사이버대학·각종 학교 간은 적용하지 않음)

### 추가합격과 추가모집은 무엇이 다른가요?

흔히들 추가합격은 수시·정시 등록 마감일 이전에 등록 포기로 인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 순위를 합격시키는 충원합격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시·정시에서 예비합격자는 충원합격자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추가모집은 정시모집 전형이 종료된 이후에 결원이 발생한 대학(학과)에서 추가로 원서를 접수하여 모집인원을 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대학 입시에서 이중등록 금지란 무엇인가요?

이중등록 금지란 학생이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경우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수시모집에서 어떤 대학에 합격한 학생은 다른 대학의 수시 모집에 합격했더라도 반드시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합니다. 정시모집의 경우에도 이중등록 금지가 적용됩니다. 이중등록과 입학전형방법을 위반한 자는 추후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확인될 경우 입학이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기 바랍니다.(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 전형별 주요사항

### ☞ 수능 탐구영역에서 어떠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탐구영역은 수능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과목간의 표준점수 차이가 심합니다. 일부 대학은 탐구영역9제2외국어 및 한문 포함) 반영 시 표준점수를 활용하지 않고 백분위 점수에 기준을 둔 변환점수(혹은 보정점수라고도 함)를 산출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탐구 과목의 선택 기준은 표준점수의 유·불리가 아니라, 백분위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최우선 선택 기준은 자신이 지원해야 할 학과와 관련 있는 과목입니다. 또한 뚜렷한 진로 목표가 없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고교에서 개설된 과목, 특히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를 일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학년 탐구 과목을 완벽하게 공부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3학년 때 배우는 탐구 과목이 자신이 택한 수능 과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내신 공부 따로 수능 공부 따로가 되어 학습 부담이 생기고, 3학년 탐구 과목 수업 시간이 부담스러워집니다. 내신공부와 수능 공부를 일치시켜 부담 없는 공부를 하고 싶다면 3학년에 개설된 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 서류(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면접 등의 전형요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하여, 대학인재상에 부합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일반적으로 교과영역에서는 전공적합성 및 기초학업능력 등을 평가하고, 비교과영역에서는 교과 이외의 잠재능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은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 특성에 맞추어 다수·다단계 평가를 실시합니다.

서류평가는 최소 2인 이상의 평가자가 평가하며, 평가점수가 일정한 점수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제3자의 평가자를 통하여 재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면접평가는 제출 서류의 시늉도 검증은 원칙으로 하며, 대학 홈페이지 등에서 대학의 건학이념, 모집단위의 특성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선발된 합격대상자들은 입학사정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입학사정관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치게 되며, 이를 통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과정은 대학별 입학공정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학생부종합전형



### ☞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 성적이 매우 부족해도 합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대학은 어떤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더라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학업수학능력'입니다. 한 분야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 학업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선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가 비롯된 원인은 '학생의 성적보다는 지원한 모집단위와 관련된 소질과 적성, 잠재력을 보고 선발한다.'라는 문구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학생부종합전형은 기본적인 학업수학능력을 갖춘 학생 중에서 지원한 모집단위와 관련된 소질과 적성,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교과 성적이 매우 부족해도 합격할 수 있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 ☞ 학생부종합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여야 합격할 수 있나요?

비교과 활동은 학생부에서 교과 이외의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비교과 활동도 봉사활동처럼 정해진 양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얼마나 자기주도적인 생활을 하였는가를 평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역경을 극복하여 잠재능력과 발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학생부종합전형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우선 자신이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선생님과 부모님 등의 주위 사람들과 얘기하고 고민하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둘째로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벼락치기가 아닌 꾸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결과보다도 과정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큰 그림의 계획을 세워서 이를 열심히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 주십시오. 이와 같은 자기주도적인 생활습관은 미사여구의 추상적인 문장이 아닌 내용이 있는 진솔한 문장으로 자기소개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설득력과 자신감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한 학교생활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특별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사교육 기관을 통하여 만들어진 체험활동 등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충실한 학교생활이나 학교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여건상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라도 스터디그룹 활동 등과 같은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사도(표점)검색시스템 강화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에 기재할 수 없는 제한 항목이 제시되었으며, 고등학교 생활 속의 활동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 추천서 '0점' 처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학생부전형에서는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 각각에 배점을 부여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서류평가에서 '0점' 처리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합격 처리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공통양식에 제시된 작성 금지 항목을 자기소개서에 작성했을 경우 해당 학생은 실질적으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동일한 내용이 교사 추천서에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학생이 실질적으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자기소개서, 추천서 작성 시 어떤 경우에 '0점' 처리 되나요?

학생부위주(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전형 자기소개서, 추천서에 공인어학성적 도는 수학 · 과학 · 외국어 교과가 명시된 외부 수상실적을 기재하는 경우 '0점' 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학생부위주 전형 자기소개서, 추천서에 작성이 제한되는 공인어학성적은 무엇인가요?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 자기소개서, 추천서에 작성이 제한되는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수학 · 과학 · 외국어 교과명이 명시된 수상 실적에는 어떠한 것이 해당되나요?

아래에서 예시된 대회는 작성이 제한되며, 예시된 대회가 아니어도 대회 명칭에 '수학 · 과학 · 외국어' 교과가 명시되면 작성이 금지됩니다.

수학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한국수학인증시험(KMC), 온라인 창의수학 경시대회, 도시대항 국제 수학토너먼트,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
과학	한국물리올림피아드(KPHO), 한국화학올림피아드(KCHO), 한국생물올림피아드(KBO), 한국천문올림피아드(KAO),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KESO),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 전국정보과학올림피아드,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국제천문올림피아드, 한국중등과학올림피아드
외국어	전국 초중고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경시대회, IET 국제영어대회, IEWC 국제영어글쓰기대회, 글로벌 리더십 영어 경연대회, SIFEC 전국영어말하기대회, 국제영어논술대회

※ 이외에도 대회 명칭에 외국어 · 수학 · 과학 교과명이 명시되었으면 '0점' 처리

### 공인어학성적 이외에 학생부위주전형 자기소개서, 추천서에 작성이 제한되는 실적은 무엇인가요?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수학 ·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 · 외국어(영어 등) 교과명이 명시된 대회'의 '수상실적'을 작성한 경우 '0'점 처리됩니다.

### 학교장 허락을 받고 참여한 공인어학성적 및 수학 · 과학 · 외국어 교과 관련 외부 수상실적을 자기소개서, 추천서에 작성해도 '0점' 처리되나요?

공인어학성적 및 수학 · 과학 · 외국어 교과명이 명시된 외부 수상실적은 학교장 허락 여부에 관계없이 '0점' 처리 됩니다.

### '외국어 · 수학 · 과학' 관련 교육청,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주최한 대회 수상실적도 학생부전형 자기소개서, 추천서에 작성하면 '0점' 처리되나요?

주관 · 주최 기관 관계없이 '외국어 · 수학 · 과학' 교외 수상실적이므로 '0점' 처리됩니다.

### 자기소개서, 추천서의 유사도 검색은 무엇인가요?

학생부전형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의 표절 방지를 위한 시스템으로 대학 내 검색 뿐만 아니라 대학 간 검색을 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 지원자간의 검색 뿐 아니라 과년도 자료를 포함한 누적 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학에서 학생부 전형에 제출한 자기소개서, 추천서에 대해 유사도검색을 한다고 하는데 학생이 대학별로 제출한 자소서도 검색 대상이 되나요?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서류는 검색 대상이 아닙니다. 졸업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사용한 자기소개서는 검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생부전형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의 표절 방지를 위해 대학 내 검색 뿐만 아니라 대학 간 검색을 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 지원자간의 검색 뿐 아니라 과년도 자료를 포함한 누적 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충북대학교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증절차



2020

## All About Admissions

---

충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가이드북

### 진로탐색

- 068 나의 인생 그래프, 나의 학습 그래프
- 072 내가 선택한 진로(進路)와 직업 미리 보기  
그것이 진로 독서 !!
- 076 세상을 바꿀 신기술,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 082 동아리로 알아보는 직업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 -  
충북대학교



# 나의 인생 그래프, 나의 학습 그래프

국가별 행복지수 최상위 국가인 덴마크 학생이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에 가기 전에 자신의 선택에 따라  
『에프터 스콜레』 과정을 통해 인생 설계에 대한 과업을 받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이 인생과 진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자신의 존재 의미와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 인생을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

인생 그래프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의 모습을 한 페이지로 정리해서 그려 보는 방법입니다. 인생 그래프를 그려 보면서 자신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그래프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동시에 미래를 그려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 자신의 심리상태와 일상의 패턴을 자연스럽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 인생 그래프를 작성하는 3단계

### 1단계 — 기간 설정하기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시간을 정리해 볼 것인지, 초등학교 때부터 정리할 것인지, 월별로 정리할 것인지, 하루의 그래프를 그릴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 x축에 자유롭게 기간을 구분해 보는데, 1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1월, 2월, 3월과 같은 방식으로, 1개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1주, 2주, 3주와 같은 방식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 2단계 — 핵심 키워드 기입하고 점 찍기

x축은 기간, y축은 감성지수입니다. 기간을 설정한 후 핵심 키워드를 기입하여 점을 찍습니다. 이때 y축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0에서 위로 올라가면 행복했던 지수, 아래로 내려가면 불행했던 지수를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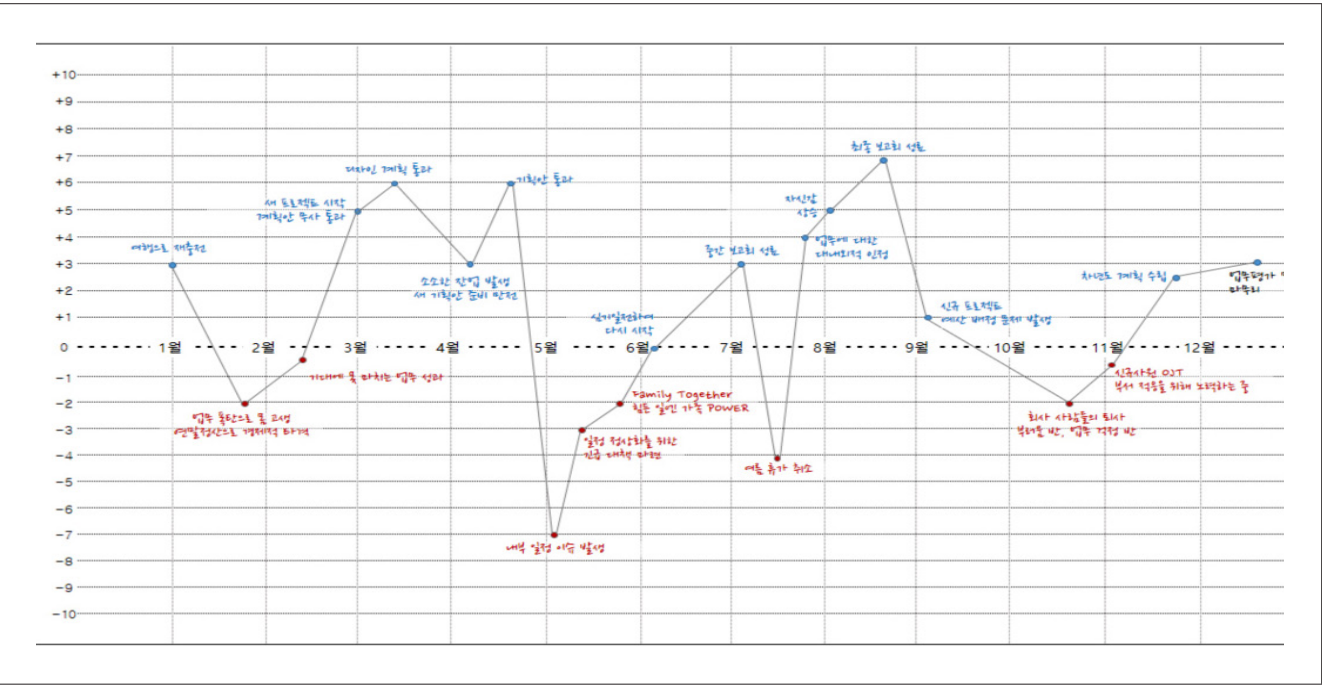
### 3단계 — 점과 점 사이를 선으로 연결하기

〈아침편지〉의 저자 고도원은 '작은 점 하나가 위대한 시작'이라며 작은 점과 점이 모여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우리 인생의 그림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하여 인생의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봅시다.

## 인생 그래프의 행복지수를 분석해 보자

인생 그래프를 완성했다면 행복지수와 불행지수를 분석해 봅시다. 관련된 키워드가 인간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일이라면 나의 행복은 관계에서 주로 얻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키워드가 '성과' 위주로 나타났다면 '성과'가 있을 때 행복과 기쁨을 얻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y축의 행복지수에 가장 높은 점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지' 또 '무엇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으며, y축의 불행지수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점을 통해 '나를 힘들게 하는 요인'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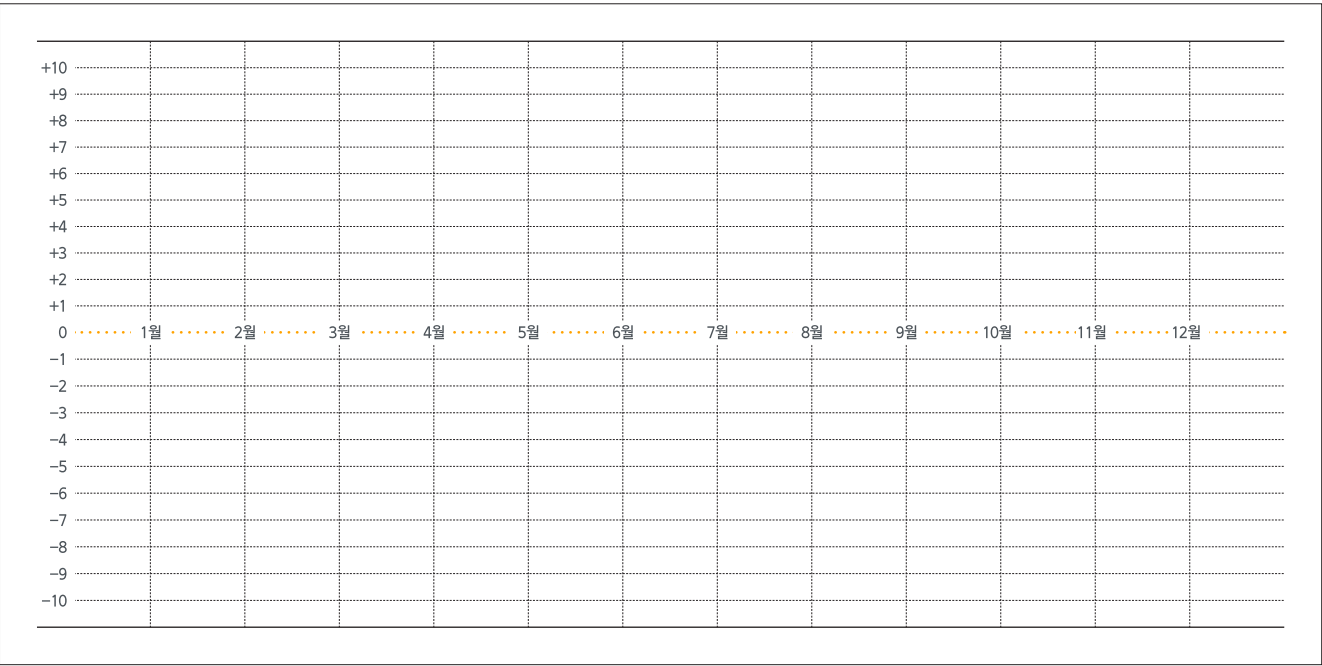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나만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고, 행복지수를 분석해 봅시다.



〈인생 그래프를 작성하는 3단계〉를 기준으로 인생 그래프의 내용을 직접 기록해 보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분석해 봅시다.

[인생 그래프]

x축은 기간을, y축은 감성지수입니다. 기간에 맞게 핵심 키워드를 기입한 뒤 점을 찍습니다.



학습그래프를 통해 나의 학습패턴과 성과를 분석해 보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나의 학습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x축은 기간, y축은 성과지수입니다. 먼저 기간을 설정한 뒤 학습과 관련된 키워드를 기입하고 점을 찍습니다. y축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0에서 위로 올라가면 학습 만족도가 높은 것이고, 아래로 내려가면 학습 만족도가 낮은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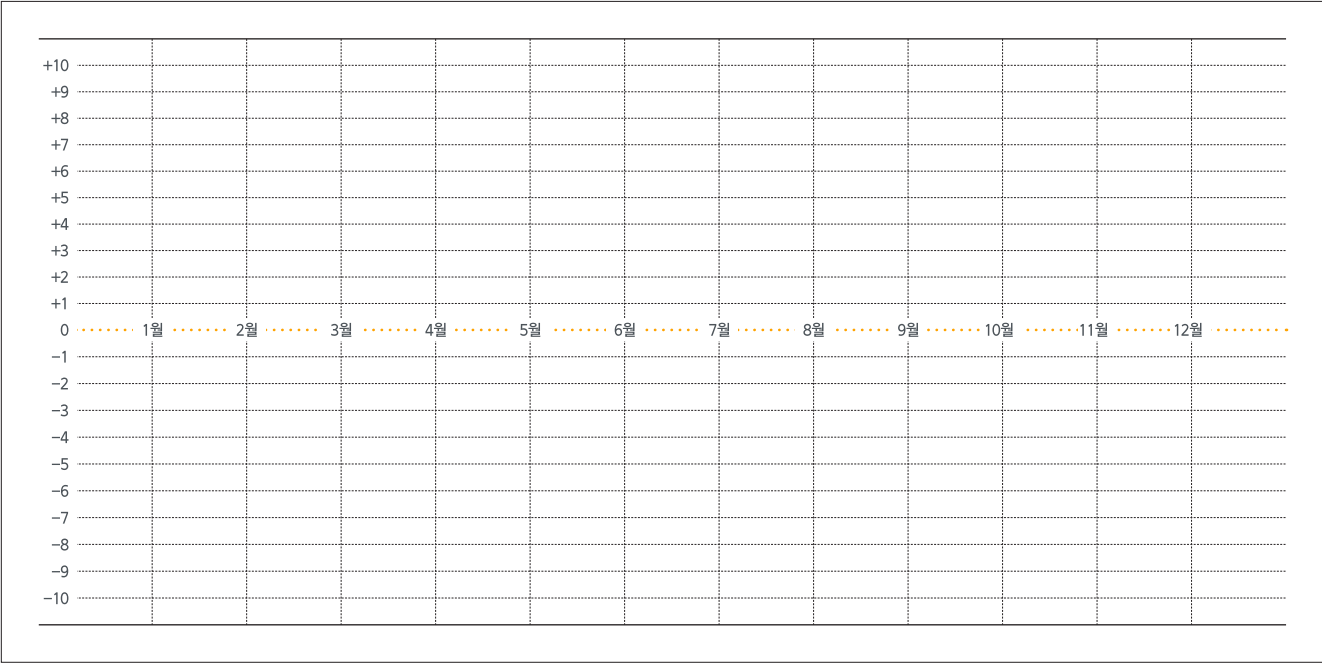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점과 점 사이를 선으로 연결하면 나의 학습 그래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간, 월간, 연간 학습 그래프를 그려 보고 나의 학습 패턴과 만족도를 확인해 보세요.

동일 기간 동안의 인생 그래프와 학습 그래프를 함께 놓고 비교해 보면 나의 행복과 학습 성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학습 그래프]

x축은 기간을, y축은 학습 성과지수입니다. 기간에 맞게 핵심 키워드를 기입한 뒤 점을 찍습니다.



# 내가 선택한 진로(進路)와 직업 미리 보기

## 그것이 진로 독서!!

화흥고등학교 교사 **공규택**

진로 독서는 '진로'를 테마로 한 책 읽기이다. 이러한 진로 독서는 자신의 장래 희망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직업 세계에 관한 '미리 보기'에 해당한다.



### ① 나에게 묻는 8가지 진로 질문

1. 내가 희망하는 직업 세계에서 요구되는 직무 능력이 무엇일까?
2. 내가 선택한 진로(또는 직업)에 대해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3. 내가 가지게 될 직업 세계에는 어떤 문제와 갈등 요인이 있을까?
4. 앞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은 무엇일까?
5. 미래 사회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직업은 무엇일까?
6. 내가 가지게 될 직업에는 어떤 의무와 책임이 따를까?
7. 직업 선택 시, 연봉·적성·명예·안정성 중에 우선 고려할 것은 무엇일까?
8. 내가 꿈꾸는 직업이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



위의 8가지 물음에 스스로 답해 보자.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사색하고 탐색하기 위한 물음은 수도 없이 많을 테지만 우선 위의 8가지 물음으로 시작해 보자. 일단 8가지 물음 중에 내가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항목이 몇 개나 되는지 세어 보자.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내가 선택 대답하기 어려운 항목들을 헤아려 보고, 왜 그 항목에는 쉽게 답할 수 없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자.

직업 선택에 관해 스스로를 진단해 보는 위의 질문들에 모두 자신 있게 대답한 학생이라면, 그 학생은 더 이상 진로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을 지 모른다. 그냥 마음먹은 대로 전공 학과를 선택하고 진로를 설계하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단 1개의 항목에도 자신 있게 답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위에 제시된 항목에는 해당 직업 세계를 현장에서 미리 겪어 보지 않고서는 쉽사리 답할 수 없는, 미래형 질문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직업을 제대로 선택하기 위해서 미리 몇 년 동안 해당 분야에서 실제로 일을 해 보아야만 하는 걸까?

얼마 전에 개봉했던 <어벤저스 - 인피니티 워>를 보면, 지구의 생존을 위협하는 타노스의 막강한 위력 앞에 어벤저스 군단이 굴복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가 결정적 희망을 발견하는 장면이 나온다. 닥터스트레인지가 미래로 날아가 타노스와 맞서는 천만 가지도 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미리 경험해 보고 나서 지구를 지켜낼 단 한 가지의 경우의 수를 찾게 된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래서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를 '미리 보기' 하는 것은 이렇듯 현실에 대처하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된다. '진로 독서'는 닥터스트레인지가 미래에서 경우의 수를 미리 따져 보듯, 먼 미래에 자신이 갖게 될 직업 세계를 수없이 많은 책 속에서 미리 경험해 보고 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단 하나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에 SF영화 못지않게 경이로운 일이다. 요컨대 직업을 일정 기간 직접 겪어 봐야만 해당 직업의 세계에 대해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독서를 통한 진로 탐색은, 자신에게 최적화된 단 하나의 경로를 찾아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 ② '지식'뿐 아니라 '책임'도 배워라.

일반적으로 우리는 진로 독서를 통해 해당 직업을 갖기 위한 실용적 정보를 습득하고 유능한 직업인으로서의 제반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진로를 모색하는 예비 직업인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직업이 요구하는 '직업윤리'를 터득하는 것이다. 즉 모든 직업인은

해당 직장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가 있고, 그에 따른 역할이 있다. 직장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철저히 익혀 자신의 역할을 완수해야 한다. 하지만 기능(능력) 못지않게 책임 의식과 윤리 의식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적 지식을 미리 배우는 것이 매우 유용하겠지만, 그것 말고도 학교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책임도 매우 중요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교사로서의 인격을 갖추고, 교육적 양심을 지켜야 할 의무도 있다. 이렇듯 해당 직업의 직업윤리를 터득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직업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이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승무원을 꿈꾸는 사람들은 해당 직업의 좋은 점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항공기 승무원의 고충이나 그들이 승객에 대해 어떤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또 법관을 예를 든다면 법관은 개별 법 조항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법과 정의에 대한 소신과 가치관을 먼저 정립해야 참된 직업인으로서의 법관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된다.

진로 독서를 행함에 있어 직업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기능적·방법적·절차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만 몰두한다면 해당 직업을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적 직업 세계에서는 해당 직업이 갖는 책임과 의무, 즉 직업윤리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다. 진로 독서는 직업 세계에 대한 ‘지식’과 ‘책임’, 둘 중에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쪽 모두를 아우르는 균형적 모색을 필요로 한다.

#### ③ ‘혼자’ 읽지 말고, ‘함께’ 읽어라.

책은 흔히 혼자 읽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로 독서는 ‘함께’ 읽어야 더 효과적이다. 주지하다시피 교육 현장에는 수없이 많은 자율 동아리가 조직되어 있다. 흔히 비슷한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친구끼리 동아리를 조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비슷한 계열의 진로를 꿈꾸는 친구들과 만들어 진로 독서에 활용한다면 더 알찬 동아리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진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동일 계열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이나 유사한 직업군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유용한 학습 활동을 하거나 친목을 도모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학 또는 진로와 관련된 책을 ‘함께’ 읽어나갈 수 있다. 똑같은 책을 읽고 다 함께 독서 토론을 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책을 나누어 읽고, 동아리 안에서 자기가 읽은 책의 내용을 요약화하여 발표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다양한 책 속의 정보는 물론,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서로의 관점까지 광범위하게 공유할 수 있다. ‘함께’ 읽는 활동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이런 면에서 진로 동아리를 통한 진로 독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동일한 진로 목표를 가진 사람끼리의 유대감을 바탕으로 더욱 깊이 있고 수준 높은 독서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독서 활동에서 친구들끼리 선의의 경쟁도 기대할 수 있고, 서로 멘토-멘티가 되어 상호보완적이면서 역동적인 독서활동을 수행할 수도 있다.

#### ④ ‘책’을 통해,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과거 ‘진로’와 ‘독서’가 서로 긴밀한 관련을 맺지 못하고 서로 소원했던 적도 있었지만, 요즘은 ‘진로 독서’가 신간 서적의 카테고리를 이룰 만큼 매우 다양한 기획의 출간이 줄을 잇고 있다. 주제별, 직업별, 수준별로 출간된 서적들은 진로 독서의 욕구를 가진 어떤 독자라도 반가이 맞이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특히 요즘은 실제 해당 직업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진짜 직업인들이 마치 수기처럼 써내려 간 시리즈물이 많은데, 생생한 직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좋다. 직업 현장의 생생함을 느끼고 싶다면, 굳이 ‘책’이라는 매체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

다. 영화나 드라마, 혹은 인터넷 웹툰이나 UCC와 같은 매체도 직업인의 애환이나 고충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어 유익하다. 가령 드라마 ‘미생’(원작은 웹툰이었음.)은 무역회사의 24시간을 너무나도 현실감 있게 그려서 사회적 공감을 불러 일으켰고, 그 밖에도 경찰이나 의사, 군인, 모델, 운동선수, 방송인, 언론인 등 전문직의 직업 세계를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도 자주 선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책’이 미처 담지 못한 직업인의 현실적 모습을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기에 나의 진로를 탐색하고 보정하기에 손색이 없는 참고 자료가 된다. 또한 이른바 ‘짤’이라고 불리는 각종 UCC에도 직업인과 관련된 소소한 일상이 담겨 해당 직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흥미롭게 전한다.

#### ⑤ ‘진로 독서’는 내 인생의 길라잡이

자, 이제 마무리를 해 보자. 진로 독서는 ‘진로’를 테마로 한 책 읽기이다. 이러한 진로 독서는 자신의 장래 희망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직업 세계에 관한 ‘미리 보기’라고 할 수 있다. 미리 볼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이 직업 현장에 실제로 투입되었을 때 ‘시행착오’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아마도 지금 청소년기에 읽는 책 한 권이,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혹은 내가 직업 전선에 뛰어들었을 때 길을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길라잡이가 되어 줄지 모른다. 청소년기의 왕성한 진로 독서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빼꼼히 들여다보는, 유익한 즐거움을 만끽하기를...

## 수험생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



1. 책 제목
2. 출판사
3. 추천 이유

「인문학아 부탁해 나의 꿈 나의 미래 1, 2」 - 공규택 2017

북트리거

다양한 직업 세계를 전통적 인기 직업군과, 미래에 유망한 직업군으로 나누어, 청소년의 직업 선택의 큰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이 가질 법한 현실적인 진로 고민을 ‘상담 편지’라는 형식을 활용하여 자상하고 친절하게 풀어주면서 개별 직업을 하나씩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문학과 개별 직업을 잘 연관 지어서 직업의 기본 속성은 물론, 해당 직업에서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를 철학적으로 숙고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진로 선택에 충실한 어드바이저가 되어 줍니다. 무엇보다도 진로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수준별로 제시해 주어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단계별 진로 독서를 가능하게 해 줍니다.



# 세상을 바꿀 신기술,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충북대학교 교수 조완섭

많은 미래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세상을 바꿀 신기술로 “블록체인(blockchain)”을 꼽고 있다. 블록체인은 분산거래장부 혹은 신뢰인터넷(신뢰 컴퓨터)이라 불리고 있으나 후자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 생각한다. 블록체인이라는 인터넷은 그 안에 저장된 데이터를 누구도 조작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보증함으로써 누구나 100%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블록체인은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bitcoin)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동일한 의미는 아니다. 수많은 블록체인 응용 분야 중 하나가 비트코인이며, 따라서 블록체인의 잠재력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블록체인은 최근 비트코인에서 보았듯이 은행이라는 “중간자”가 없이 기술만으로도 신뢰가 보장되는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 기존 인터넷으로는 중간자(은행이나 금융감독원)가 그 신뢰를 보장해야 중요한 일(돈거래)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누구나 앱스토어에서 전자지갑을 다운받으면 은행의 개입이 없어도 커피를 사고, 비행기표를 구하거나 호텔을 예약하는 거래가 가능하다. 기존의 은행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은행이 해 왔던 역할(전 국민의 금융거래 장부 관리)이 불필요한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에서는 블록체인 세미나가 매일같이 열리고, 금융권 인사들이 블록체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블록체인은 금융을 넘어 의료, 물류, 에너지, 공공행정 등 전체 산업 분야에서 비즈니스 혁신을 이루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10년 이내에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에 저장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쉽게 말해, 전 세계 직장인 월급(혹은 생활비)의 10%가 비트코인으로 지급(사용)된다는 의미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은 물론 러시아나 중국 등 후진국에서도 블록체인이 국가 발전의 핵심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각국은 블록체인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스위스는 블록체인 특별구역을 추크 지역에 만들어 전 세계 블록체인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싱가포르나 홍콩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도 블록체인 발전과 인력 양성 등에 노력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있다(서강대, 고려대, 연세대, 동국대, 중앙대, 포항공대, 한양대 등).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주요 대학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BLOCK CHAIN & BIG DATA

블록체인은 “가장 파괴적 기술”이라 불리고 있다(Computer World誌). 이는 기존의 법과 제도를 혁명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의미이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통해 은행의 개입 없이도 개인 간 금융거래가 가능함을 보였다. 또, 선거 블록체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없이도 조작 없는 스마트폰 대통령 선거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인의 의료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함으로써 안전하게 관리하면서도 환자 중심으로 병원 간 진료 정보 교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식탁에 올랐은 외국산 식품의 원산지나 보관 및 이동 시 관련 정보 일체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무수히 생겨날 것이다.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는 전체 산업과 공공 분야에 걸쳐 일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블록체인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블록체인과 함께 또 다른 데이터 산업의 핵심 기술로 빅데이터(big data)가 있다.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에 비해 크고(volume), 다양하며(variety), 빠르다(velocity)라는 특징을 가진다. 기존의 작고, 정형적이며, 상대적으로 느리게 생성되는 데이터가 정보화의 진전으로 이제 빅데이터가 양산되는 시대가 되었다. 빅데이터가 세상을 바꾸고(KBS 시사기획창), 경영을 바꿀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 데이터가 매년 40%씩 증가함에 따라 각 나라와 기관 및 기업들은 쏟아지는 데이터 처리와 분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Harvard Business Review誌는 빅데이터 전문가(데이터과학자)를 “21세기 가장 매력적인 직업”으로 소개하였다. 미국의 구인구직 전문사이트 Indeed.com에서는 데이터과학자의 미국 내 연봉 평균을 127,000달러(2018년 11월 23일 기준)로 소개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14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 BLOCK CHAIN & BIG DATA

대량으로 유입되는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술과 함께 그 속에서 신뢰가 필요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별도로 저장하고 관리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진다. 큰 데이터와 신뢰 데이터를 모두 잘 관리함으로써 IT 자동화의 정도는 한층 더 향상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전문가가 하던 많은 일들을 컴퓨터가 대신할 것이다.

### 블록체인의 활용 분야

분 야	활용 설명
금 융	중간자 개입이 없는 신속한 보험 처리 중간자 개입이 없는 개인 간 금융거래 (저렴하고 빠른 금융거래) 투자 활성화 및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투자
의 료	개인의 건강기록은 개인 주도로 관리, 재활용 (진료 정보 교류) 신약 개발이나 정밀의료 등 의료 발전에 기여함 건강코인 지급으로 개인의 건강 관리에 기여함
도 시	스마트 시티 등 첨단도시의 센서나 설비 관리 최적화 해킹 방지 등을 통해 안전한 도시 건설
에 너 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거래 활성화 에너지 자립 마을 실현과 자연재해 극복에 기여 화재 발생 등 분쟁 해결에 기여
차 량	전기차 충전과 에너지 공유에 기여 차량의 생산 - 활용 - 정비 - 차량 공유 - 폐차 전체 생애 관리 개인에 최적화된 차량보험 설계
물 류	전 세계 물류 관련 정보의 안전하고 빠른 활용으로 원산지 확인 등이 즉시 가능함 물류 관련 업무 효율성 증진과 비용 절감, 데이터 신뢰도 제고
선 거	스마트폰 전자투표로 빠르고 신뢰성 높은 투표 가능
저 작 권	음원사이트 블록체인화로 가수나 저작자 권리 보호(현행 총 수익의 84%를 제작사나 음원사이트가 차지함)
무 역	블록체인 기반 무역거래로 1조 달러 비용 절감 예상(세계경제포럼)

지금은 컴퓨터로 대체될 분야(축구에서 수비)보다는 블록체인과 빅데이터로 무장해서 전문가 영역을 자동화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공격진)가 필요한 시대이다. 세계 각국은 이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대학들도 이러한 인재 양성을 서두르고 있다. 어떤 전공을 선택하건 데이터 관련 지식을 쌓고, 블록체인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자신의 전공과 융합해 나감으로써 향후 블록체인 시대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경영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나 경영(비즈니스)을 블록체인과 접목하여 혁신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기존의 경영 지식이 블록체인(빅데이터)과 결합할 때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식으로 변화하고, 기존 전문가들과 차별화된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미래를 함께할 새로운 직업, 빅데이터 전문가 (출처: 커리어넷, 워크넷-직업정보검색)

“디지털 시장의 트렌드를 이끄는 정보 분석가”

전문가들은 ‘빅데이터(Big Data)’를 “정보화 사회의 원유(Oil)”에 비유합니다. 기름이 없으면 기계가 작동하지 못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각종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듯, 디지털 시대에 빅데이터만큼 중요한 자산은 없다는 것이지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지구촌은 실시간 소통합니다.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 소통은 곳곳에 친절한 흔적을 남기고 데이터망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바야흐로 빅데이터 시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디지털로 저장된 엄청난 양(보통 테라바이트~페타바이트 규모 정도)과 다양한 형태의 정보(구매자 정보, 위치 정보, 센싱 정보, 소셜미디어(SNS) 등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최근 빅데이터 산업이 미래 예측과 전략 수립 분야에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고, 그 결과로부터 지식집약형 서비스와 정책을 창출하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이 도래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자주 찾는 정보는 무엇인지, 한 번 찾으면 얼마 동안 머무는지 등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업이 건 개인이건 빅데이터를 부가가치가 높은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업으로 삼는 빅데이터전문가는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가장“ 빅(big)”한 가치를 찾아내는 데 열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요?

- 분석 목표에 따라 빅데이터의 분석 방법을 기획합니다.
- 분석할 빅데이터 자료를 수집하여 프로그램을 만들고 통계학적으로 분석합니다.
-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플랫폼을 통해 빅데이터를 처리한 후 분석 결과를 시각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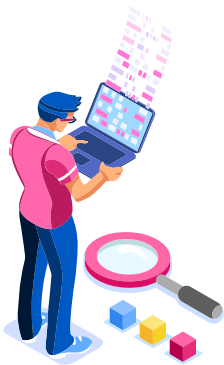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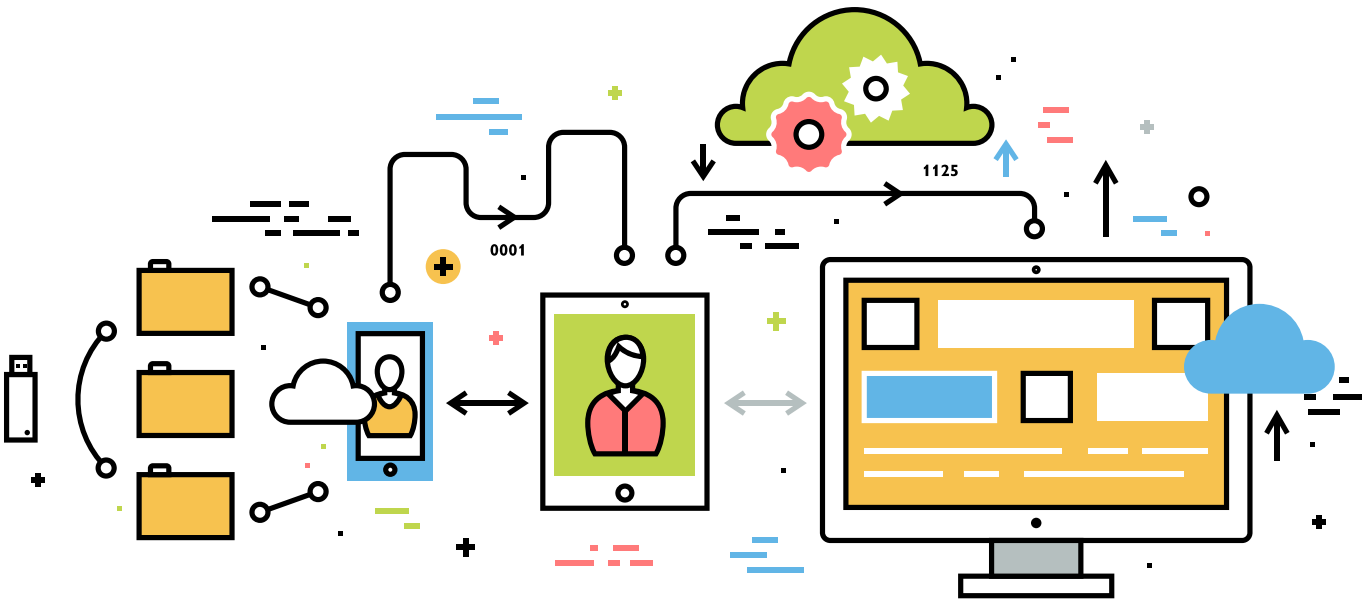
업무수행능력	지식	흥미
범주화 글쓰기	국어 영어	
전산	산수와 수학	탐구형(형)
시간 관리	사회와 인류	관심형(C형)
논리적 분석	철학과 신학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나요?

- 대학에서 통계학 또는 컴퓨터공학, 산업공학 등을 전공하면 기술적인 베이스를 갖추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 빅데이터는 데이터마이닝이나 인공지능 분야의 기계학, 통계학 등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직업 분야에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진출이 활발합니다.
- 드러난 수치를 단순히 나열하는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학이나 마케팅 분야의 지식이나 경험과 관련이 깊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관련 직업 및 학과를 검색해 보세요.

- #산업공학과
- #컴퓨터공학과
- #통계학과
- #컴퓨터시스템설계분석가
-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 #컴퓨터프로그래머



수험생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



1. 책 제목

블록체인 혁명(4차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거대한 기술)  
돈 탭스코트, 알렉스 탭스콧 저 / 박지훈 역
2. 출판사

을유문화사
3. 추천 이유

블록체인이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움직임을 다양한 분야에서 소개하고, 그것이 바꾸는 미래사회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동아리로 알아보는 직업 벅스푸드 크립토펙터



B u g s f o o d · C r y p t o F a c t o r

두근두근 대학생할. 여러분은 어떤 핑크빛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대학생활의 꽃은 무엇보다 동아리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취업 부담과  
각종 스펙 쌓기로 대학생할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여기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워 나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볼까요?



## ❶ 창업의 마중물이 되어 준 나의 동아리 ‘벅스푸드’

박우현(충북대학교 식품생명공학 전공)

어릴 때부터 저는 사업가가 꿈이었기 때문에 창업에 관심이 많았  
습니다. 그러다 대학교 3학년, 충북농업기술센터 인턴 과정 중 식  
용 곤충 사업화 과제에 참여해 땅콩 스프레드를 만들면서 이 우수  
한 원료를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식용  
곤충을 아이템으로 창업 동아리를 창설했고, 현재는 식용 곤충의  
시장 가능성을 확인하여 창업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벅스푸드라는 이름으로, 작년 <대학창업유망팀 300>의 교  
육부 대표로 선발되어 <도전! K-스타트업>에 출전하였습니다. 올  
해는 <제7회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창업 신들의 배틀, 스타트업  
빅뱅>과 오송 뷰티박람회, 부산 스타트업페스티벌 등 다양한 경진  
대회 참가와 더불어 전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  
창업 아이템 사업화, 공공기술 기반 창업 탐색 지원 사업에 선정되  
어 현재는 스타트업으로서 첫발을 디뎠습니다. 저는 창업 아이템  
도 중요하지만, 창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포기하지 않고 모든 열정을 쏟는다면 그 아이템을 더욱 성장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창업을 하기에 앞서 필요한 지식과 실무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금 결제의 처리 과정이나,  
외주 용역을 어떻게 선택하고 계약하는지 등 다양한 실무를 해 봄  
으로써 이론보다 실전으로 먼저 배우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러한 경험들이 실전 창업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배우고 익히는 시  
간을 아껴 실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  
니다. 특히 청년 창업의 경우 리스크가 적고, 앞으로 선례가 더 많  
아질 것이기 때문에 향후 5년 정도가 창업에 최적적이라고 생각합  
니다. 저희의 창업 분야는 바이오·헬스로, 식용 곤충 스포츠 식품  
을 만들고 있습니다. 식용 곤충은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  
증을 받아 일반 식품 원료로 등재되어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단계  
입니다. 가까운 일본과 해외 시장을 봤을 때 충분한 시장 잠재력이  
있으며, 정부에서도 곤충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거부  
감을 줄여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시장을 선점한다면 전망이  
좋은 것으로 예상합니다.

### 필요한 건 열정과 비전

제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창업 준비에 필요한 역량은 직접 부딪칠  
수 있는 열정과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자리에 앉아 문제 해결을 기  
다리는 게 아닌,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고 문제에 대해 해결 방법을  
강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전이 있는 사람이 되  
어야 합니다. 비즈니스는 모두 사람과의 신뢰가 바탕이 되기 때문  
에, 자신에게 확신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된다면 좋은 동업자를 만날 수 있  
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독서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창업을  
준비하면서 읽은 [논백경쟁전략]이란 책은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  
쳤습니다. 이 책은 창업을 준비하면서 알아야 할 인사이트를 심리  
학 논문 100편에서 인용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시장에서 살아남는 경쟁의 기술들을 알 수 있었고 현재 브랜딩 마  
케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브랜딩 정체성을 부여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는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청년 기업을 정신을 배울 수 있었습  
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이라는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  
니다. 이 글을 읽는 학생분들이 대학에 진학한 후 창업 교육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폭넓은 진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 ② 대학생 블록체인 연합 동아리 ‘크립토펙터’

어경훈, 김동은(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 전공)

대학생 블록체인 연합 동아리 ‘CryptoFactor(크립토펙터)’는 전국 각지의 대학생들이 모여 건전한 암호화폐 문화와 새롭게 다가오는 블록체인 기술을 공부하는 학술 동아리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모여 세션 발표를 하고 스터디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재미있는 뒤편이도 하고 학기마다 MT도 가며 친목을 다지기도 합니다.

### 정보가 부족한 시장에서 동아리 창설이 취업의 디딤돌이 되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17년 대한민국에선 비트코인이 큰 화두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투자 측면에서 이를 바라봤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면에 내재된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저희들도 이런 열풍을 타면서 블록체인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생소한 분야이고 정보가 부족해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여러 대학생들을 모아 다 같이 블록체인을 연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었고, 이것이 동아리를 창설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국에서 모인 25명의 동아리원들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중 한 친구는 네이버의 블록체인 부서에 취업을 했고, 다른 친구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부서로 갔습니다. 또 이들 말고도 빙셀, 코인원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취업을 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25명 중 10명 정도가 관련 분야로 취업을 했으니 진로 연관성이 높은 편이죠.

### 학술동아리 힘의 원천은 ‘스터디’

동아리원들의 진로가 이렇게 잘 풀릴 수 있었던 이유는 블록체인 분야가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부족한 특별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기술이라 잘 아는 사람도 없었고 전문가는 더욱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 분야를 심도 있게 공부한 대학생들이 웬만한 사회인들보다 훨씬 더 블록체인을 잘 알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기업체에서 인재들을 탐을 낼 만도 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동아리 활동 중 모 기업에서 방문해 특별채용 형식으로 사람을 뽑아간 경우도 있었고, 동아리원들 중에는 동시에 여러 곳의 기업에 합격하여 어디를 갈지 행복한 고민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면접장에서도 스터디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적인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할 수도 있었지요. 누군가 이러한 내용을 가르쳐 주는 강의도 없고 블록체인을 배울 수 있는 곳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같이 연구하며 학습을 했으니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전문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학습하는 힘이 대학생 학술 동아리의 큰 장점입니다.

###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기본 소양 ‘영어, 글쓰기, 컴퓨터’

취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적은 시장을 찾아야 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준비하는 마케팅·공무원·경영관리 직종은 레드오션입니다. 수요는 적는데 공급은 많으니 당연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는 사람이 필요한데 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은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바로 그러한 예이죠. 취업을 잘 하고 싶다면 남들이 잘 준비하지 않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직종에 가든 필요한 역량이 있는데 영어·글쓰기·컴퓨터 이 3가지 능력은 자주 쓰이니 기본 소양으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이 발표한 ‘직업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50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AI 로봇, 나노, 3D프린팅,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보고서에서는 선진국과 신흥 시장을 포함

한 15개국이 기술 변화로 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고 관측했죠. 기계와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체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극대화되는 사회가 올 것입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잘하는 사람이 적은 분야에 일찍 뛰어들어 남들보다 빨리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한 방법일 것입니다. 블록체인 분야와 같은 경우 현재 극초기의 신생 산업이고, 제대로 할 줄 아는 전문가가 없어 학원과 교육 커리큘럼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그만큼 개척 분야가 넓은 블루오션 시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소 5년간은 공급보다 수요가 클 분야이니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 스터디, 함께 성장하는 경험

여러분이 해 온 내신 공부, 수능 입시 공부와 대학에서의 공부, 특히 학술동아리의 스터디는 크게 다릅니다. 기존에 했던 공부는 나 혼자만 잘해도 됐지만, 스터디는 나뿐만이 아닌 내 옆의 사람도 같이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만 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모토로 하기 때문이죠. 대학교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기간 동안 양질의 경험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성과 친화력이 필수입니다. 이 역량이 뛰어날수록 다양한 사람들을 사귀고 그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술 동아리 활동에서는 이것이 중요한데, 팀을 만들어 스터디를 하다 보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갈등을 중재하며 누구와도 어우러질 수 있는 친화력 좋은 사람은 인기도 많고 누구나 스터디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동아리에서 가장 뽑고 싶은 사람은 누구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고, 스터디에서도 이런 역량을 가진 이들이 배움의 성취도도 높기 때문에 친화력을 기르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피터틸이 쓴 <제로 투 원>이라는 책에는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누구나 다 가는 길이 아닌 남들이 가지 않는 분야에 뛰어들어 그곳에서 최고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면 좋겠습니다.

# 2020

## All About Admissions

---

충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가이드북

### 학습코칭

- 088 창의성을 높이는 학습법
- 094 성공을 부르는 하루 10가지 습관
- 096 성적 올리는 집중력 향상법
- 098 이것만 알면 입시 고수 - 대학입학 용어사전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 -  
충북대학교



# 창의성을

# 높이는 학습법

21세기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은 창작자 및 타인과의 공감 능력 소유자를 원한다. 앞으로 5년 후의 업무 역량도 테크놀로지 역량 및 복합적 문제 해결 역량인 창의성과 관련된 역량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앨빈 토플러는 “21세기의 문맹은 읽고 쓸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재학습 능력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평생교육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잘 배우고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국리더쉽센터 전문교수 이인식

Creative  
ability

Creative

☀ 창의적인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가? 또한 그러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창의적인 사람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지속적인 학습을 통하여 한계를 극복한다. 창의적인 사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으로 창의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면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기적의 뇌 사용법 저자인 마크 티글러는 “창의성은 기존 요소를 새롭게 연결해서 어떤 것을 창조해 내는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즉,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롭게 연결하는 것이다.

뇌과학자인 로돌포 R 이나스는 “창의성은 기억의 새롭고 독특한 조합이다.” 라고 정의했다. 결국 창의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학습한 내용이 기억으로 잘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기억의 독특한 조합이 이루어질 때 창의적인 작품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창의성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억의 독특한 조합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뇌에 장기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장기기억을 바탕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직간접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해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장기기억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꺼내어 쓸 수 있는 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재료가 부족하면 새로운 것을 만들기 힘들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레고 조각을 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려면 일단 레고 조각이 많아야 한다. 레고 조각이 많아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장기기억을 꺼내어 다른 것과 조합하고 연결할 때 창의적인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창의성을 키우는 방법이다. 이때 효과적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정보를 장기기억화하여 필요할 때 기억해 낼 수 있다는 것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은 적은 시간과 적은 노력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흡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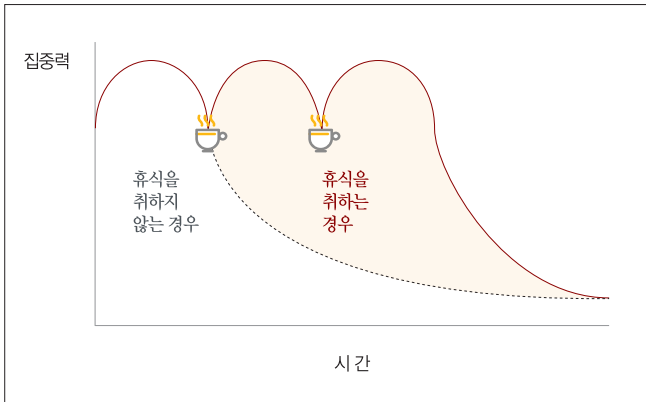
다음날 학교에 가져갈 아주 중요한 것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 부피가 작다면 가방 안에 둘 것이고, 부피가 크다면 현관 앞에 다 둘 것이다. 전날 현관 앞에 두면 “이것 꼭 챙겨야 하는데, 안 가져가면 큰일 나는데” 하는 걱정 없이 편안하게 수면을 취할 것이다.

데이비드 알렌은 “머릿속에 맴도는 할 일들”을 머릿속에서 꺼내 신뢰할 만한 시스템에 집어넣어라.”라고 말한다. 공부를 할 때나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다른 잡다한 일 때문에 학습 능률이 떨어진 경험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개인마다 신뢰할 만한 시스템 도구(플래너, 다이어리, 앱 등)를 한 가지씩 장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는 “우리의 머리는 아이디어를 내는 곳이지 그것을 보관하는 곳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의 머리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것이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는 저장소가 아니라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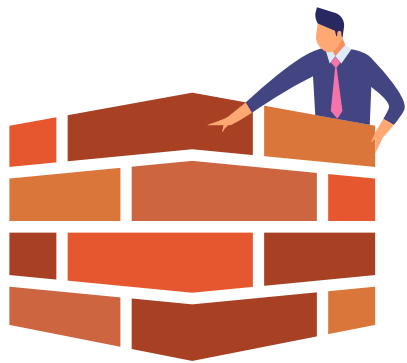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집중력을 방해하고 창의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 3가지 중 첫 번째는 알림이다.

어떤 알림이 집중을 방해하는가? 대부분의 경우는 스마트폰의 문자나 SNS의 알림이 우리의 집중력을 방해한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좋아요는 몇 개인지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집중해야 할 시간에 다른 것에 신경을 쏟다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부할 때나 집중을 요할 때 알림 기능을 끄고(비행기 모드 혹은 무음 처리) 학습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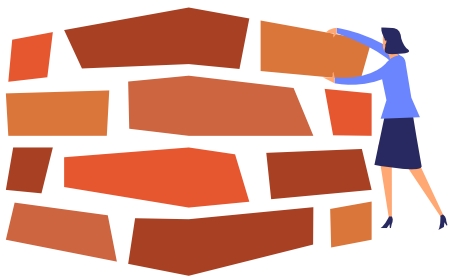
두 번째로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은 너무 오랜 시간 공부하기이다. 시간에 따른 생산성은 90분이 넘어가면서 점점 줄어들게 된다. 중간중간에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만 다시 집중력이 올라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건물을 지을 때에도 벽돌을 쌓은 후 중간에 모르타르를 바르고 잘 마를 때까지 기다릴 때 튼튼한 건물이 되는 것처럼 튼튼한 신경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번의 버락치기보다 조금씩 매일 꾸준히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씩 매일



버락치기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포모도로 기법이 있다. 이는 음식 조리 시 간단하게 사용하던 타이머가 토마토 모양이었던 것에서 유래되었다.

- ❶ 주변 방해 요소 제거
- ❷ 25분
- ❸ 집중
- ❹ 보상(5분 휴식)

먼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해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위의 가족, 친구에게 알려서 집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도움을 구하거나, 혹은 조용한 도서관이나 한적한 커피숍에 가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리고 25분간 타이머를 맞추고 집중한다. 25분 후에 집중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5분간 자신이 하고 싶은 스마트폰 검색이나 SNS를 하며 휴식을 취한다. 5분의 휴식이 끝나면 다시 25분간 집중, 5분간 휴식을 2~3회 정도 반복한다. 2~3회 정도 온전히 집중하고 나면 학습 능률이 높아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2~3회 동안 진행하면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외적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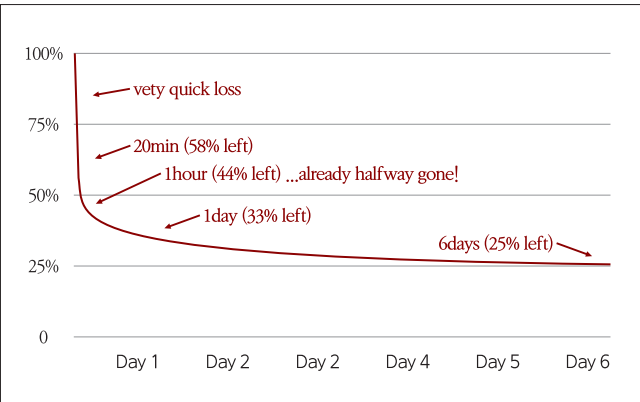
집중력을 방해하는 세 번째 요소는 잡념이다.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다가 다른 해야 할 일이나 생각으로 집중력이 분산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마감 시간을 정해서 아침과 점심, 저녁에 해야 할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처리하다 보면 잡다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창의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학습한 내용을 장기기억으로 넘겨서 다른 것들과 조합하고 연결된 상태를 말한다.

학습 내용을 장기기억으로 넘기는 전략에는 3가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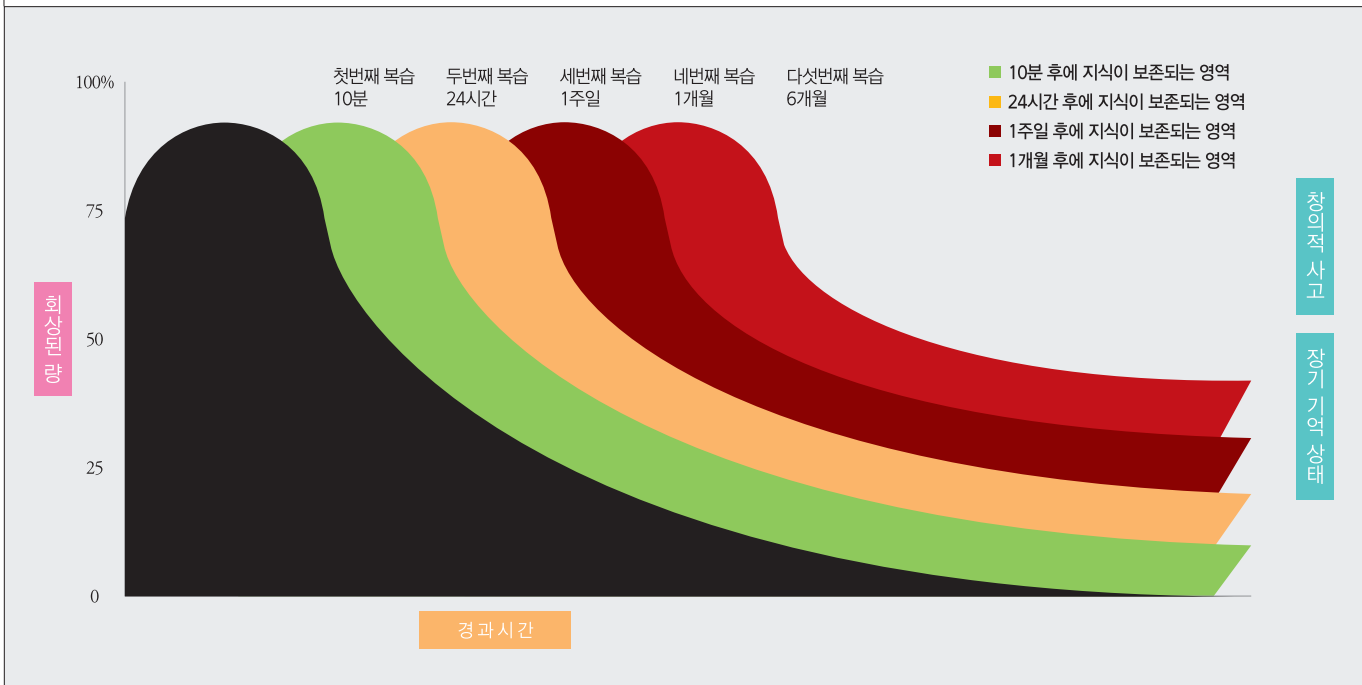
첫째 복습시스템을 만들어라.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보면 사람이 학습한 내용을 시간에 따라 어떻게 잊어버리게 되는지 알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학습 후 1일이 지나면 약 70% 정도를 망각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두뇌 학습법의 대가 토니 부잔은 이러한 망각을 극복하기 위해 주기적 복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다음 그림은 그 복습 주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주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약 3번 정도만 주기적으로 복습을 하면 70% 이상 기억한 상태에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 5%를 갖고 공부한 학생과 70%를 갖고 공부를 한 학생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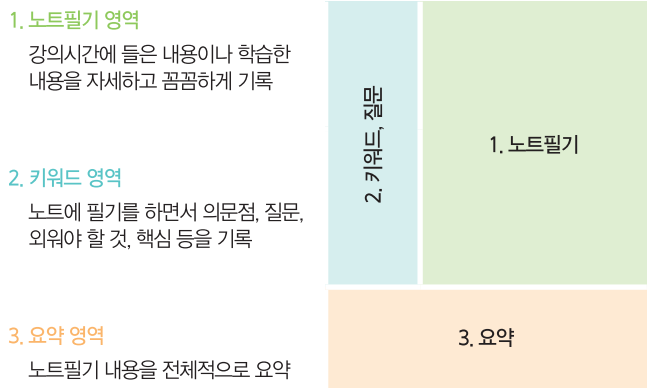
- ▶ 복습하지 않는 경우 5%
- ▶ 복습 1번 한 경우 25% (첫 번째 복습 수업 종료 10분 후)
- ▶ 복습 2번 한 경우 50% (두 번째 복습 수업 다음날 24시간 후)
- ▶ 복습 3번 한 경우 70% (세 번째 복습 수업 종료 1주일 후)



둘째, (학습한 내용을) 회상하라.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는 것, 곧 회상은 장기기억 방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배운 내용을 반복하는 것과 떠올려 보는 것의 효과를 비교해 보기 위해 실험을 하였다. A반은 공부한 것을 한 번 더 공부하게 하였고, B반은 공부한 후 복습을 하지 않고 자체 시험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어땠을까? 5분 후에 시험을 보았을 때는 A반 성적이 61점, B반 성적이 55점으로 A반이 좋았다. 그러나 일주일 후 시험을 보았을 때는 B반 성적은 53점으로 5분 후의 시험 결과와 유사했지만 A반 성적은 45점으로 15점 이상 떨어졌다. 결론적으로 장기 기억을 만드는 데는 반복보다 회상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회상을 어떻게 학습에 활용할 수 있을까? 바로 코넬 노트를 이용한 복습 방법이 있다.

코넬 노트는 아래의 3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강의 시간에 들은 내용을 적는 노트 필기 영역과 노트 필기를 하면서 의문점, 질문 및 키워드를 기록하는 키워드 영역,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요약 영역이 있다. 그렇다면 노트 필기 후 복습을 할 때 어디를 먼저 봐야 할까?



복습을 할 때 회상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번 영역을 먼저 보지 말고, 2번 영역의 키워드나 질문을 보며 내용을 떠올려 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복습의 원리는 회상 후 확인이기 때문이다.

셋째, 행동과 연결하라.

다음 그림은 학습 후 다음날 배운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는지를 나타낸 학습효율성 피라미드이다. 50% 이상을 기억하는 방법들의 공통점을 보면 배운 것을 사용하여 밖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그리면서 정리가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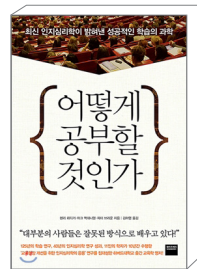


우리는 지속적이고 거대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유연성과 호기심을 갖고 끊임없이 학습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 창 의 성 학 습 법



## 수험생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



- 1. 책 제목
- 2. 출판사
- 3. 추천 이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 김아영 역

와이즈베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인지능력 및 학습능력입니다. 평생교육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행복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공부하고, 배운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미래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여러 성공사례를 통해 실제 공부 방법의 변화를 유도하고, 여러 학자들의 근거를 제시하여 독자의 공부 방식에 대한 변화를 어필하고 있습니다.



## 시간관리전략

영화 ‘매트릭스’ 시리즈에서 가장 가슴에 남는 메시지는 2편에 등장하는 정보 브로커 메로빈지언의 대사다. 결과 없는 행위는 없다는 것,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도 필연일 수 있다는 발언이다. 이 주장은 지금의 나, 내가 처한 상황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행위, 내 인생의 결론이라는 뜻으로 귀결된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모든 불행이 그 사람의 책임 이냐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 인생에 내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이 주장은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하다.

이런 의미에서 성공에도 원인이 있다. 성공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 대가는 자기 규율이다. 성공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시킬 것은 지키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참을 것은 참는 절제다. 리더십 회사를 설립하고 베스트셀러 서적을 발간해 24살에 백만장자가 된 대니얼 앨리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기고한 글에서 성공이라는 결과를 낳는 원인인 자기 규율을 10가지로 정리했다. 이 10가지는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되어 한다.

## 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지침이다. 10년 뒤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연, 월, 주, 일별로 쪼개 해야 할 일을 정한다. 목표는 크고 원대해야 하지만 계획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어야 한다. 디테일에 강하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 교류

SNS를 비롯해 수많은 소통의 수단이 생기면서 인적 교류를 더욱 중요해졌다. 촘촘하게 교류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영향력도 커진다.

## 공부

단 하루도 새로 배운 것 없이 보내지 않는다. 책을 읽는 것만이 공부는 아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각종 동영상에서, 다른 사람이 보낸 이메일이나 SNS(사회적 관계망)에 올라온 글을 읽고 대답하는 과정에서도 공부할 수 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새로 배운 것이 있는지 자문해보라.

## 목표

매일 그날 해야 할 일, 한 달간 하고 싶은 일, 1년간 원하는 일, 10년 뒤 바라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기록한다. 앨리는 매일 목표를 점검하고 새로 설정하며 100권의 노트를 작성했다.

## 기록

적는 사람이 생존한다는 ‘적자생존’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사람들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정리하게 된다. 글은 화를 가라앉히고 우울증을 극복하게 해주는 자기 치유의 수단이기도 하다.

## 운동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자신의 하루를 기록하고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 SNS에 글을 남기는 일조차 구두로 비서를 통해 처리할 수 있지만 건강은 그 누구도 대신 지켜줄 수 없는, 오롯이 자신의 몫이다.

## 휴식

섬은 효율성과 창의성을 높인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권하는 것도 쉬면서 머리를 비워줘야 새로운 생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비우지 않으면 채우지 못한다. 휴식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 확신

사람들은 하루에 최소 1만 2000번 정도 자기 자신에게 말한다고 한다.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성패에 영향을 미친다. ‘저 사람 정말 싫어’, ‘이런 쓸데없는 말을 듣고 있어야 돼?’ 이런 식의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무의식을 형성해 부정적인 무의식적 행동을 유발한다.

## 연마

매일 전문성을 키워 나간다. 공부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지식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라면 연마는 자신이 가진 재능,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다.

## 조화

삶의 균형을 잡는다. 시간에 너무 쫓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솔직히 이 10가지 습관조차 어떻게 매일 실행할 수 있는지 자신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공부는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하는 것이고 연마는 직업으로써 일을 하는 중에 하는 것이니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목표와 계획, 기록은 노트 하나는 정해두고 틈틈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교류와 운동, 휴식만 매일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된다. 교류는 점심 식사 전 30분간 이메일을 보내고 SNS에 글을 올리고 점심과 저녁식사를 이용해 사람들을 만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운동은 아침이든 저녁이든 1시간을 정해 실천한다. 휴식은 잠들기 직전에 30분, 혹은 단 15분이라도 온몸에 힘을 빼고 호흡에만 집중하면 충분하다.

# 성공을 부르는 하루 10가지 습관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중】

# 성적 올리는

## 집중력 향상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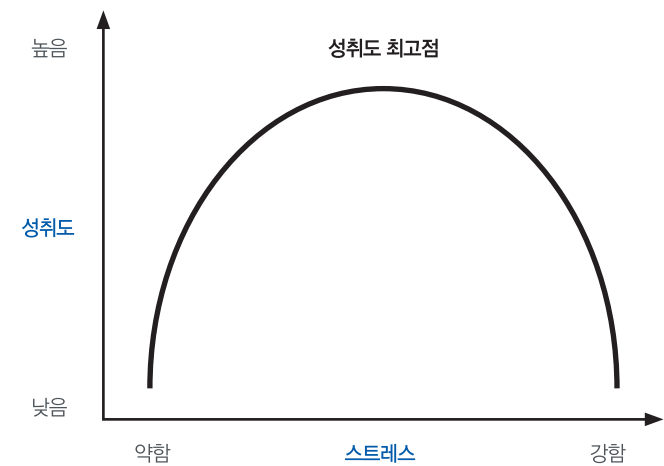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은 누구나 한 번쯤 집중력이 저하되고 학업 성적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 경험을 합니다. 이런 경우 학업에 임하는 학생의 태도를 문제 삼곤 하지만, 그 원인이 학생들의 건강 관련 생활습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 뿐만 아니라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은 누구나 한번쯤 집중력이 저하되고 학업 성적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 경험을 합니다. 이런 경우 학업에 임하는 학생의 태도를 문제 삼곤 하지만, 그 원인이 학생들의 건강 관련 생활습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학생들의 학업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법을 알아볼까요?

### 중간중간 스트레스 풀어주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할 때 등 여러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공부를 하기 위해 억지로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주로 스트레스를 느낄 것이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을 참고 견디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높은 학업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스트레스가 과도하면 공부에 투자한 시간만큼의 학업 성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심리학자 여키스(Yerkes)와 도슨(Dodson)에 따르면, 스트레스에 따른 성취도는 역 U자 모양을 띤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어느 정도까지는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성취도가 증가한다. 이 때에는 스트레스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집중력과 암기력 등이 향상됨으로써 단기간에 많은 것들을 습득할 수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스트레스가 심해질수록 성취도가 낮아진다. 정신이 멍해져 집중이 잘 되지 않으며, 방금 전 공부한 내용을 떠올리려 해도 쉽게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성취도 저하와 더불어 긴장성 두통, 소화불량 등을 야기해 학생들을 괴롭힐 수 있다. 긴장성 두통은 띠를 두른 듯 머리가 조이는 느낌, 머리가 팽 찬 것 같거나 터질 것 같은 느낌, 뒷목 부위가 조이는 듯한 통증을 동반한다. 긴장성 두통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스트레스 · 과로 · 피로 등이 심할 때 생기며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유발된다. 또한 소화를 관장하는 미주 신경에 영향을 주어 위의 연동운동 및 소화액 분비를 저하시켜 소화불량을 야기할 수 있으며, 위염 · 과민성 대사증후군 등의 소화기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오랜 시간 억지로 책상 앞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질병이 발생하거나 성취도가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수험생의 상황에 맞는 취

미생활, 맨손 체조 · 산책 등 가벼운 운동, 친구들과의 대화 등 자신이 좋아하고 즐기는 활동을 중간 중간 함으로써 스트레스가 만성화되지 않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다.

###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

수험생은 스트레스로 인해 입맛이 없거나 혹은 잠을 더 자기 위해 아침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침식사를 거르는 행동이 두뇌 활동을 떨어뜨려 학업 성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연구진이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바탕으로 아침식사의 빈도와 학업성취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아침식사와 학업 성적 간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 · 고등학생 약 75,000명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빈도에 따른 학업 성적을 조사하였다. 남녀 모두에서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아침식사를 하는 학생의 학업 성적이 보다 우수한 경향을 보였으며, 일주일당 평균 아침식사의 빈도가 많을수록 이러한 관련성은 보다 더 커졌다. 우리의 뇌는 약 1.3kg에 불과하지만 우리 몸이 소비하는 열량의 20% 가량을 소비한다. 원활한 두뇌 활동을 위해서는 포도당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아침식사는 전날 저녁식사 이후 장시간 지속된 공복 후에 포도당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신체는 오전 중에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두뇌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게 된다. 만약 아동 · 청소년이 아침식사를 거르면 15시간 이상을 공복 상태로 있게 되는데 이 경우 두뇌 활동에 필요한 포도당이 공급되지 않아 집중력, 학업능력, 수행속도 등이 저하된다. 뿐만 아니라, 장시간 공복 후에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섭취함에 따라 소화에 부담이 갈 수 있으며, 섭취한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많은 양의 혈액을 사용하게 되어 두뇌 활동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원활한 두뇌 활동을 위해서는 지방 함량이 적으며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철분, 비타민 B · C 등이 풍부한 음식으로 아침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출처: 「성적 올리는 집중력 향상법」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

이것만 알면 입시 고수

# 대학입학 용어사전

## 대학입학전형 일반

전형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평가하여 선발여부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전형방법	학생 선발 시 고려되는 전형자료, 전형요소, 반영비율, 선발단계 등 일련의 절차나 과정을 말함
전형요소	<p>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고려되는 요소를 말함</p> <p>예 _ 학생부 교과, 비교과, 서류평가성적, 면접평가성적, 수능성적, 논술고사성적, 외국어능력, 실기능력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부 교과 학생들이 각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얻은 학업성취의 수준을 말함</li> <li>• 학생부 비교과 학생들이 교육과정 중에서 경험한 모든 활동 내용을 말함</li> <li>• 내신 상급 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선발의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자의 출신 학교에서 학업 성적, 품행 등을 적어 보냄 또는 그 성적. 특히 공개하지 아니하고 대학에 보고함 또는 그 보고를 말함 ※ 현재 내신이라는 용어가 교과성적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적절한 사용이라 할 수 없음</li> </ul>
전형자료	<p>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료를 말함</p> <p>예 _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수능성적표, 어학성적표, 고교프로파일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증빙자료 학생 개인 활동을 증빙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서류 예 _ 유사용어 _ 개인활동자료, 교과활동증빙자료, 포트폴리오, 활동보고서, 입증자료, 개인활동자료 및 실적물, 개인 포트폴리오, 실적 증명서류</li> <li>• 학교소개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활동에 대한 안내 자료 예 _ 유사용어 _ 고교프로파일(school profile), 고교프로파일증빙자료</li> <li>• 자기소개서(자율문항, 공통문항) 자신을 소개하기 위한 글로 대입전형의 주요 평가자료로 활용됨. 자기소개서 문항은 모든 대학이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3개 문항과, 개별대학이 자체적으로 개발·활용하는 1개의 자율문항으로 구성됨</li> <li>• 서류작성금지항목 자기소개서에 작성 시 서류평가 '0'점(또는 불합격) 처리하는 공인어학성적 및 수학·과학·외국어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 항목을 말함. 열거된 항목 외에도, 대회 명칭에 수학·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외국어(영어 등) 교과명이 명시된 학교 외 각종 대회(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등) 수상실적을 작성했을 경우에도 '0'점 (또는 불합격) 처리함</li> </ul>

수시모집	<p>정시모집에 앞서 학생의 다양한 능력과 재능을 반영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말함.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수시모집에 지원자가 미달된 모집단위의 경우 정시모집에서 선발하기도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학생부위주전형 학생부를 주된 전형요소를 반영하는 전형 유형을 말함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 교과성적을 중심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을 말함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하는 전형을 말함</li><li>• 논술위주전형 논술고사를 주된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전형 유형을 말함</li><li>• 수능위주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된 전형요소를 반영하는 전형 유형을 말함</li><li>• 실기위주전형 실기고사를 주된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전형 유형을 말함</li><li>• 특기자전형 모집분야와 관련된 특별한 재능이나 특기를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함</li><li>• 고른기회전형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형으로 농어촌 학생 등 법률상 보장되는 정원의 특별전형과 대학 도가적 기준에 따른 보상 및 배려 차원의 전형 내 특별전형이 있음</li></ul> <p>🔍 유사용어 _ 기회균등전형, 고른기회특별전형, 정원외 전형</p>
정시모집	<p>수시모집 이후 대학이 일정 기간을 정해 신입생을 모집하는 선발방식으로 수능 성적표가 배부된 후 모집 군을 나누어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을 말함</p>
추가모집	<p>정시모집 이후 모집인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을 말함</p>
정원내 전형	<p>대학이 허가된 입학정원 내에서 선발하는 전형을 말함</p>

정원외 전형	<p>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전형을 말함. 정원외 전형 해당 자격은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농어촌학생 특별전형</li><li>▶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li><li>▶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북한이탈주민,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에서 초·중등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포함)</li><li>▶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별전형</li><li>▶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li><li>▶ 장애·지체로 인한 특수한 교육적 필요 대상자 특별전형</li></ul>
입학사정관	<p>대학에서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대입전형 관련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가를 말함</p>
선발비율	<p>총 지원자 수에 대한 총 선발예정자 수의 비율을 말함</p> <p>🔍 유사용어 _ 선발배수</p>
동점자 처리기준	<p>입학 사정단계에서 같은 점수를 부여받은 동점자를 처리하는 기준을 말함</p> <p>🔍 유사용어 _ 동점자 선발기준, 동점자 처리방법, 합격선 동점자 처리, 동점자 사정기준, 동점자 사정원칙, 동점자 선발 우선순위, 동점자 선발원칙</p>
단계별 전형	<p>입학 전형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합격자를 선발하는 전형을 말함</p> <p>🔍 유사용어 _ 다단계전형, 단계별사정</p>
1단계 합격자	<p>전형을 몇 개 단계에 걸쳐 진행하는 전형에서 1단계에 합격하는 대상자를 말함</p> <p>🔍 유사용어 _ 1단계전형 합격자, 1단계 예비선발자, 1단계 통과대상자, 1단계 통과자, 1단계 선발자</p>
일괄합산전형	<p>전형이 단계로 나누어지지 않고, 일괄적인 성적 처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형</p> <p>🔍 유사용어 _ 일괄합산</p>
공통 원서접수	<p>대학지원 시 필요한 정보를 최초 1회 작성하여, 모든 대학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원서접수시스템을 말함. 현재 공통원서접수 시스템이 도입되어 운영 중이며 통합회원으로 한 번만 가입하면 원서접수 대행사마다 별도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여러 대학에 지원이 가능함</p> <p>(참고 _ <a href="http://www.kcue.or.kr/accept/accept.html">www.kcue.or.kr/accept/accept.html</a>)</p>

대입전형 시행계획	고등교육법 제34조의 5호에 의해 대학의 장이 입학년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입전형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응시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모집군	4년제 대학의 정시모집 전형 실시 기간에 따른 구분을 말함. 대학 전형일(실기고사, 면접 등)에 따라 ‘가/나/다’군으로 구분되며 수험생의 경우 군별로 각 한 번씩 총 3번 이내의 지원 기회를 가짐
모집단위	대학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단위를 말함. 주로 학과 단위로 모집을 하며, 학부단위나 계열별로 통합하여 모집하는 경우도 있음
최초합격	지원한 입학전형에서 최초에 합격한 경우를 말함
충원합격	합격자가 등록을 하지 않아 결원이 생겼을 때 해당 대학의 예비합격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을 말함
최종합격	입학전형 절차와 단계에 따라 최종합격한 것을 말함. 전형방법별로 일괄 합산 전형은 별도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전형요소별 반영점수의 총점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선발되며, 단계별 전형은 단계마다 모집인원의 일정 배수를 선발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최종등록	합격자가 해당 대학에 등록의사를 밝히는 예치금을 납부한 후, 대학에서 정한 등록기간에 최종적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함. 정시전형의 경우 합격자 발표 후 등록예치금 없이 바로 등록함

## 평가

사정	지원자에 대한 심사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발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함
평가	평가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자의 가치나 수준을 측정하는 행위를 말함
평가방법	평가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치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말함 <div>예 _ 개별/다수평가, 정상/정량평가, 일괄합산/단계별 평가 등</div>
정량평가	객관적으로 수량화가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는 평가방법을 말함
평가요소	지원자를 평가하는 기준과 내용을 말함 <div>예 _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논리력, 수리력 등</div>

평가항목	평가 시 고려되는 평가요소의 세부 항목을 말함 <div>예 _ 학업역량의 경우 학생부의 등급, 원점수, 수상경력 등, 인성의 경우 리더십, 공동체 의식, 나눔과 배려, 학생부의 출결 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등</div>
평가기준	지원자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말함 <div>예 _ 영어 교과 성적 90점 이상, 1등급, 특정 시험의 합격점수 80점 이상, 전공 적합성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등</div>
평가지표	평가 방향이나 목적, 방법에 관한 구체적 평가기준을 명시한 자료를 말함 <div>예 _ 평가기준과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등 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자료</div>
대학별고사	고사는 지원자의 학업 성적이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의미함. 대학별고사는 대학이 학생선발을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으로 논술, 면접, 적성, 실기고사 등이 있음
심층면접	지원자의 자질과 역량을 보다 세밀하고 심층적으로 살피는 면접. 통상 인성뿐만 아니라 수학능력, 창의력, 전공 적합성, 자질, 기본상식 등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면접을 말함
인·적성면접	지원자의 인성과 전공에 대한 적성을 평가하는 면접을 말함 <div>예 _ 교직 인·적성면접, 의대 인·적성면접</div>
구술면접	말로 하는 시험. 특정 문제를 출제하여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면접을 말함
서류확인면접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내용을 확인하는 면접을 말함
출제문항면접	대학이 사전에 출제한 문항을 통해 지원자를 평가하는 면접을 말함
개별면접	면접관(들)이 지원자 1인과 질의응답하는 면접을 말함
집단토론면접	지원자를 소집단으로 나눠 일정한 주제에 대하여 자유토론을 하게 하고, 면접관이 이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면접을 말함. 집단토론이라고도 부름
발표면접	지원자에게 사전에 출제된 문제를 주고,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정리하게 한 후, 면접관 앞에서 발표하게 하고 그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여 평가하는 면접을 말함
실사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뿐만 아니라 지원자나 제3자와 면담하는 대면조사, 전화통화, 서면조사 등의 모든 활동을 말함

서류평가	대입전형에서 서류를 활용한 평가(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를 말함  🔍 유사용어 _ 서류종합평가, 학생부 등 서류종합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	수시 최저학력기준이나 정시에서 반영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  🔍 유사용어 _ 수능 응시 지정영역, 수능 지정영역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 응시영역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할 때나 정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성적반영 여부와 상관없이 응시하여 결과치를 얻어야 하는 과목을 말함
실질반영비율	전형요소별(학생부, 서류, 면접, 논술 등)로 전형총점에 대해 미치는 실제적인 비율을 의미함. 현재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 비율을 함께 기재하고 있음
가산점	특정 평가요소, 과목 등에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함. 예를 들어 수학'가'와 수학'나' 응시자 모두 지원 가능한 자 연계 모집단위에서 수학'가' 응시자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말함
가중치	대입전형에서 특정 학년이나 교과, 영역에 비중을 두어 전형 총점을 계산하는 것을 말함
기본점수	시험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이 받을 수 있는 최소점수
백분위	백분위는 영역/과목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수치임. 즉, 해당 수험생의 백분위는 응시 학생 전체에 대한 그 학생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 집단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를 말함  (출처: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변환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는 각 과목의 난이도와 표준편차를 고려해 산출되는 점수를 말함. 표준점수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산출하는 점수로 대학에서는 주로 탐구영역의 성적을 반영할 때 사용함
표준점수	원점수에 해당하는 점수를 상대적인 서열로 나타내는 점수임. 즉, 표준점수는 영역 또는 선택과목별로 정해진 평균과 표준편차를 갖도록 변환한 분포 상에서 개인이 획득한 원점수가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내는 점수를 말함  (출처: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환산점수	대학 자체의 반영 방식을 통해 산출한 전형총점을 말함. 지원한 대학이 표준점수, 백분위, 대학 자체 변환표준점수 중 어떤 점수를 활용하는지, 영역별 반영비율과 가중치는 어떤지에 따라 입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을 필요로 함

## 입학전형 기타

학생부 교과성적 대체점수 (비교내신 대체어)	검정고시 합격자, 특수목적고 출신 학생, 재수생 또는 삼수생 이상 등 학생부 성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나, 대학별고사 성적 등과 같은 점수를 비교하여 학생부 교과성적을 대체할 점수를 산출하는 제도를 말함  🔍 유사용어 _ 사정원칙, 입학사정, 사정방법, 합격자사정, 합격자선발기준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	학교생활기록부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는 학생(지원자)을 말함  🔍 유사용어 _ 학생부 전산자료 활용 동의자
지원자격미달	대학입학에 있어 지원자격이 부족함을 말함  🔍 유사용어 _ 자격미달, 지원자격위반
지원자격위반	대학 입학전형에서 해당 전형이 제시하고 있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반한 경우를 말함. 지원자격을 위반하는 경우 선발에서 제외됨으로 꼭 지원자격을 확인하고 지원해야 함
지원횟수위반	입학원서 접수 시 수시전형은 최대 6회, 정시전형은 모집군별로 각 1 회씩 총 3회 지원이 가능함(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은 제외). 이를 초과한 경우 원서접수 기간 순서상 초과한 접수는 취소됨. 이를 위반한 경우 입학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함
입학전형 대상에서 제외	대학에 입학할 지원자격이 미달되었거나 대학수학능력미달 등의 이유로 대학에 입학할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 유사용어 _ 사정 제외, '자격미달자'로 불합격 처리, 입학전형에서 제외
등록예치금	수시모집 본 등록 전에 등록 의사를 밝히는 의미에서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함  🔍 유사용어 _ 등록확인 예치금, 예치금, 수시합격 예치금, 수시모집 예치금, 확인 예치, 등록(예치)금
등록포기	대학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하였으나,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는 등의 이유로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을 포기하는 의사를 전달하는 절차. 반드시 등록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이중등록으로 합격이 취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예비합격자	최초합격자 발표시 일정 비율의 지원자에게 후순위 합격자의 순위(순서)를 부여하는데, 이 때 후순위 합격 기회를 부여받은 학생을 말함  🔍 유사용어 _ 예비순위자(예비자), 예비합격 순위자, 충원대상자, 예비후보자, 충원예비합격자, 후보자, 후보자순위

예비합격 순위	최초합격자 발표 시, 일정 비율의 지원자에게 부여되는 후순위 합격자의 순위(순서)를 말함 <b>Q</b> 유사용어 _ 예비순위, 예비합격 후보순위, 후보순위, 예비후보 순위, 총원합격 후보순위
결원	모집인원에 부족한 인원을 말함 <b>Q</b> 유사용어 _ 미등록 결원, 미선발 인원
미등록 총원	합격자가 등록을 하지 않아 결원이 생겼을 때 해당 대학의 예비 합격자를 추가로 등록시키는 것을 말함 <b>Q</b> 유사용어 _ 결원 보충, 미등록 결원 보충, 미충원 인원 선발, 후보 총원
교차지원	본인의 계열과는 다른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경우를 의미함. 대학 전형에 따라 교차지원 가능여부가 다르므로 모집요강이나 대학 입학처에 확인해야 함
복수지원	수시모집은 각 대학에 최대 6개 전형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것을 복수지원이라고 함.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 내 복수지원 가능. 정시모집 역시 모집군 별로 각 1회씩 총 3개의 전형을 지원 할 수 있음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 간(가/나/다 군) 또는 동일 대학 내 복수지원 가능) (복수지원 시 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은 제외함)
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전형 내에서 2개 이상의 모집단위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을 말함 <b>Q</b> 예 _ 경영학과 학생의 50%를 '가'군에서 모집하고, 나머지 50%는 '나'군에서 모집하는 경우 현재는 분할모집을 허용하지 않음
이중등록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등록한 것을 말하며, 이중등록은 입학 취소 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함 (출처: 대입정보포털 입시용어사전)
유사도 / 유사도 검색시스템	학생부위주전형에서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의 표절, 대필 및 허위 서류 작성 등 지원서류 검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유사한 정도를 검색하는 것을 의미함.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통의 검색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대학 내/대학 간 유사도를 검색 및 비교하여 동일 단어와 동일 문장의 반복과 빈도·위치, 행의 배열 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각 대학에 제시함. 대학은 유사도 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검증 절차를 두어 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이월 인원	모집시기별로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다음 모집시기로 이월하여 선발하는 인원을 말함. 수시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시모집 지원시 확인이 필요함 (대입전형 기본사항 참고 및 연구자 재정의)

미충원 인원	최종적으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한 인원을 말함
전형료 환불	입학전형에 응시하기 위해 결제한 전형료는 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불이 가능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3 제2항) ① 응시자가 착오로 과납한 경우(과납 금액 환불) ② 대학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전액환불) ③ 천재지변, 질병, 사고 등으로 입원하였거나 사망한 경우(전액환불) ④ 단계별 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전형에 소요되는 금액 환불)

발행 : 2016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추가지원 공동연구 「한 눈에 살펴보는 대학입학 용어사전」

이것만 알면 입시 고수!

## 대학입학 용어사전



# 2020

## All About Admissions

---

충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가이드북

### CBNU

- 110 2020학년도 충북대학교 대입전형 기본계획
- 124 한눈에 보는 대학입학전형
- 126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 -  
충북대학교



충북대학교 대입전형  
기본계획

1 2020학년도 기본계획 주요사항

모집시기	정원구분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요소	수능최저학력기준
수시	정원내	학생부 (종합)	① 학생부종합 I	567	• 단계별 전형 - 1단계(3배수): 서류평가 80점 - 2단계(1배수): 서류평가 80점 + 20점	X
			② 학생부종합 II	180	• 일괄합산: 서류평가 80점	O
		학생부 (교과)	③ 학생부교과 ④ 지역인재 ⑤ 국가보훈대상자	845 251 35	• 일괄합산: 학생부교과 80점 • 사범대학, 의예과 단계별 전형 운영 - 1단계(4배수): 서류평가 80점 - 2단계(1배수): 서류평가 80점 + 20점	O
		실기 위주	⑥ 체육특기자	4	• 일괄합산: 학생부교과 20점 + 인·적성면접 20점 + 특기실적 60점	X
	정원외	학생부 (종합)	⑦ 특성화고졸신자 ⑧ 농어촌학생	30 66	• 일괄합산: 서류평가 80점 • 사범대학, 의예과 단계별 전형 운영 - 1단계(4배수): 서류평가 80점 - 2단계(1배수): 서류평가 80점 + 20점	X
		학생부 (교과)	⑨ 사회적배려대상자 ⑩ 특수교육대상자	54 51	• 일괄합산: 학생부교과 80점 • 사범대학 단계별 전형 운영 - 1단계(4배수): 서류평가 80점 - 2단계(1배수): 서류평가 80점 + 20점	X
		학생부 (종합)	⑪ 특성화고졸재직자	40	일괄합산: 서류평가 100	X
		기타	⑫ 재외국민	54	모집요강 참조	X
	계		- 정원내 : 6개, - 정원외 : 6개	2,177(71.7%)		
정시	정원내	수능 위주	⑬ 정시가군 일반 ⑭ 정시나군 일반	567 245	• 일반모집단위: 수능 1,000점 • 사범대학: 수능 950점 + 인·적성면접 50점 • 예체능(체육): 수능 600점 + 실기 350점 + 인·적성면접 50점 • 의예과 단계별 전형 운영 - 1단계(3배수): 수능 950점 - 2단계(1배수): 수능 950점 + 인·적성면접 50점	X
			⑮ 정시나군 지역인재	10	• 단계별 전형 - 1단계(3배수): 수능 950 - 2단계(1배수): 수능 950점 + 인·적성면접 50점	X
		실기 위주	⑯ 정시가군 일반	38	• 예체능(조형예술, 디자인): 수능 500점 + 실기 500점	X
	정원외	수능 위주	수시 정원외 미충원인원 (사회적배려, 농어촌학생, 특성화고, 특성화고졸재직자)	수시 미충원	• 일반모집단위: 수능 1,000점 • 사범대학: 수능 950점 + 인·적성면접 50점 • 의예과 단계별 전형 운영	X
	계		- 정원내 : 2개	860(28.3%)		
	합 계			3,037(약대제외)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2020학년도 입학정원조정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기본계획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원 시에는 모집시기별 모집요강을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정원내)

1. 모집인원 : 학생부종합Ⅰ 567명, 학생부종합Ⅱ 180명

### 2. 지원자격

전형명	지 원 자 격
학생부종합Ⅰ	○ 2020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생부종합Ⅱ	※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 불가능

### 3. 전형방법

#### ●●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	단계	서류 평가	면접	계
학생부종합Ⅰ	단계별 전형	1단계 300% 2단계 100%	미반영	1단계	80점(100%)	－	80점(100%)
				2단계	80점(66.7%)	20점(33.3%)	100점(100%)
학생부종합Ⅱ	일괄합산	100%	반영(최저학력기준)	일괄합산	80점(100%)	－	80점(100%)

#### ●● 서류평가방법

전형명	전형별 반영점수			평가영역
	반영점수	기본점수	실질반영점수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Ⅱ	80점	40점	40점	전문성/인성/적극성

#### ●● 면접평가방법

전형명	전형별 반영점수			평가영역
	반영점수	기본점수	실질반영점수	
학생부종합	20점	0점	20점	전문성/인성/적극성

### 4. 수능최저학력기준: 학생부종합Ⅱ 전형 적용

## 3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정원외)

1. 모집인원 : 특성화고출신자 30명, 농어촌학생 66명

### 2. 지원자격

전형명	지 원 자 격
특성화고 출신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포함)의 2020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을 충족한 자 － 우리 대학이 지정한 모집단위별 동일 계열 기준학과를 이수한 자 ※ 단, 동일계열 기준학과가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해당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 가능함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출신자 제외 ※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 불가능
	○ 2020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고등학교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소재 고등학교 전 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소재 초·중·고등학교 12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2.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소재 중·고등학교 6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동 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 부모의 사망(실종), 이혼, 재혼 등의 경우에는 우리대학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거주요건을 별도 심사(기준은 추후 모집요강에서 안내) ※ 재학기간은 최초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임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농어촌지역(읍·면)이 동으로 변경된 경우 동을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인정 [고등학교(초·중학교) 재학 기간 중 농어촌지역(읍·면)이 동으로 변경된 경우, 고등학교(초·중학교) 재학 기간 동안만 해당 지역을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인정] ※ 농어촌 및 도서·벽지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출신자는 제외 ※ 재학기간 중 주민등록주소 기록이 있는 경우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사정대상에서 제외됨 ※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 불가능
농어촌 학생	

### 3. 전형방법

####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	단계	서류평가	인·적성 면접	계
특성화고출신자 농어촌학생 (일반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미반영	–	80점 (100%)	–	80점 (100%)
농어촌학생 (사범대학, 의예과)	단계별 전형	1단계 400% 2단계 100%		1단계	80점 (100%)	–	80점 (100%)
				2단계	80점 (66.7%)	20점 (33.3%)	100점 (100%)

#### 서류평가방법

전형명	전형별 반영점수			평가영역
	반영점수	기본점수	실질반영점수	
특성화고출신자 농어촌학생	80점	40점	40점	전문성/인성/적극성

#### 인·적성면접 평가방법

– 사범대학, 의예과

반영점수	기본점수	실질반영점수	모집단위	평가영역
20점	0점	20점	사범대학	교직적성(교직·교육관, 발전가능성, 전공소양) 인성(정서·인성)
			의예과	전문성/인성/적극성

### 4. 수능최저학력기준 : 적용하지 않음

## 4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정원내)

### 1. 모집인원 : 학생부교과 845명, 지역인재 251명, 국가보훈대상자 35명

### 2. 지원자격

전형명	지 원 자 격
학생부교과	○ 2020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지역인재	○ 2020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충청권(충북, 세종, 대전, 충남)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 또는 이수 예정인 자 ※ 최초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충청권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한함
국가보훈 대상자	○ 2020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보훈관계법령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자(국가보훈처의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 대상자) ※ 보훈관계법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 3. 전형방법

####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	단계	학생부교과	인·적성면접	계
학생부교과(일반모집단위), 국가보훈대상자, 지역인재 (일반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반영 (최저학력 기준)	–	80점(100%)	–	80점(100%)
학생부교과 (사범대학, 의예과) 지역인재(의예과)	단계별 전형	1단계 400% 2단계 100%	반영 (최저학력 기준)	1단계	80점(100%)	–	80점(100%)
				2단계	80점(80%)	20점(20%)	100점(100%)

#### 인·적성면접 평가방법

반영점수	기본점수	실질반영점수	모집단위	평가영역
20점	10점	10점	사범대학	교직적성(교직·교육관, 발전가능성, 전공소양)/인성(정서·인성)
			의예과	전문성/인성/적극성

### 4.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 5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정원외)

1. 모집인원 : 사회적배려대상자 54명, 특수교육대상자 51명

### 2. 지원자격

전형명	지 원 자 격
사회적 배려 대상자	<div>○ 2020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div> <div>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를 가구단위로 보장받은 가구의 학생, 혹은 개인단위로 보장받은 본인</div> <div>2. 차상위복지급여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자활급여,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차상위부가 급여,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혹은 개인 단위로 보장받은 본인</div> <div>3.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의 학생</div>
특수교육 대상자	<div>○ 2020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div> <div>–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div> <div>–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div>

### 3. 전형방법

####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	단계	학생부 교과	인·적성 면접	계
사회적배려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일반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미반영	–	80점(100%)	–	80점(100%)
특수교육대상자 (사범대학)	단계별 전형	1단계 400%	미반영	1단계	80점(100%)	–	80점(100%)
		2단계 100%		2단계	80점(80%)	20점(20%)	100점(100%)

#### 인·적성면접 평가방법

반영점수	기본점수	실질반영점수	모집단위	평가영역
20점	10점	10점	사범대학	교직적성(교직·교육관, 발전가능성, 전공소양) 인성(정서·인성)

4. 수능최저학력기준 : 적용하지 않음

## 6 수능 반영 영역 및 최저학력기준

### 1.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

모집 계열	모집단위	국 어	수 학		영 어	탐 구	한국사
			가	가 / 나			
인문계	전 모집단위	●		●	●	사/과/직	●
	수학가만 인정	●	●		●	과	●
자연계	수학가/나 인정 (생활대, 간호학과 제외)	●		●	●	과	●
	생활과학대학	●		●	●	사/과/직	●
	간호학과	●		●	●	사/과	●
공통계	자율전공학부	●		●	●	사/과/직	●

※ 자연계 수학가형만 인정 모집단위 : 수학·정보통계학부, 수학교육과, 수의예과, 의예과

※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 시 지원자는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의 전 영역(사회·과학·직업 탐구는 2과목)에 응시하여야 함  
(탐구과목은 별도의 지정과목이 없음)

※ 한국사는 반영영역에는 포함되나(필수 응시), 최저학력기준 등급 합에는 미포함됨



2.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학생부종합 II · 학생부교과 · 지역인재 · 국가보훈대상자전형

※ 반영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 또는 상위 2개 영역 등급 합 충족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			상위 2개 영역 등급 합
			학생부종합II	학생부교과	지역인재	국가보훈대상자
인문계	인문대학	해당모집단위	13등급 이내	12등급 이내		10등급 이내
	사회과학대학	해당모집단위				
	경영대학	해당모집단위				
	농업생명환경대학	농업경제학과				
	생활과학대학	해당모집단위	–	9등급 이내	–	–
	사범대학	해당모집단위	–			
자연계	자연과학대학	전모집단위	13등급 이내	12등급 이내		12등급 이내
	공과대학	전모집단위				
	전자정보대학	전모집단위				
	농업생명환경대학	전모집단위				
	생활과학대학	전모집단위	–	9등급 이내	–	
	사범대학	전모집단위	–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8등급 이내	7등급 이내		–
	의과대학	의예과	–	4등급 이내		
공통계	본부직할	자율전공학부	–	12등급 이내		–

※ 자연계 모집단위는 수학 필수 반영(농업생명환경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간호학과는 수학 필수 미반영, 국가보훈대상자 수학 필수 미반영)  
※ 자연계 및 공통계 수학 나형 응시자는 위 표에 제시된 등급보다 2등급(공통계는 1등급) 상향된 등급을 충족시켜야 함(해당영역 반영여부와 상관없음)  
※ 탐구는 2개 과목 평균 등급을 반영

●● 학생부종합 I , 특성화고출신자, 농어촌학생전형, 사회적배려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수능 –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7 수시 학생부 반영방법

1.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전형구분	학년별 반영비율(%)		반영비율(%)		교과 성적반영					비교과 성적반영			
	1학년	2·3 학년	교과	비교과	반영 요소	반영 점수	기본 점수	실질 반영 점수	과목별 가산점	반영 요소	반영 점수	기본 점수	실질 반영 점수
학생부교과, 국가보훈대상자, 지역인재, 사회적배려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20%	80%	100%	미반영	석차등급· 이수단위/ 검정고시 합격성적	80점	40점	40점	없음	－	－	－	－
체육특기자	20%	80%	90%	10%	석차등급· 이수단위	18점	2점	16점	없음	출결	2점	－	2점

※ 반영되는 교과에서 이수한 과목수가 최소 14과목(체육특기자 전형은 4과목) 이상이어야 함  
※ 반영교과목 중 과목석차등급, 평어, 석차(석차백분율)로 표시되지 않고, 표준점수 등 다른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추후 우리 대학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  
※ 외국고교 성적은 미반영  
※ 출결: 학생부의 사고(무단)에 의한 출결상황만 반영

2. 교과성적 반영교과 및 과목 수

학년	계열	반영교과	과목수
1학년	전계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해당교과 전과목
2·3학년	인문계 예체능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공통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 검정고시 합격자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 검정고시 성적 반영(전 계열 공통)  
※ 교과별 반영과목명은 추후 모집요강에 안내

8 정시모집

1. 모집인원 : 가군 일반 604명, 나군 일반 242명, 나군 지역인재 10명

2. 지원자격

모집 시기	전형명	전형유형	지 원 자 격
가군	일반	수능위주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2020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일반 (예체능계)	실기위주	
나군	일반	수능위주	○ 가군과 동일함
	지역인재	수능위주	
가군 나군	특별	수능위주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은 수능 미응시) 지원자격은 수시 정원의 전형과 동일함 ※ 모집인원 : 수시 정원의 전형(사회적배려대상자, 특성화고출신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졸재직자) 미충원 인원

3. 전형방법

반영비율

모집 시기	모집단위	전형방법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계	최저 학력 기준
			수능	실기	인·적성 면접		
	인문계, 자연계(수학 · 정보통계학부, 수의예과)	일괄합산 (100%)	1000점 (100%)	—	—	1000점 (100%)	
	자연계(수학가/나 인정)	일괄합산 (100%)	1000점 (100%)	—	—	1000점 (100%)	
	공동계(자율전공학부)	일괄합산 (100%)	1000점 (100%)	—	—	1000점 (100%)	
	예체능계(조형예술,디자인)	일괄합산 (100%)	500점 (44.4%)	500점 (55.6%)	—	1000점 (100%)	
가군 나군	인문계, 자연계(수학교육과)	일괄합산 (100%)	950점 (95.2%)	—	50점 (4.8%)	1000점 (100%)	제한 없음
사범 대학	자연계(수학가/나 인정)	일괄합산 (100%)	950점 (95.2%)	—	50점 (4.8%)	1000점 (100%)	
	예체능계(체육교육)	일괄합산 (100%)	600점 (68%)	350점 (28.6%)	50점 (3.4%)	1000점 (100%)	
의과 대학	의예과	1단계 (300%)	950점 (100%)	—	—	950점 (100%)	
		2단계 (100%)	950점 (95.2%)	—	50점 (4.8%)	1000점 (100%)	

※ 자연계 수학 가/나 인정, 공동계 모집단위 수능에 수능 가산점 포함(수학 가형 응시자만 가산점 부여)

인·적성 면접 평가방법

반영점수	기본점수	실질반영점수	모집단위	평가영역
50점	40점	10점	사범대학	교직적성(교직·교육관, 발전가능성, 전공소양) 인성(정서·인성)
			의예과	전문성/인성/적극성

실기고사 종목 및 배점은 모집요강을 통해 확인

4. 수능 반영방법

반영영역

모집 시기	모집 계열	모집단위	국 어	수 학		영 어	탐 구	한국사	가산점 영역
				가	가/나				
가군 나군	인문	전 모집단위	●		●	●	사/과/직	●	－
		수학가만 인정 모집단위	●	●		●	과	●	－
	자연	수학가/나 인정 모집단위 (생활대, 간호학과 제외)	●		●	●	과	●	수학가
		생활과학대학	●		●	●	사/과/직	●	수학가
		간호학과	●		●	●	사/과	●	수학가
		특성화고출신자 전형 모집단위	●		●	●	사/과/직	●	수학가
	예체능	전학과	●			●	사/과/직	●	－
		자율전공학부	●		●	●	사/과/직	●	수학가

- ※ 자연계 수학가형만 인정 모집단위 : 수학·정보통계학부, 수학교육과, 수의예과, 의예과
- ※ 지원자는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의 전 영역(탐구과목 2과목)에 응시하여야 함(탐구과목은 별도의 지정과목이 없음)
- ※ 한국사는 반영영역에는 포함되나(필수 응시), 수능 성적 계산에는 미포함됨

반영비율

모집 시기	모집 계열	모집단위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국 어	수 학	영 어	탐 구
가군 나군	인문	전 모집단위	30	20	20	30
	자연	전 모집단위	20	30	20	30
	예체능	전 모집단위	40	－	20	40
	공동	자율전공학부	25	25	20	30

반영점수 및 산출방법

－ 모집계열별 수능 반영점수

모집 시기	모집계열	모집단위	반영점수	기본점수	실질반영점수
가군 나군	인문계 자연계(수학·정보통계학부, 수의예과)	해당학과	1000점	800	200
		자연계(수학가/나 인정)	해당학과	990점	790
		공동계(자율전공학부)	해당학과	990점	200
		예체능계(조형예술, 디자인)	해당학과	500점	200
	사범대학	인문계, 수학교육과	해당학과	950점	200
		자연계(수학가/나 인정)	해당학과	940점	200
		예체능계	체육교육과	600점	200
		의과대학 의예과	의예과	950점	200

- ※ 자연계 수학 가/나 인정, 공동계 모집단위 지원자 중 수학 가형 응시자는 수능 가산점 부여
- ※ 수능 영역별 기본점수 : 기본점수 총점×영역별 반영비율
- ※ 수능 영역별 실질반영점수 : 실질반영점수 총점×영역별 반영비율

점수산출 활용지표

- － 국어, 수학, 탐구 : 영역별 취득 표준점수
- － 영어 : 절대평가 등급
- ※ 자세한 점수 산출 방식은 모집요강을 통해 확인

# 한눈에 보는 대학입학전형

원서접수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대학에서는 학생을 이렇게 선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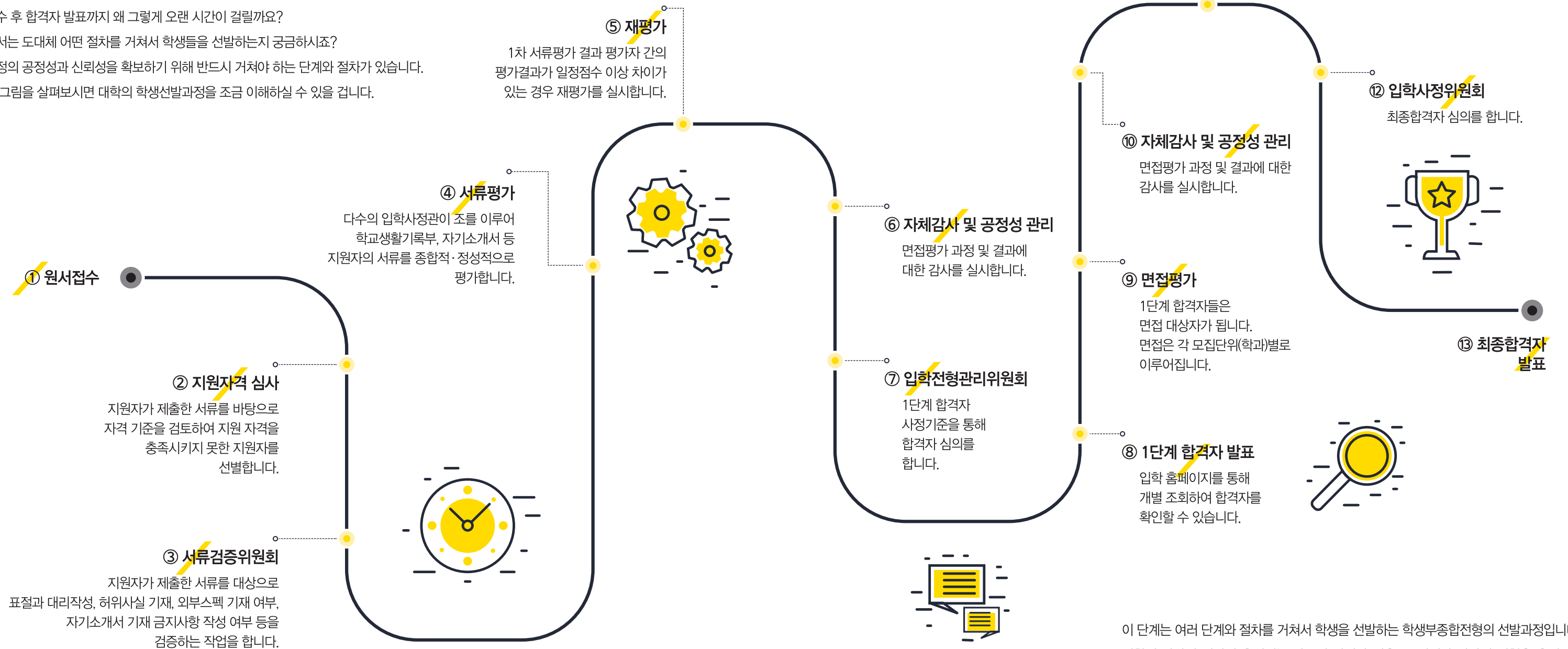
원서접수 후 합격자 발표까지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대학에서는 도대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궁금하시죠?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와 절차가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살펴보면 대학의 학생선발과정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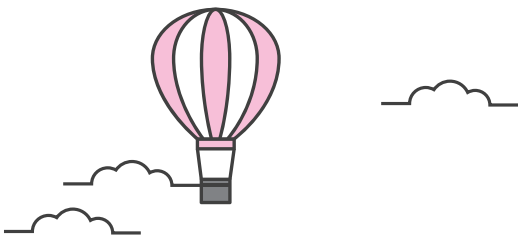
## 대입전형 처리 절차 및 방법 안내



이 단계는 여러 단계와 절차를 거쳐서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과정입니다. 대학에 따라서 절차의 운영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의 전형을 운영하고 합격자를 선정하여 발표하기까지 대학에서는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

- 수시모집
- 정시모집
- 추가모집



수시 원서접수  
2019. 9. 6(금) ~ 10(화)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2019. 9. 11(수) ~ 12. 9(월) (90일)

## 수시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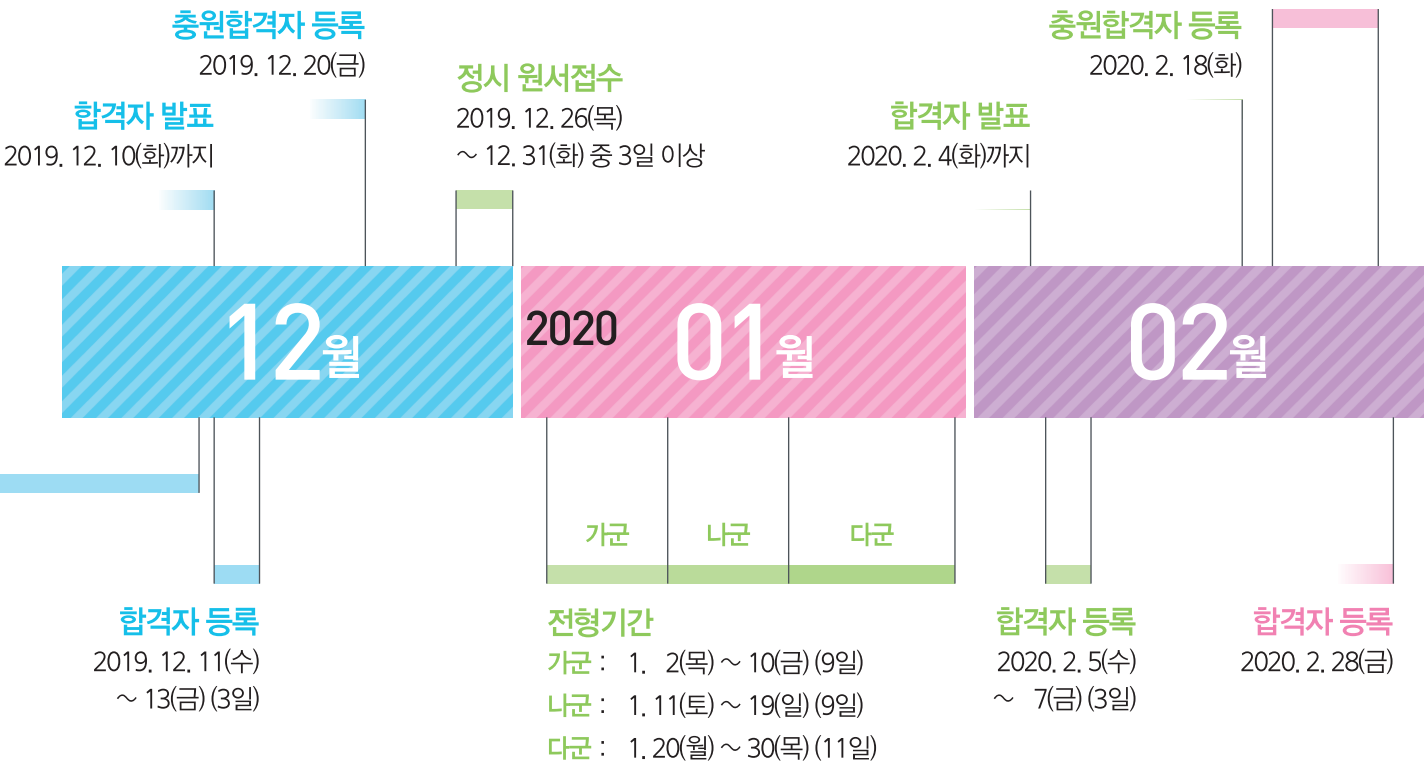
원서접수	2019. 9. 6(금) ~ 10(화)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2019. 9. 11(수) ~ 12. 9(월) (90일)
합격자 발표	2019. 12. 10(화)까지
합격자 등록	2019. 12. 11(수) ~ 13(금)(3일)
총원합격자 등록	2019. 12. 20(금)

## 정시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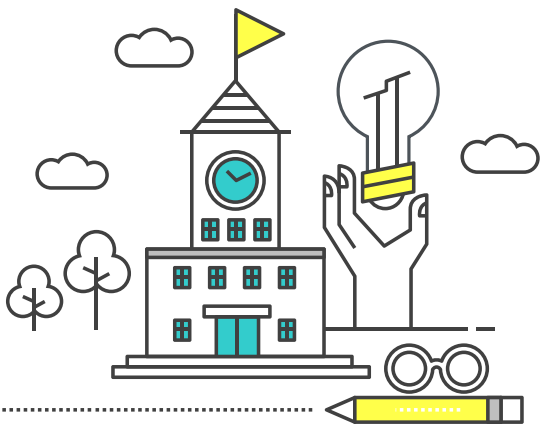
원서접수	2019. 12. 26(목) ~ 12. 31(화) 중 3일 이상
정시 가군	2020. 1. 2(목) ~ 10(금) (9일)
나군	2020. 1. 11(토) ~ 19(일) (9일)
다군	2020. 1. 20(월) ~ 30(목) (11일)
합격자 발표	2020. 2. 4(화)까지
합격자 등록	2020. 2. 5(수) ~ 7(금) (3일)
총원합격자 등록	2020. 2. 18(화)

## 추가모집

원서접수 & 전형일 & 합격자 발표	2020. 2. 20(목) ~ 27(목) 21:00까지
합격자 등록	2020. 2. 28(금)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



함께 여는  
영동적 미래

★ ★  
**5년 연속  
학생만족도**

**1위**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

「국립대학교」 부문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위